

11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NOVEMBER
vol.275

Cover Story

오페라 푸치니 '토스카'

반갑습니다 부산이 낳은 보석같은 소프라노 김유섬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도심 바다를 담은 캔버스





85년의 역사... 러시아 대표 교향악단의 놀라움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의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차이코프스키 | 백조의 호수 발레 모음곡, 로코코 변주곡
&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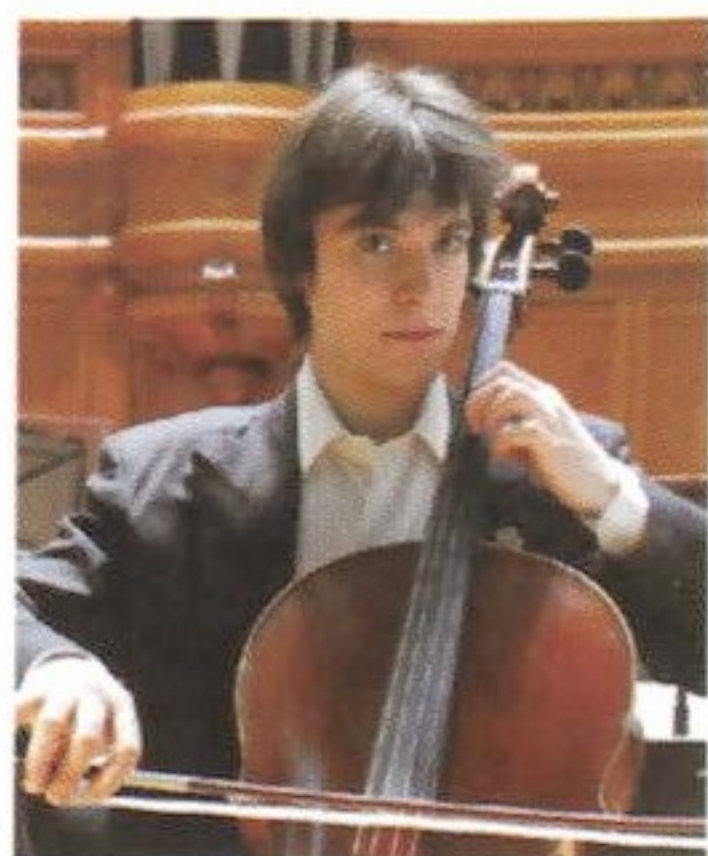


Tchaikovsky
Symphony Orchestra of Moscow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Vladimir Fedoseyev

2014. 11. 17(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첼로 | Fyodor Zemlerub

티켓 : R석 20만원 S석 15만원 A석 10만원 B석 7만원 C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할인)

문의 :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 02-3487-0678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 / 1544-1555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기념 프레콘서트
Pre-Concert

부산 피아니스트, 불멸의 음악가를 연주하다!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전곡연주회

11.07 (금) No.1~4



No.1 김은주 No.2 홍유리 No.3 김정화 No.4 김해옥

11.08 (토) No.5~8



No.5 김진희 No.6 김미현A No.7 김민정 No.8 박필은

11.10 (월) No.9~12



No.9 정광민 No.10 서혜원 No.11 김혜린 No.12 김선영

11.11 (화) No.13~16



No.13 박현정 No.14 김미현B No.15 김영지 No.16 심정연

11.12 (수) No.17~21



No.17 황정미 No.18 최지은 No.19,20 김문주 No.21 김경출

11.13 (목) No.22~26



No.22 송지은 No.23 강남길 No.24 하승경 No.25 장효진 No.26 권혜령

11.14 (금) No.27~29



No.27 정안선 No.28 원영아 No.29 권 준

11.15 (토) No.30~32



No.30 심경숙 No.31 노은주 No.32 정문정

2014. 11. 7~15 오후 7:30 (일요일 공연 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주최 영화의전당

부산아트매니지먼트

주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후원 (사)부산국제음악제

코스모스악기
COSMOS CORPORATION

티켓 전석 2만원 (영화의전당, 부산문화회관 회원 10%할인, 20인 이상 단체 20%할인-전화예매에 한함)

예매처 인터파크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음악회 예매 및 공연문의 051-740-5833

The 36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러시아 G20 세계정상회담 특별 독주자

Evgeny Izotov

Chopin & Rachmaninoff

2014. 11. 14 (금)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알프레드 브렌델이 사랑하는 제자

Kit Armstrong

Bach & Mozart & Beethoven

2014. 11. 15 (토)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예술감독 김원명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국제신문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인제대학교
입장료 2천원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051)220-5812

무대감독 전광수 조명감독 박병주 음향감독 신경범

본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해설이 있는 전막 발레

돈키호테

Don Quixote

2014. 11.23 일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50% 할인 (만 48개월~23세, 만 65세 이상, 예술인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국립발레단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입장 | 만 48개월이상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 강수진 부예술감독 | 신무섭 지도위원 | 박일, 김은진, 정현옥 기술감독 | 박창모 무대감독 | 이영돈 조명감독 | 백시원

의상감독 | 김인옥 분장감독 | 박인혜 음악감독 | 김종욱 출연 | 국립발레단

을숙도문화회관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신경범

※ 본 공연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았습니다.

Young Generation

지 휘 김상철
피아노 정은정

BSO YG CONCERT



BEETHOVEN
SYMPHONY SERIES II

2014년 12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마에스트로 오충근 후원회  굿모닝백이안과

티켓 전석 1만원 (학생 50%할인)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051) 621-4577 www.bso21.com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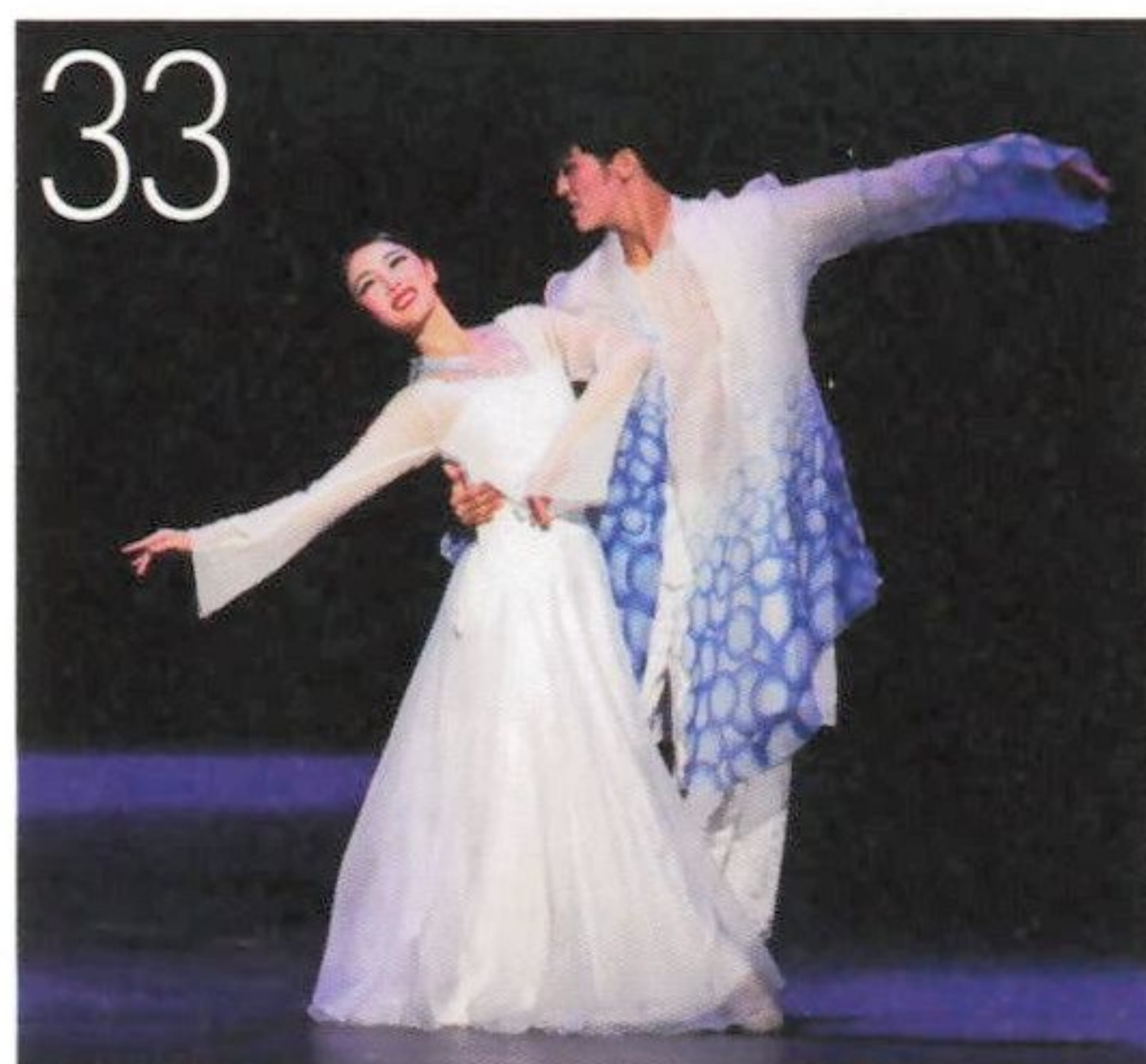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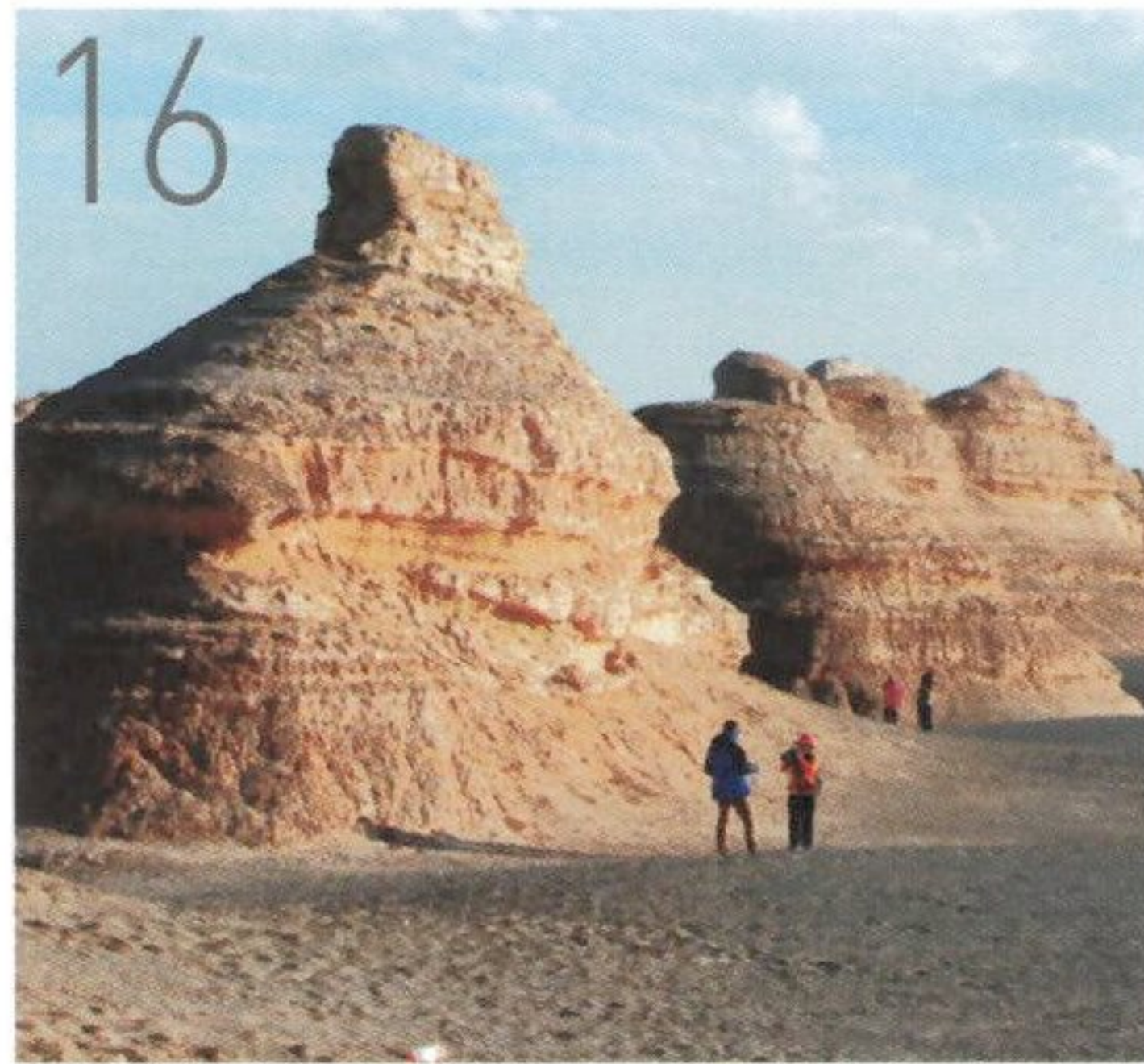
베토벤 L. v. Beethoven	피아노 협주곡 제5번 작품73 '황제' Piano Concerto No.5 in E ^b Major, Op.73 'Emperor'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5번 c단조 작품67 '운명' Symphony No.5 in c minor, Op.67 'Fate'

* 본 공연은 2014년 부산문화재단 지역예술창작지원사업 보조금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C o n t e n t s

·
·

2014
NOVEMBER
vol.275



08 커버스토리
오페라 푸치니 '토스카'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 12 반갑습니다
오페라 '토스카' 주역 소프라노 김유섬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베이징에서 서북으로 떠난 6,000Km 여정_허정애
- 18 불멸의 거장_셰익스피어⑤
사극의 세계_송홍한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바다를 담은 캔버스-시랑리 작업실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소민아트센터
- 24 우리는 문화가족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 26 테마가 있는 여행
진해만 생태숲 힐링투어

Boards Inside

- 30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0 새로나온 음반
- 61 새로나온 책

Center News

- 62 부산문화회관 소식
- 63 부산문화회관로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1월호 통권 275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편집 백경옥 정복엽 발행일 2014년 10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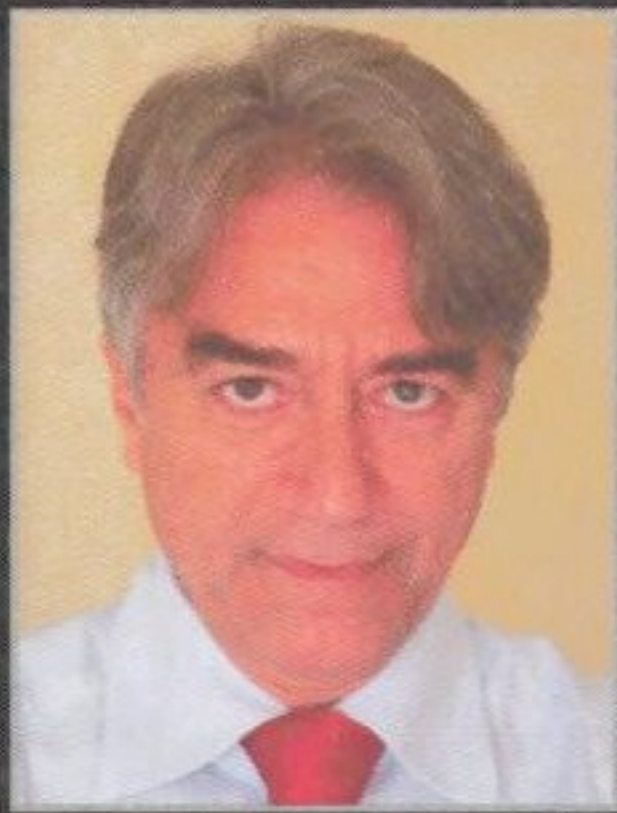
이탈리아 로마오페라극장 솔오페라 공동제작

오페라 '토스카'

12월 5일-7일 금-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20만원, S석 18만원, A석 13만원, B석 8만원, C석 5만원, D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부산문화회관(607-6044), 솔오페라단 공연 기획팀(1544-9373)



연출 바카리



토스카 김유섬



카바라도시 김지호



스카르피아 파비안



스카르피아 박대용



강한 연극적 요소와 유려한 선율이 빛어내는 시대를 초월한 충격적 걸작 ‘토스카’

이탈리아 로마오페라극장과 솔오페라가 공동제작한 푸치니 3대 걸작 오페라 ‘토스카’가 2014년을 보내는 12월 최고의 감동을 선사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펼쳐지는 세 남녀의 사랑과 질투, 죽음을 그린 ‘토스카’는 극적인 스토리와 아름다운 아리아들로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켜온 대작이다. 특히 이번 작품은 1900년 1월 14일 푸치니의 토스카가 초연된 로마오페라극장에 의해 재탄생된 화제작으로 음악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탈리아의 중심에 위치한 오랜 역사의 로마오페라극장은 무수히 많은 작품의 초연무대가 펼쳐진 곳이다. 1900년 토스카 초연당시 살인, 강간미수, 고문, 자살 등을 다룬 파격적인 스토리의 ‘토스카’는 로마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짜임새 있는 구성과 비극으로 치닫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토스카’는 유려한 아리아들의 섬세한 흐름과 함께 아름다운 칼이 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찌른다. 테너가 부르는 ‘오묘한 조화’와 ‘별은 빛나건만’, 소프라노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가 그 대표적인 아리아이다. 세 개의 아리아는 극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받는 아리아로 손꼽히고 있다.

이번 한국 무대에서는 100년의 시간을 넘어 로마오페라극장의 초연이 가진 아름다움과 생생함을 간직하면서 또 다른 전율과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이번 작품은 섬세하고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연출로 정평이 나있는 연출의 마법사 잔도 메니코 바카리(Giandomenico Vaccari)가 연출을 맡았고, 공연기획자로, 움베르토 조르다노 앙상블의 리더로,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음악의 전령사 디노 데 팔마(Maestro Dino de palma)가 예술감독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준다.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는 La Scala 극장의 메인으로 활동 중인 세계적인 명성의 바리톤 엘리아 파비안(Elia Fabbian)과의 만남에 기대가 크다. 희극과 비극을 넘나들며 다양한 매력

을 뽐내고 있는 엘리아 파비안은 솔오페라단의 ‘토스카’에서 카바라도시 보다도 오히려 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악역 스카르피아를 맡아서 극의 중심을 잡아준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성악가로 데뷔한 엘리아 파비안은 밀라노의 세계적인 극장 Teatro alla Scala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많은 명가수의 가르침을 받으며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토티 달 몬테 국제콩쿠르, 티토 곱비 국제콩쿠르, 엔리코 카루소 국제콩쿠르 등 여러 콩쿠르에서 우승과 더불어 ‘최고의 신인 바리톤’ 상을 받는 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자랑하는 파비안은 2004년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 2005년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 타이틀 롤을 맡았으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스칼라극장에서 펼쳐지는 많은 작품의 주연을 맡아 호연하고 있다.

캐스팅 또한 화려하다. 처음으로 부산을 찾는 엘리아 파비안 외에도 ‘토스카’를 이끌어갈 주역 토스카는 세계적인 작곡가들의 주요 레퍼토리를 모두 섭렵하며 매력을 뽐내는 매혹적인 소프라노 루이젤라 데 피에트로와 부산이 낳은 보석같은 소프라노 김유섬이 더블 캐스팅 되어 개성 넘치는 토스카를 선보인다. 토스카의 사랑을 받는 카바라도시에는 비평가와 음악애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테너 레오나르도 그라메냐(Leonardo Gramegna),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사랑받고 있는 테너 김지호가 열연한다. 그 외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와 연기로 관중을 압도하는 바리톤 박대용이 엘리아 파비안과 더블 캐스팅으로 스카르피아로 열연한다.

출연진 일정표

	토스카	카바라도시	스카르피아	안젤로티	사크리스탄	스플레타
12/05(금)	Luisella De Pietro	Leonardo Gramegna	박대용	Stefano Rinaldi Miliani	Matteo D'apolito	Nunzio Fazzini
12/06(토)	김유섬	Leonardo Gramegna	Elia Fabbian	Stefano Rinaldi Miliani	Matteo D'apolito	Nunzio Fazzini
12/07(일)	Luisella De Pietro	김지호	Elia Fabbian	Stefano Rinaldi Miliani	Matteo D'apolito	Nunzio Fazzini



CULTURAL SCHEDULE

SUN

MON

TUE

전시실

2014 부산비엔날레-대, 중전시실
9월 20일(토)-11월 22일(토)
전시시간 : 10:00~18:00
부산비엔날레 사무국(503-6574)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대, 중전시실
11월 28일(금)-11월 30일(일)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차문화사무국(809-1551)

국제회의장

장일범의 명작 오페라 속으로

11월 3일(월) 17:00 모차르트 '돈조반니'
11월 10일(월) 17:00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장미의 기사'
11월 17일(월) 17:00 도니제티 '돈 파스칼레'
11월 24일(월) 17:00 레하르 '즐거운 미망인'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2 **2014 막심 므라비차 전국투어**
공연 18:00 11만원 · 9만 9천원 · 7만 7천원 · 5만 5천원
지니컨텐츠(02-568-8831)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17:00
균일 2만원/WE MUSIC
(031-321-8958, 010-0416-5482)

3

4 **부산가야금연주단 10주년 기념음악회**
'천년의 소리-세계를 품은 가야금' 19:30
3만원 · 1만원/부산가야금연주단
(510-2944, 010-6575-7968)

허에스터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예술기획(010-4909-7444)

제18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9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9:00**
초대/아트커뮤니티센터-라운
(506-9887, 010-4558-7642)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대상 수상작 '벚꽃동산-진실 너머' 17:0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10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라보엠'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부산문화회관(607-6058)

2014 김희은의 춤 '罽' 19:00
2만원 · 1만원/김희은(051-890-2513, 010-7770-5395)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대상 수상작 '벚꽃동산-진실너머'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11 **2014 유럽 최고의 기타리스트**
피보 교방 초청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부산문화(1600-1803)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우수상 수상작 '러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프로젝트'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16 **뮤지컬 '시카고' 15:0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청소년 협주곡의 밤 17:00
필 그림 오케스트라(010-7309-8069)

12학년 '가을 이야기' 18:30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010-4065-2562)

17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밤' 20:00** 20만원 · 15만원 · 10만원 · 7만원 · 5만원/(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02-3487-0678)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19:30 사랑의 부부합창단(623-3331, 010-6428-7019)

18

25 **기부와 나눔을 실현하는 2014 부산대학교 효원음악회 19:30**
초대(초대권 지참)
부산대학교(510-1266)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19:00
초대/강학윤(010-9287-6350)

23 **제46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30** 2만원 · 1만원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제22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연주회 17:00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010-9250-3348)

이혜진, 김여원 듀오 리사이틀 19:30
초대/이혜진(010-4842-4844)

24 **2014 제6회 부산월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The Classic-아시아의 창 부산 19:30** 10만원 · 7만원 · 5만원
(주)KNN(850-9344)

제36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19:30
초대/고신대학교(010-8455-2383)

30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3:00-세계명차강연, 16:00-폐막식**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제1회 동의우리민요연구회 정기공연 17:00
동의우리민요연구회(010-6314-9680)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 하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바랍니다.

● 대극장 ● 중극장 ● 소극장 ● 야외공연장 ● 국제회의장

WED

THU

FRI

SAT

5 ● 테너 오동주의 14th Story Concert '가을 그리고... 그리움' 19:30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

● 남구오륙도여성합창단 2014년 정기 연주회 19:30 초대/부산광역시 남구청 (607-4064)

● 제18회 새물결 춤 작가전 19:30
 균일 1만원/부산무용협회(632-5116)

6 ●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무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 (011-833-0621, 010-2357-0919)

● 송다솔 거문고 독주회 '회상' 19:30
 초대/송다솔(010-4187-7266)

7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월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V '토스카'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한얼정악연구소 제19회 정기공연 '천년의 문화 시조, 어제와 오늘' 19:00
 초대/한얼정악연구소(010-3870-8597)

1 ● 재회 PBC 부산가톨릭방송 가톨릭성가 제 18:00 무료
 부산평화방송(600-8811~3)

● 극단 새벽 창단 30주년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16:00 균일 2만원
 극단 새벽(245-5919)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12 ●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음악이야기 19:30 균일 1만원
 김경미(010-6450-7591)

●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우수상 수상작 '러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프로젝트'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13 ● 장인숙 전통 춤 공연 19:30
 균일 1만원
 장인숙무용단(010-8508-4602)

●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최우수상 수상작 '봄이 오면 산에 들에'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14 ● 뮤지컬 '시카고' 19:3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053-421-1980)

● 2014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19:30 균일 1만원
 꿈꾸는 아이(010-7503-6564)

●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 3 퍼레이드 최우수상 수상작 '봄이 오면 산에 들에' 19:30 균일 1만 5천원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8 ● 2014 이루마 전국투어 콘서트 19:00
 8만8천원 · 7만7천원/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1544-3901)

● 사제 간의 듀오 음악여행 - 선우난영, 김현정 듀오 리사이틀 17:00
 균일 2만원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15 ● 뮤지컬 '시카고' 15:00, 19:30
 12만원 · 10만원 · 8만원 · 6만원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053-421-1980)

● 2014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16:00, 19:30 균일 1만원
 꿈꾸는 아이(010-7503-6564)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합창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19 ● 챔버 앙상블 'Bright Bows' 초청 연주회 19:30 균일 2만원/스페이스움 (557-3369, 010-4945-6470)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니 부모얼굴이 보고싶다'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0 ●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니 부모얼굴이 보고싶다'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1 ●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 제4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19:00
 (사)송인문화재단(623-3331, 010-4183-2293)

●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니 부모얼굴이 보고싶다' 11:00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22 ●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연주회 17:00 무료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010-4259-6541)

● 벨라보체 합창단 창단 연주회 17:00
 초대/벨라보체 합창단(010-2282-0441)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26 ● 2014 '세울림' 문화예술축제 19:30
 무료/한빛예술단(02-989-3148)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11:0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27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창작 합창의 밤-시와 합창의 만남'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 아리(A-ri)앙상블 창단콘서트 '리드믹의 향연' 19:30 균일 1만원
 A-ri(010-6803-3886)

28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 연주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2만원 · 1만5천원 · 1만원 ·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5:00 무료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29 ●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한다의식 11:00, 원행스님강연 14:00
 무료/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15:00 (사)부산차문화진흥원(809-1551)

반갑
습니다



김유섬

토스카로 만나는 보석같은 소프라노

“토스카는 정말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칼라스 음반을 들으며 성악가의 한 사람으로 토스카에 매료되어 내가 분노하고 사랑하며 아파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토스카로는 이번 무대가 세번째이지만 더욱 매력넘치는 토스카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이 낳은 보석 같은 소프라노 김유섬이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오페라 ‘토스카’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의 행복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2009년 리 신차오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오페라 인 콘서트’ 무대에서 ‘토스카’를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 김유섬은 그날의 무대를 기억하는 음악애호가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물하기 위해

매일 땀 흘리고 있다.

“오페라는 시간 예술입니다. 처음 공연한 무대, 두 번째 공연한 무대가 다르듯 그 때 그 때의 감흥이 다릅니다. 세 번째 무대인만큼 연륜이 묻어나는 최고의 토스카, 김유섬만의 토스카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한국의 솔오페라단과 로마오페라극장이 공동 제작한 이번 ‘토스카’는 소프라노 김유섬을 비롯해 부산의 테너 김지호, 바리톤 박대용과 이태리의 성악가들이 함께한다. 김유섬과 함께 호흡을 맞출 스카르피아 역의 파비안은 라스칼라 극장의 메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바쁜 공연활동 외에도 창원대학교 교수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는 김유섬 씨는 부산과 창원을 오가는 바쁜 일정이지만 무대 준비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다. 매년 한편의 오페라에 출연하고자 한 자신과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쉽 없이 달려온 김유섬 씨는 오페라 무대에서 최고의 빛을 발한다.

지난해는 ‘라 트라비아타’와 ‘나부코’, 창작 오페라 ‘해운대’ 세 편의 작품에 출연했고 올해는 ‘해운대’ 앵콜공연과 ‘토스카’로 청중들과 만난다. 오페라 ‘해운대’는 전통 창작오페라에 우리의 태권도와 무용, 탄탄한 대본과 재미있는 연출, 대중을 사로잡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오페라 ‘해운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해 내년에 새롭게 무대에 올릴 계획이라서 특히 내년은 김유섬 씨 자신 작품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내년은 김유섬 씨의 데뷔 3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오페라 무대 외에 성가독창회도 준비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활동력은 ‘대충 대충’, ‘적당히’ 하지 않는 그의 고집과 음악, 무대에 대한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부산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이태리 로시니국립음악원과 오지모 아카데미, 만토바 아카데미에서 실력을 쌓은 김유섬 교수는 동양인 최초로 독일의 본국립오페라단 정식 주역 가수로 활동하며 당시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한국인의 콩쿠르 수상이 드물었던 시절 김유섬은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콩쿠르에서 연속 2회 1등을 차지해 음악계를 놀라게 했고 그 뒤로도 이리스 아다미 꼬라네티 국제콩쿠르에서 1등, 마리아 까넬리아 국제콩쿠르에서 2등, 푸치니 콩쿠르에서 2등을 차지하는 등 국제 콩쿠르에서만 10회 이상 입상하며 그녀를 세계 무대에 알렸다.

1986년 이탈리아 페르니의 베르디극장에서 오페라 ‘라보엠’으로 데뷔한 김유섬 씨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유고슬라비아 등 유럽 각지에서 ‘나비부인’ ‘토스카’ ‘투란도트’ ‘춘희’ ‘리콜레토’ ‘사랑의 묘약’ 현대오페라 ‘HANJU’ ‘춘향전’ ‘고



구려의 불꽃’ 등 작품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음악애호가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의 야외오페라 극장에서 열린 푸치니 오페라 페스티벌의 공식초청작품이었던 오페라 ‘나비부인’의 주역으로 무대에 올라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 외에 오라토리오 메시아, 천지창조, 사도신경, 레퀴엠, 합창 교향곡의 솔리스트로, KBS 열린 음악회, MBC 가곡과 아리아의 밤 등 수십 회의 콘서트에 출연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좋은 목소리로, 무대에 설 수 있는 날까지 즐겁게 노래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청중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부산에 오페라 하우스가 건립되면 그때 개관 기념 공연 무대는 꼭 서야겠죠. 그때까지 더 열심히 노력하고 혼신을 다해 노래하겠습니다.” 부산이 낳은 최고의 소프라노 김유섬. 그의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영혼을 밝히는 마음의 보석을 만나게 된다.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글
하정애
중국 통신원



중국 최대의 연휴, 국경절 8일간의
황금같은 시간을 중국 서북지역으로 택했다.
중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서북대환선이라 불리는 코스다.
베이징에서 1,500Km, 현지에서 3,000Km로 총 6천Km의 여정이다.
크게 실크로드의 한 부분인 감숙성(甘肅省) 지역과
내몽고 서북 꼬트머리에 자리한 어지나(额济纳) 지방으로 나누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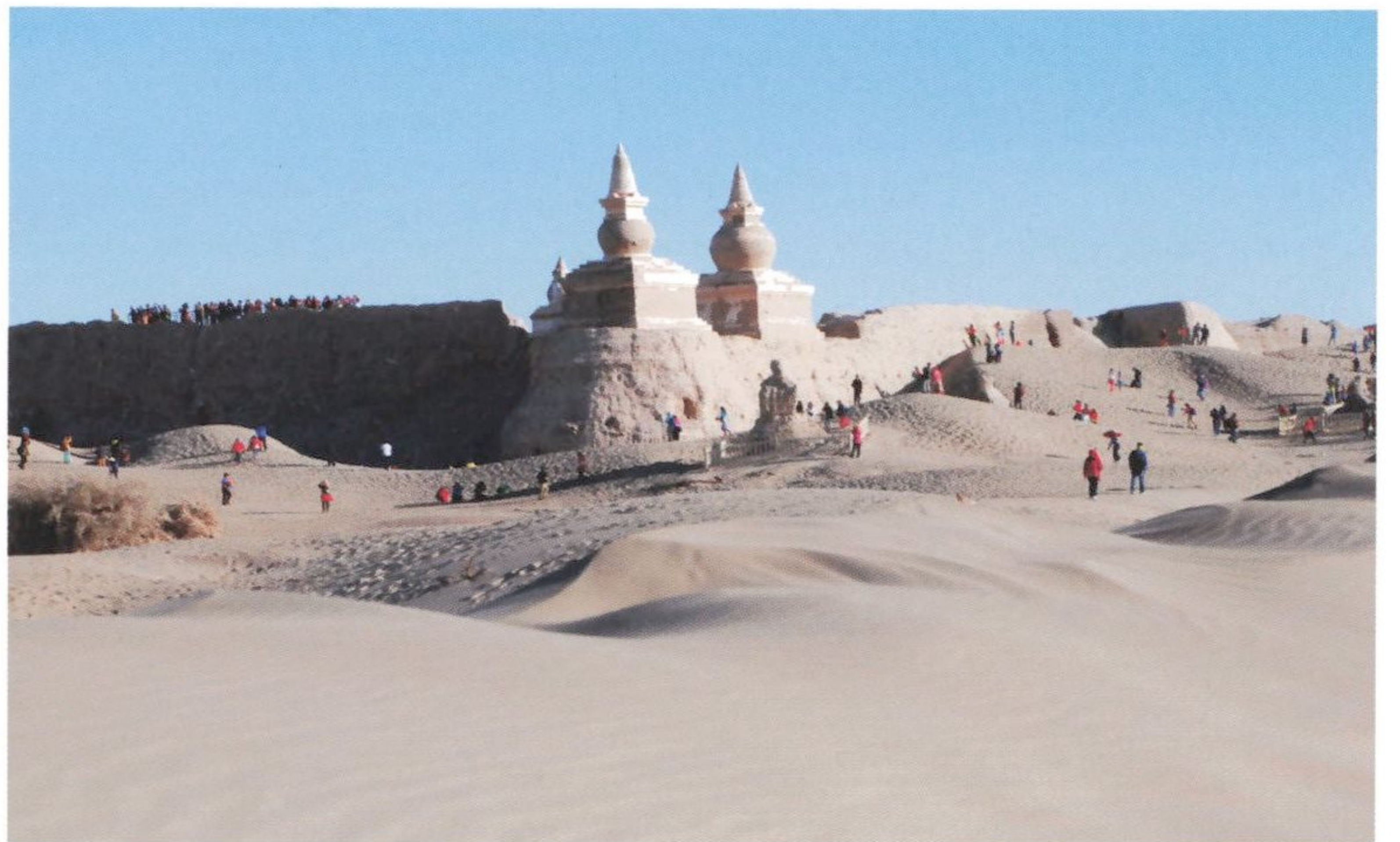
베이징에서 서북으로 떠난 6,000Km 여정



월아천

“

둔황(敦煌) 지역에 들어서니 차를 타고 쪽 뺨은 도로를 몇 시간을 달려도 주변의 풍경은 그저 황무지 같은 곳. 사막, 낙타, 오아시스... 가장 실크로드 같은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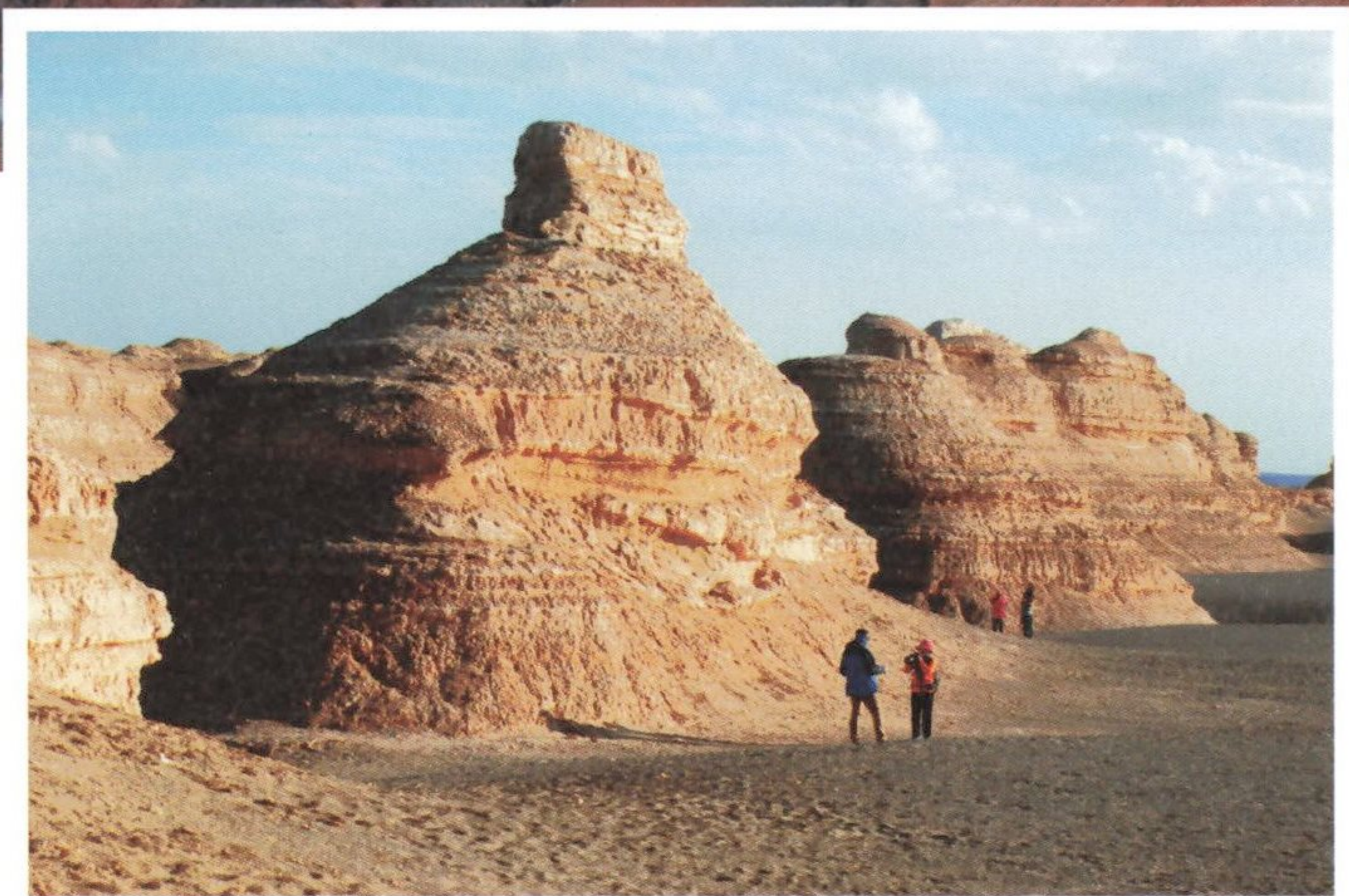
어지나 헤이수이청(黑水城)

둔황(敦煌) 지역에 들어서니 차를 타고 쪽 뺨은 도로를 몇 시간을 달려도 주변의 풍경은 그저 황무지 같은 곳. 바로 중국의 서부. 가끔 저 멀리 설산이 보이기도 하고 목화밭이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평선이다. 그 속에서 만난 신기하고 독특한 지형들은 영화속에서나 보던 땅덩어리, 이국적이다 못해 마치 지구가 아닌 외계 행성의 땅을 보는 듯 했다. 둔황 명사산 월아천(月牙泉)에 도착하니 사막, 낙타, 오아시스... 가장 실크로드 같은 그림이다.

월아천은 상상했던 것 만큼 예뻐다. 마치 현 시대에 만든 아름다운 건축작품이라해도 손색이 없을 듯 한데 이미 한나라 시절의 둔황 8경 중 하나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코스는 새벽 낙타를 타고 명사산에 올라 일출을 보고 내려와 월아천을 보는 것이다.



장예 단사 지형



둔황 야단지형

간쑤성 장예시에 위치한 단사 지형. 단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붉은 노을을 뜻한다. 붉은 사력암이 오랜기간 풍화와 침식을 거쳐 형성된 지형이다. 장예 단사 지형은 약 2백만년 전 쥐라기에서 제3기 시대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아침에 황하석림 관광지를 갔다가 너무 많은 인파와 변경된 관광시스템으로 소요시간이 5~6시간이 걸린다는 말에 입구에서 차를 돌려 장예시로 이동했다. 하지만 거리도 멀고 길도 잘못 들어 저녁 6시가 넘어서 도착했다. 이미 태양은 서쪽 산으로 넘어가 붉은 빛이 이미 색을 잃었다. 아쉽다.

가이드를 맡은 자차오 대장 말에 의하면 2008년에는 마음대

로 이곳 내부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지금은 내부 셔틀과 개방된 4곳의 관람대를 이용해야 한다. 그마저도 시간이 없어 단 한 곳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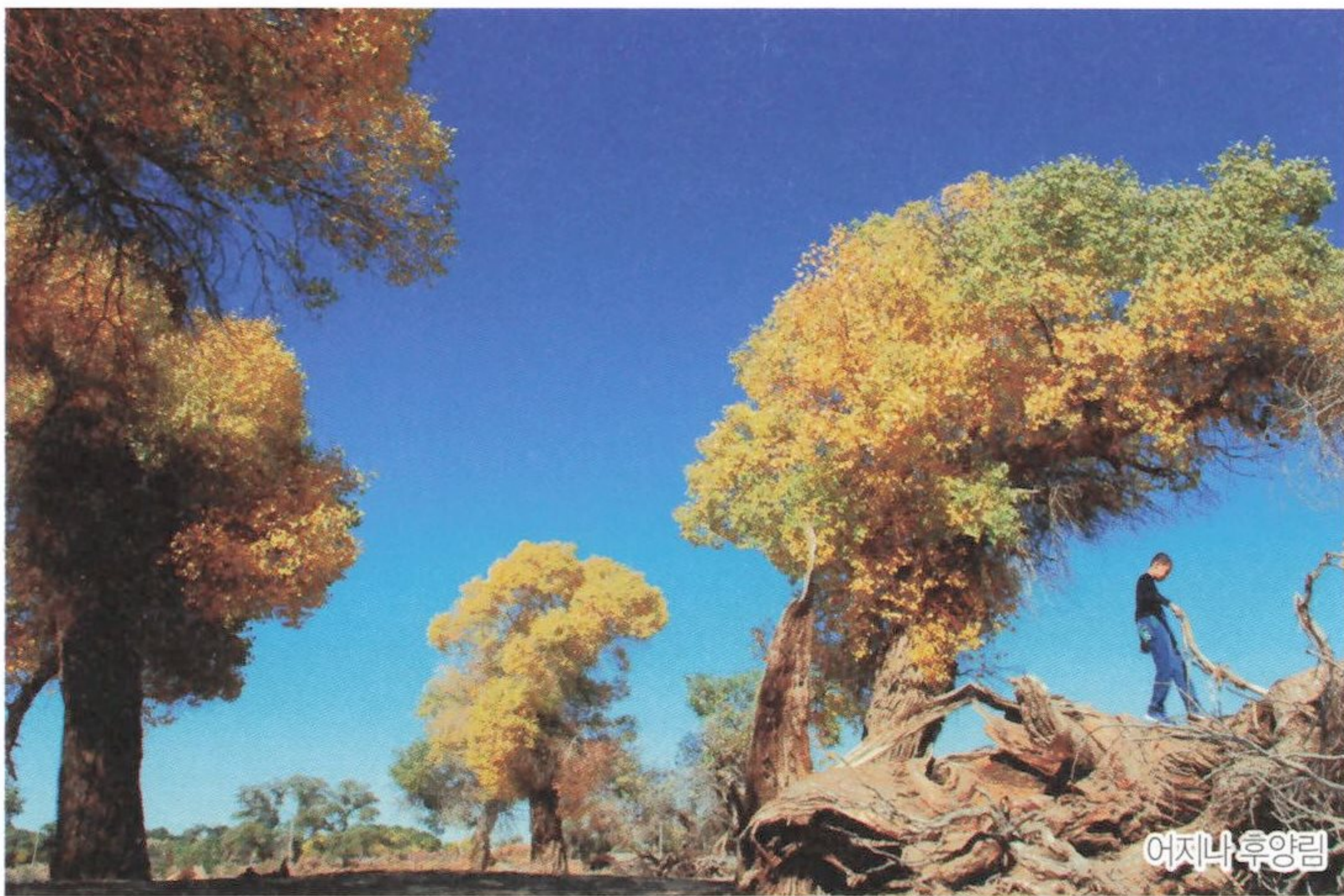
둔황 야단 지형의 야단은 위구르어로 Yardangs, 벼랑이 있는 작은 산, 험준한 작은 토산을 의미한다. 작은 토산들은 풍화와 침식에 의해 깎이고 무너지면서 절벽과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 냈다. 그중 어떤 것들은 마치 오래되고 무너진 성벽과 흡사하다 하여 이곳은 마귀성(魔鬼城)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 역시 입구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잠깐씩 두번을 정차하고 세번째 비교적 규모가 큰 곳에 도착한다. 앞에 두 곳은 그저 맛보기다. 세번째 지역에서 유료 지프차를 타고 내부를 구경할 수 있다. 또는 이곳에서 다시 셔틀을 타고 일몰 포인트로 이동할 수 있다.

어지나 지역은 내몽고의 가장 서쪽 끝자락으로 북쪽으로는 몽골과 접하고 있다. 어지나는 중국인들에게 두가지로 유명한데, 하나는 위성발사센터이고 또 하나는 바로 후양림이란 숲이다. 한국에서 태백산 주목 나무 등을 소개할 때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이란 표현을 쓴다. 이곳 후양 나무를 소개할 때도



어지나 거연해



어지나 후양림



그와 비슷하다. 살아서 천년간 성장하고, 죽어서 천년간 서 있으며, 쓰러져도 천년간 버틴다.(活着—千年不死,死后—千年不倒,倒后—千年不朽)

초록잎은 가을에는 노란색으로 그 후에는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1도교에서 4도교까지 숲이 이어진다. 걸어가면 약 두시간 정도 거리. 그리고 그곳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7도교와 8도교가 있다. 8도교는 물과 사막이 함께 어우러진 경치다. 일출 시간을 놓쳐버린 거연해(居延海) 호수 공원에 들어갈까 말까 잠시 망설였지만 기대 이상으로 예쁘다.

그 이유는 한쪽편에 빼곡히 자리한 갈대숲과 갈매기들 덕이다. 사실 이곳이 내륙담수호인 만큼 갈매기는 아닐 게다. 근데 내 눈에는 갈매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곳은 텐트를 칠수 있는 곳이다. 텐트를 정리하던 관광객들에게 물어보니 텐트 하나에 60위안이란다. 다음에 또 오게된다면 이 동네 물가도 비싸니 일출 포인트에서 야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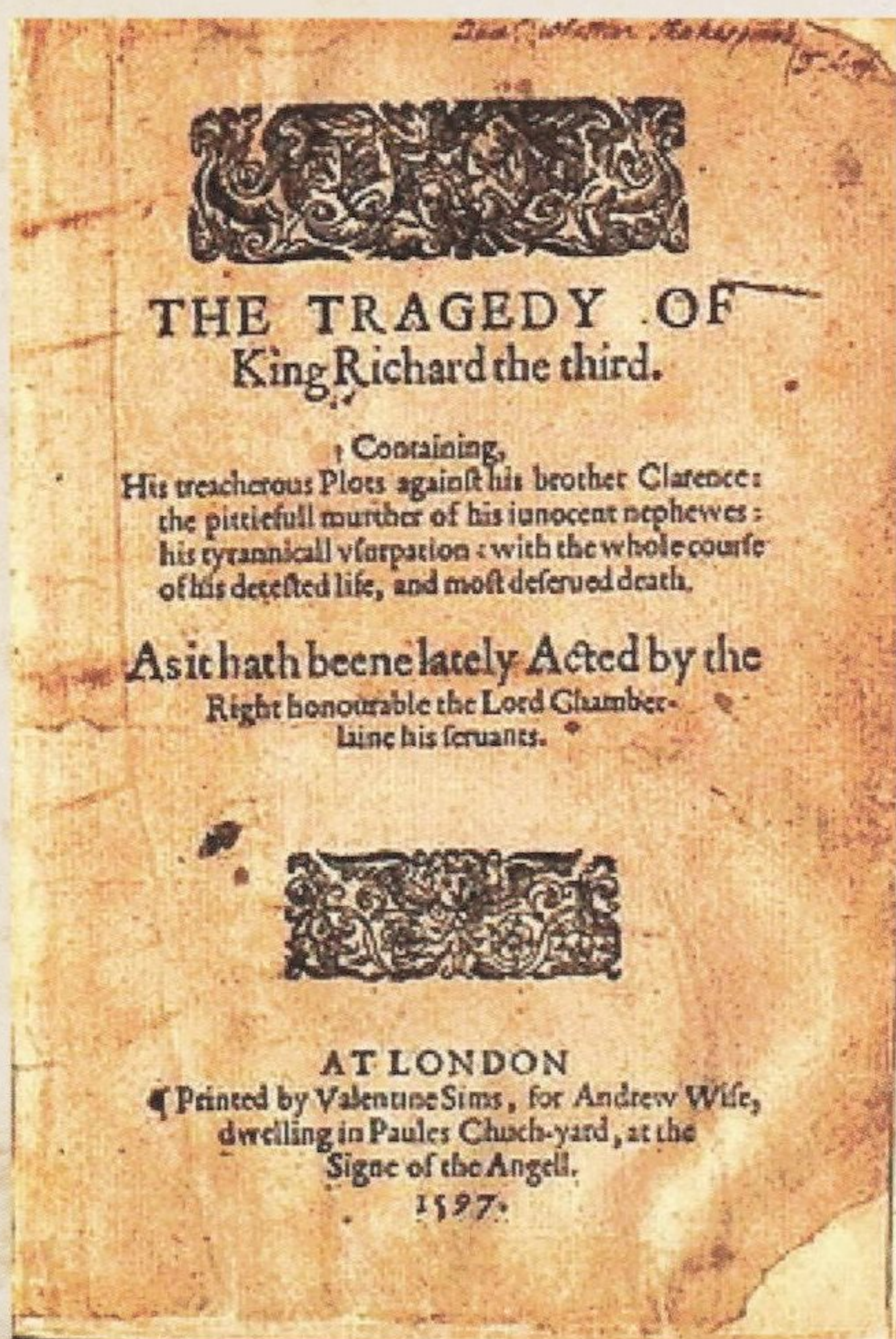
셰익스피어 사극의 세계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을 창작연대 순서에 따라 구분하면, 사극이 가장 먼저 쓰였다. 첫 번째 4부작으로 분류되는 <헨리 6세 1부>(1 Henry VI), <헨리 6세 2부>, <헨리 6세 3부>와 <리처드 3세>(Richard III)가 1592년 가장 먼저 선보였던 것이다. 같은 해에 비극 작품 <타이투스 앤드로니커스>(Titus Andronicus)도 나오긴 했으나, 작품 활동을 시작한 첫 한 해 동안 네 편이나 되는 사극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셰익스피어의 극작품 가운데서 비극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비극이 그가 활동하던 르네상스 시대의 장르 위계상 정상에 자리 잡고 있었고, 오늘날 대중적 인지도에서도 비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극에 앞서 희극을 소개한 것은 희극이 비극과 대조되는 양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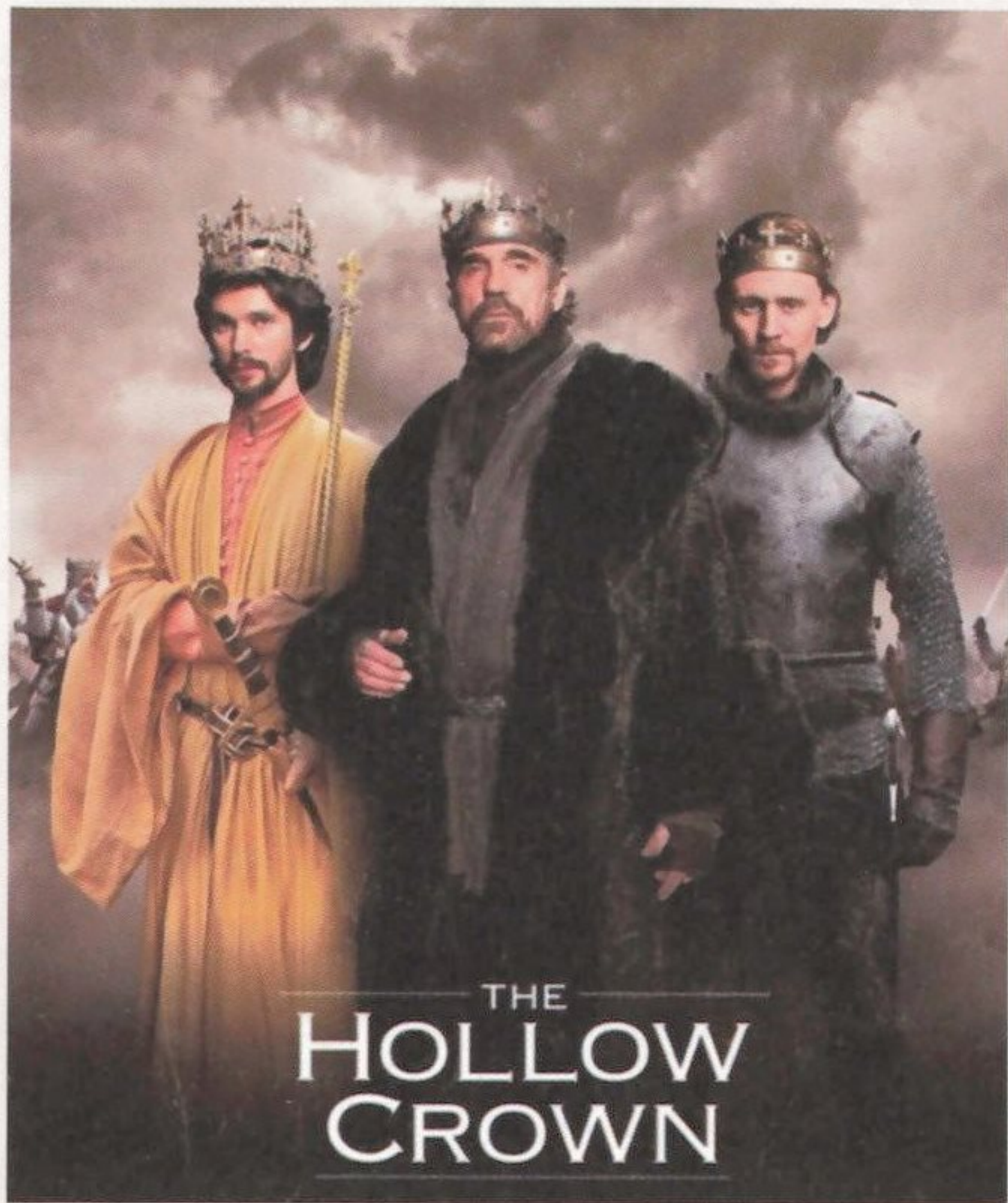
셰익스피어는 첫 번째 사극 4부작을 쓴 바로 다음 해에 <말괄량이 길들이기>(Taming of the Shrew)를 포함한 4편의 희극을 썼고, 그 다음으로 1595년부터 1599년 사이에 “헨리어드”(Henriad) 불리우는 두 번째 4부작, <리처드 2세>(Richard II), <헨리 4세 1부>(1 Henry IV), <헨리 4세 2부>, 그리고 <헨리 5세>(Henry V)를 다른 희극작품들과 병행하여 내놓았다. 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4부작과 더불어 개별적으로 쓴 <존 왕>(King John)과 <헨리 8세>(Henry VIII)를 포함하여 모두 10편의 사극 작품을 썼다. 10편에 이르는 그의 사극은 랑카스터가(the Lancasters)와 요크가(the Yorks) 사이에 왕권을 놓고 벌어진 장미 전쟁(the War of the Roses; 1455-1487)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의 사극은 비극과의 경계를 넘나든다. <리처드 2세>와 <리처드 3세>는 4절판(Quarto)에서 비극으로 분류되었다가 1623년 간행된 첫 번째 2절판(Folio)에서 비소 사극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반면, 1606년에 나온 <리어 왕>(King Lear)은 도리어 처음엔 사극으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비극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앞선 호에서 그의 비극과 희극 세계를 소개하면서 장르의 엄격한 경계를 허무는 그의 독창성을 설명하였거니와, 그의 독창성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장르를 넘나들며 나타나는 셰익스피어의 창의성은 사극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그의 사극이 비극과 희극의 요소를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사실상 그가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극이야말로 당대에 유행하지 않던 극 장르를 그가 개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셰익스피어 이전에 사극은 유행한 적도 없거니와 아직 하나의 극 장르로서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는 이전의 사극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중세의 도덕극을 참조했을 것이다. <리처드 3세>에서 시종일관 악한으로 등장하는 리처드가 중세 말기의 도덕극에 등장하는 악역 광대(the Vice)를 상기시켜주는 정도이다.

<리처드 2세>나 <리처드 3세>가 처음에 비극으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사극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비극과 혼동될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장르 넘나들기를 자유롭게 하는 그에게 사극과 비극은 중첩되는 영역일 수밖에 없다. 사극의 비극성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또 다른 두드러진 공통점은, <오셀로>(Othello)를 제외하면, 사극과 비극이 둘 다 왕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왕권을 탐하는 자들이 권력을 위해 피비린내 나는 권력쟁탈전이나 암투를 벌이는 과정이 사극의 내용이자 비극의 내



첫 번째 4절판에서 비극으로 분류된 사극 <리처드 3세>의 표지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념하여 BBC가 첫 번째 4부작을 영화화한 TV영화 <탕빈 왕관>(The Hollow Crown)



'장미전쟁'에 앞서 양가가 장미를 뽑아 편을 가르는 장면(헨리 페인의 1908년 그림)

용이다. 오늘날 극장이나 안방극장에서 다루는 사극은 지난 여름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명량>의 경우처럼 영웅적인 평민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모두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더구나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왕의 평화스런 통치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권을 향한 권력투쟁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비극과 유사하다. 물론 <헨리 5세>의 경우처럼 왕의 영웅적인 리더십이 승전을 이끌어내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헨리 5세도 평화스런 통치를 하여 태평성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한 전쟁을 감행한다. 대부분의 사극 작품들은 비극 작품처럼 처참한 권력투쟁을 다루기 때문에 비극과 사극의 장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처드 3세>와 <맥베스>를 비교해 보면, 각각의 주인공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리처드 3세>가 비극으로 분류되었다가 4절판에서 사극으로 분류된 것도 그 이유이다.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비극과 공통점만

지니고 있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사극의 주인공이 영국왕이라는 사실이다. 그의 모든 사극 작품은 왕의 칭호를 작품 제목으로 사용하며, 등장인물인 영국왕의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다. 로마 사극(Roman histories)으로 불리기도 하는 몇몇 작품도 있지만, 보통 사극으로 분류하지 않고 비극에 포함시킨다. 엄격하게 따지면, 셰익스피어 사극은 영국 사극(English history plays)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보통 그냥 사극이라고 부른다. 그의 사극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사극의 주인공은 영국의 왕이 될 수밖에 없다. 군주국에서 왕은 정치권력과 역사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사극은 곧 왕의 이야기가 되며, 역사 중에서도 영국 역사를 다루므로 주인공은 영국 왕이 되는 것이다.

사극의 주인공이 영국의 왕이라는 사실은 단순히 국적의 문제를 넘어서 주제적 측면에서 사극과 비극의 차이점으로 이어진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모든 주인공은 영국 역사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의 인물이다. 비극에서 영국인 주인공을 배제한 것은 그 주인공의 비극적 행위가 역사적인 행위가 아닌 개인적인 행위로 평가받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비극의 주인공은 왕이나 권력자이긴 하지만 영국의 역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의 행위나 과오는 역사적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응징된다. 반면, 사극의 경우엔, 주인공이 영국 역사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왕위찬탈이나 악행은 한 개인의 도덕적인 과오를 넘어서 영국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행위로 판단되고 응징된다. 따라서, 비극은 개인의 죄악을 응징하는 윤리세계를 다루고, 사극은 왕과 신하의 공적인 죄악을 응징하는 정치세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의 사극은 영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정치적 교훈과 역사적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비평사를 보더라도, 1,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그의 사극은 애국심 고취나 당대의 정치적인 질서를 대변하는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그 후에는 튜더(Tudor) 왕조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정치문제로 평가되어 왔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의 역사를 극화함에 있어서 단순히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역사적인 사건에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시대를 초월한 역사적인 안목을 제공한 것이다. 토머스 카알라일(Thomas Carlyle)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 것은 셰익스피어가 영국의 왕권이나 제국주의를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식민지 인도의 경제적인 가치보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그의 정신세계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이체 ANP 대표
동명대학교
인제 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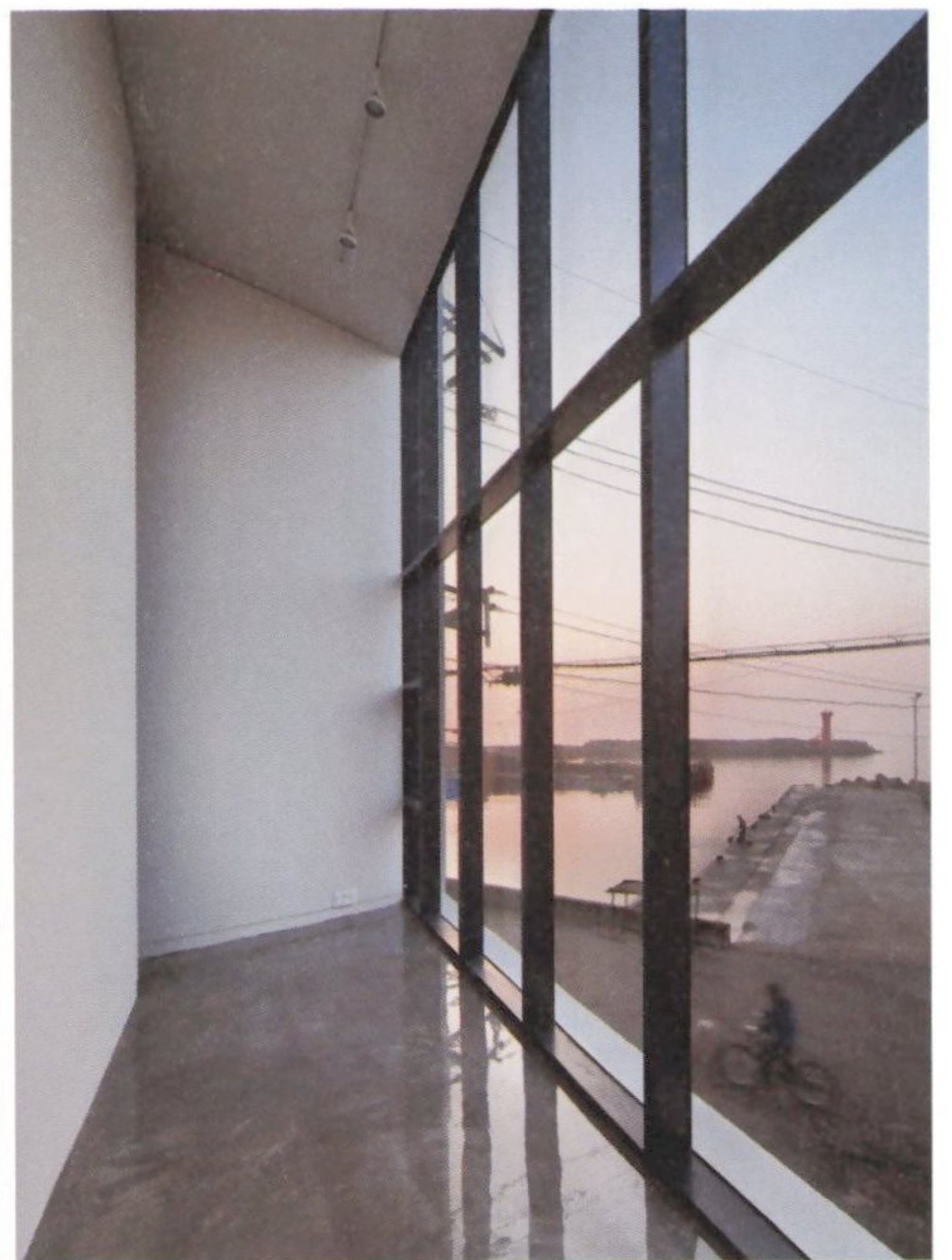
바다를 담은 캔버스 - 시랑리 작업실

아침 일찍 찾았다. 향긋한 바다내음, 풍요로운 바다의 잔물결, 따뜻한 아침햇살이 오감을 자극하는 한적한 어촌이다. 멀리 빨간 등대를 품은 방파제와 조그마한 내항의 고깃배들이 평화로이 떠 있다. 천식에 해무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랑리를 택한, 미술대학교 수에서 은퇴한 미술가(김정명¹) 명예교수의 작업실과 갤러리를 염두에 두고 지어진 시랑리 작업실은 한적한 어촌 마을에 뽐내지 않는 모습으로 조용히 자리하고 있다. 시랑리 작업실이 자리한 곳은 기장군 시랑리의 동암마을이다. 시랑리는 동해를 끼고 있는 해안 마을이다. 시랑리는 시랑대에서 유래한 마을이름이라고 한다. 시랑대는 본래는 원앙대(鴛鴦臺)라고 불렀다. 시랑대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1733년(영조 9) 기장현감 권적(權臧)이 이곳에 와서 자기의 벼슬을 시랑(侍郎)이라고 하여 시를 짓고 '시랑대(侍郎臺)'라는 글자를 바위에 새긴 후에 시랑대로 불렀다고 한다. 이후 여러 문객들이 와서 시를 읊고 글씨를 새겼다. 자연마을로는 공수마을과 동암마을이 있다. 공수마을은 과거 이 마을에 관가의 영선비, 관사의 숙박이나 접대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공전인 '공수전'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 한다. 또 동암마을은 연화봉이 동서로 지맥을 뻗어 내렸는데 동쪽 지맥 끝에 자리 잡은 마을이라 붙은 이름이다. 공수마을과 동암마을 사이에는

시랑산이 있고 국립수산물과학원과 해동용궁사가 있다. 시랑리를 에워싸고 개발 중인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의 중장비 소리는 요란하다.

창, 사계절을 담은 캔버스

1층은 커피숍 등으로 전환이 가능한 공간으로 안용대² 건축가는 설계하였고, 현재는 갤러리를 찾는 손님과 지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박한 테이블과 소파와 책장, 수천 장의 LP판과 턴테이블, 오래된 스피커가 노 화가의 삶을 보여주듯 함께 하고 있다. 회랑과 같은 직선 계단을 오르면 2층의 전시공간인 '김스아트필드 제2전시관'이 바다를 향해 펼쳐진다. 전시를 위한 공간으로 5M의 층고는 대형작품의 전시가 가능하고 전시공간의 특징으로 인한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기형적 대지의 형상에 순응한 배치로 인해 중앙부가 꺾인 평면은 자연스럽게 두 개의 전시공간을 만들고 있다. 바다를 향한 창은 내부에 벽을 살짝 뚫으로써 전시공간으로서의 채광 문제를 해결하고 전시 벽면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살짝 가려진 바다풍경은 화가의 캔버스같이 사계절의 바다와 어촌 풍경을 담을 것 같다. 3층으로 오르면 화가의 작업공간은 바다를 받아들이는 캔버스와 같은 창과 함께 소담히 자리하고 있고, 후면에는 작업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을을 내려다보는 베란다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건축에서의 창은 채광과 환기를 위한 기능적 목적을 갖지만 사계절 자연의 변화를 담은 액자로서의 역할 또한 매우 크다. 작업실 앞에 펼쳐진 창은 사계절의 바다 풍경과 어촌의 삶을 담아 변화하는 그림을 제공할 것이다.



① 방파제에서 바라본 시랑리 동암마을 전경 _©강기표
 ② 시랑리 작업실 전경 _©윤준환
 ③ 옥상으로 향하는 창 _©윤준환
 ④ 자연의 캔버스 _©윤준환

옥상, 또 하나의 대지

하늘과 바다를 담고 있는 옥상... 3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 세로긴 창을 만나게 된다. 대개의 경우 동선의 편의성으로 계단의 방향과 함께하며 옥상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내지만, 건축가는 출입문의 위치에 창을 넣으로 또 하나의 캔버스로 바다와 옥상을 살짝 보여줌으로써 바다로 향하는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약간 비껴난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동암마을 앞 바다의 전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밤하늘의 별빛이 쏟아 질 것 같은 옥상은 시랑리 작업실의 새로운 마당이자 대지의 비정형성을 은유하고 있다. 대지는 오랜 마을의 흔적을 내포하듯 비정형적이다. 마을에 꽃혀있는 듯한 대지는 바다로 향해 펼쳐 있고 앞의 방파제의 축과 엇비슷하게 맞아 있다. 갈매기 모양의 대지는 배치에도 영향을 미쳐 마치 카메라의 렌즈 같이 앞으로 떨어져 있다. 카메라의 렌즈를 통하여 바다의 전경을 찍을 듯이... 작업실 앞으로 펼쳐진 방파제는 전시실의 공간을 확장하고 또 다른 외부 전시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시간으로 성장해 가는 건축

건축의 시작은 건축주에게서 시작한다. 건축주의 삶을 담고 활동을 예측하며 건축가는 건축을 구체화시킨다. 그리고 완공되고 나면 건축주는 또 다른 건축을 만들어간다. 캔버스와 같은 바다로 향한 창에 그려지는 자연의 풍경은 자연의 붓놀림이고, 건축을 캔버스 삼아 또 다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건 건축주의 몫이다. 3층의 휴식공간 앞 베란다의 프레임에 설치된 건축주의 작품 '말풍선 시리즈' 중 한 점은 건축이 또 다른 캔버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건축가는 화장하지 않은 민얼굴 같은 백색의 외관을 화가에게 새로운 캔버스로 선물하였고, 건축주인 김정명 교수는 외부 벽면에 설치할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건축은 공간으로 태어나지만 시간이라는 생명으로 성장해 간다.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지난 7월에 소개한 '키스와이어 센터'가 2014년 부산다운 건축상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수국마을'(5월호)이 금상에, '레지던스 엘가'(6월호)가 동상을 수상하였다. 다시 한번 챙겨보시길...

1) 김정명

홍익대학교 조각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1977년 원화랑의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2년 갤러리 이듬 초대 <환골탈태> 등 십여 회의 개인전과 2012년 <두레리움 스프링-춘몽> 등의 그룹전을 가졌다. 저서로는 <환골탈태> 등이 있다.

2) 안용대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도시공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있다. 공간 건축, 이로재 건축에서 실무를 하였으며, (주)가가 건축사 사무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미술전시 참여경력이 있으며, 주요작품으로는 요산문화관, 미래로여성병원, 부산대학교 제2예술관, 디오센터사옥, 새항운병원 등이 있다.

수준높은
수준높은

살롱문화를 꿈꾼다

소민아트센터

“

부산의 중심 서면 한복판에 새로운 문화 명소가 들어섰다. 수준높은 살롱문화를 꿈꾸는 '소민아트센터'가 바로 그 주인공. 영광도서 옆,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는 이 곳은 멋과 맛, 심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특히 소민아트센터가 자리한 곳은 부산진구가 지난해 '문화로'로 명명한 거리의 중심. 명칭은 문화로였지만 인근 영광도서 말고는 내세울 만한 문화공간이 없었던 이곳에 지난 5월 25일 소민아트센터가 개관하면서 '문화로'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기도 했다.





개관한지 이제 5개월 남짓 됐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소민아트센터는 서면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소민아트센터는 인근에서 30년 넘게 목원치과를 운영해온 이 명호, 임희숙 원장 부부의 예술사랑이 담겨진 의미있는 공간이다. 4층 건물로, 층별로 다양한 문화공간이 들어서 있다. 1층은 매일 구워나오는 전문 파티쉐의 신선한 빵을 맛볼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가, 2층은 200평 규모의 넓은 실내가 인상적인 카페 '클레어'와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다. 3층에는 연주회에서부터 연극, 전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아트홀과 갤러리, 4층에는 60평 규모의 휴식공간 하늘정원이 들어서 있다. 개관한지 이제 5개월 남짓 됐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소민아트센터는 서면의 새로운 문화명소로 벌써부터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소민아트센터가 자리한 이 곳이 예전에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벼에서 이삭을 떨어내는, 사람들끼리 모여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이었죠. 문화공간 역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창조의 환희를 공유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민아트센터는 얼마 전까지 동구청장을 지냈던 정영석 씨가 관장으로 있다. 청장시절에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쳤던 정영석 관장은 소민아트센터를 통해 내놓은 사인 화려한 서면에 제대로 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살롱문화를 정착시켜 서면의 품격을 높이고 싶다.

격조높은 살롱음악회를 표방한 만큼 소민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소규모 무대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연주자들이 소민아트센터를 찾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개관 기념공연 무대를 빛내준 베이스 바리톤 마르셀 정을 시작으로 '폭풍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박중화, 41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황성훈, 2005년 서울대학교 음대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어 화제를

모았던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차례로 소민아트센터에서 공연을 가지면서 음악애호가들의 환호를 받았다.

소민아트센터는 상설 프로그램도 수시로 열리면서 열린 도심 문화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음악회으로는 매주 화요일 '클래식음악과 함께하는 티타임'을 비롯해 매월 첫째주 목요일 '브런치 콘서트', 매월 셋째주 목요일 '해설이 있는 오페라 감상'이 열리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를 위한 음악 감상'과 한권의 책을 읽으며 클래식음악을 감상하는 '청소년을 위한 북 & 뮤직'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층별로 자리한 갤러리에서는 지금도 다양한 전시가 펼쳐지고 있다. 부산작가 25명을 초청한 개관전 '오늘 그리고 내일의 확산전'을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김현숙 교수의 유리공예전이 열렸고, 11월에는 신재욱 미디어아트전, 유승희 개인전이 열릴 예정이다.

“좋은 실력을 갖춰도 무대에 설 수 없는 신인 예술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젊은 예술인들에게 그들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도 소민아트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턱 없는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정영석 관장. 앞으로 소민아트센터를 주춧돌 삼아 부산국립국악원이 있는 시민대공원까지, 그야말로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문화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_소민아트센터 991-2200, sominartcenter.com
blog.naver.com/sominart2014

노래하는 부산의 엘 시스템아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지난 11월 17일 오후 5시 어둠이 찾아오는

수정동 부산종합사회복지관 5층 강당.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의 밝은 노래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날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운영하는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연습이 있는 날.

합창단을 이끄는 김대성 지휘자와 김기연 보컬트레이너,

강현아 반주자와 32명의 합창단 아이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앙상블이 넓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11년 9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동구 내 산복도로 아이들로 구성된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은 노래하는 부산의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꿈꾸고 있다. 폭력과 마약에 노출돼 있던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든 베네수엘라의 엘 시스테마처럼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워준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이 첫 발을 내딛은 지도 이제 만 3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사랑 속에서 합창단 아이들의 꿈도 커가고 있습니다.”

처음 오디션을 볼 때 설렘과 불안으로 떨렸던 어린 눈동자들이 어느새 희망가득한 눈망울로 즐겁게 노래하고 있어 보람이 크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신경근 관장.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합창단이 아니라 아이들이 합창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오디션에서는 실력보다는 합창단 활동을 하고싶다는 의지, 열정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준다. 초창기 8명으로 시작한 합창단은 3년이 지나면서 현재 32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두차례 연습을 갖는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은 세월이 흐르고 실력이 쌓이면서 무대공연을 갖기도 했다. 창단 이듬해인 2012년 어린이재단 부산후원회 및 대만후원회 협약식 초청공연을 시작으로 어린이재단 나눔음악회, 우정청합창단, 어린이재단 합동공연, 글로리콰이어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그 실력을 뽐내왔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이야말로 진정한 소외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천사의 소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인성개발을 위해 빵보다는 음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갑니다. 스스로 혼자서는 법을 가르치는 곳, 바로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입니다.”

어린이재단 부산후원회 회장으로 있는 경성산업 신윤은 대표. 합창단 활동에는 신윤은 회장의 도움이 무엇보다 컸다. 신윤은 회장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재단을 통해 약 4억 원의 후원금을 출연했으며, 이 후원금은 합창단의 제주도 나눔공연과 캠프비, 신학기 교복지원에 쓰였다. 이렇듯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초록우산 드림합창단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을 터. 합창단에서는 보다 많은 이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혜선이는 한번 들은 음정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서 연습할 때 옆에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되요.”

“처음 무대에 설 때는 실수할까봐 엄청 무서웠는데, 이제는 무대에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2012년부터 사이좋게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재경이와 혜선이. 재경이는 수성초등학교 6학년, 혜선은 동일중앙초등학교 5학년으로 한 살 터울이지만 한동네 사는 친한 언니동생 사이이다. 둘 다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 시작했지만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늘면서 합창단 활동이 즐겁다.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은 단순히 실력있는 합창단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연습하며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11월 1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열릴 세 번째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연습에 박차를 가하는 김대성 지휘자. 2014년 한해 동안 함께해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지역주민들과 하는 이번 연주회에서 김대성 지휘자는 그동안 갈고 닦은 하모니를 유감없이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_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
(465-0990, www.childfund-busan.or.kr)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학습장

진해만 생태숲 힐링 투어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한로(寒露)가 지난 지난 10월 10일, 깊어가는 가을을 좇아 103번째 테마 여행이 펼쳐졌다. 이번 테마여행 역시 지난 8월, 테마여행 100회를 맞아 시작된 부산녹색환경 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환경과 문화가 함께하는 '에코투어'로,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유명한 진해만 생태숲이 자리한 창원시 진해구로 여행을 떠났다.



년 문을 연 창원해양공원은 연간 3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전국적 명소로, 창원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해양솔라파크를 비롯해 해전사체험관, 군함전시관, 해양생물테마파크 등 다양한 전시관과 휴식공간이 들어서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장한 해양솔라파크는 단일 건물로는 국내 최대 규모(600KW), 최대 높이(136m)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건물로, 2,000여개의 태양광 모듈이 부착되어 있어 해양공원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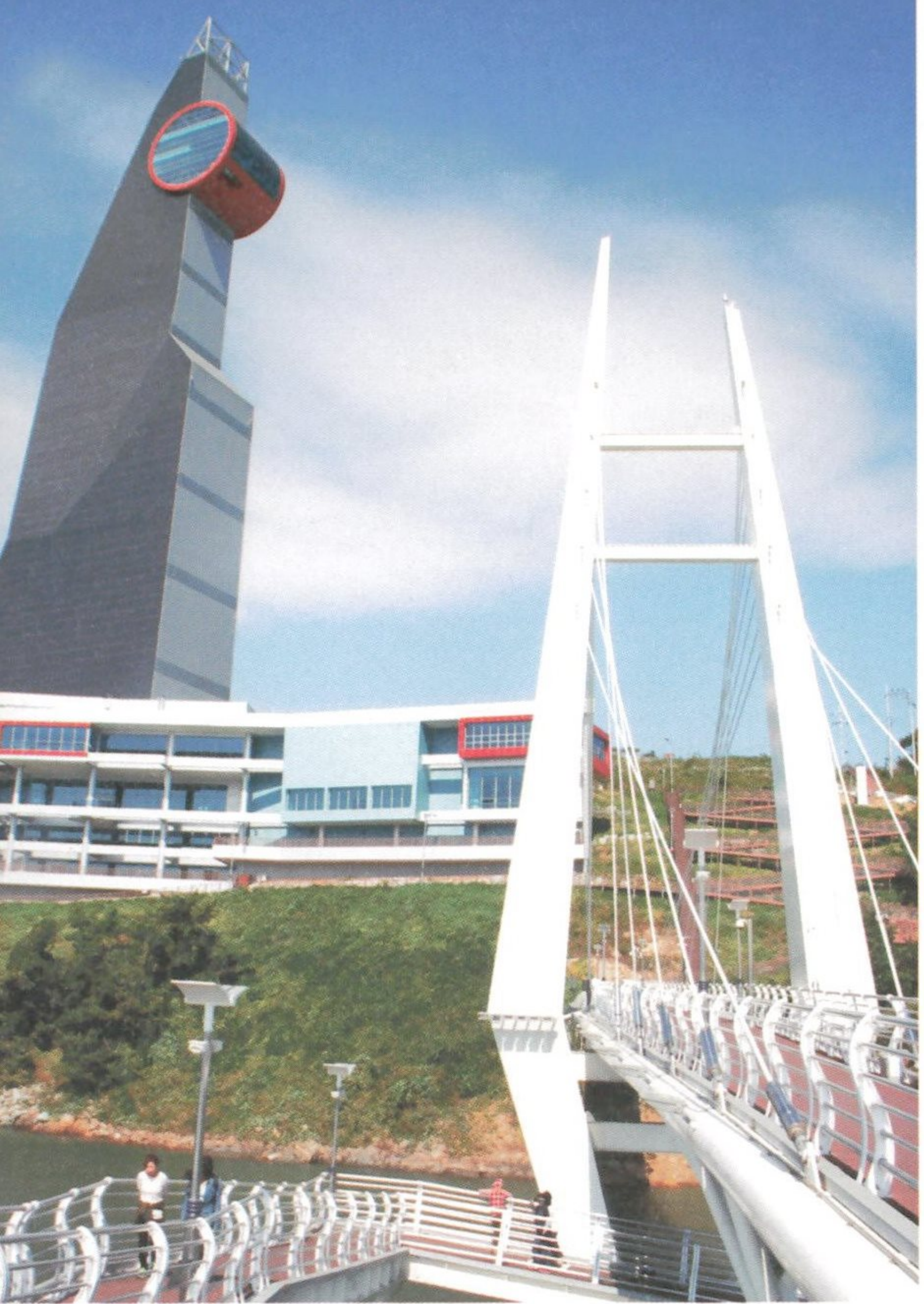
전국적인 명소답게 창원해양공원은 이른 아침부터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해양생물의 탄생과 진화과정, 바닷속 생태계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를 둘러본 회원들은 아름다운 전망으로 유명한 해양솔라파크 내 솔라타워로 자리를 옮겼다. 돛을 형상화한 솔라타워는 지상 120m에 태양을 상징하는 원형 전망대(70명 동시 수용)가 있어 부산 신항과 거가대교를 포함한 남해안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저 멀리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 풍경에 막혀있던 회원들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다.

오후 일정에 앞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손두부집에서 담백한 두부전골로 맛있는 점심식을 마친 회원가족들은 두 번째 방문지인 진해우체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사적 제291호로 지정된 진해우체국은 1912년 준공된 1층 목조건물로 우편환저금, 전기통신 업무를 취급하던 우편청사였다. 러시아풍의 건물 양식은 이 지역에 일찍이 러시아 공사관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면 현관에는 배흘림 기둥의 투스칸 오더(Tuscan order)의 원기둥을 세웠으며, 내부는 사무를 보는 영업장과 객장 사이에 높은 카운터를 두었다. 지난 2000년까지는 우편업무를 보았으나 지금은 바로 옆 신축건물에 우체국이 들어서면서 사적지로서 지나간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 우체국을 떠나기 전,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엽서쓰기에 도전한 회원가족들은 오랜만에 써보는 손글씨 엽서에 다들 학창시절로 되돌아간 듯 아련한 추억에 잠겼다.

10월 테마여행의 마지막 장소는 숲과 바다, 낭만이 어우러진 진해만 생태숲. 진해만 생태숲이 자리한 진해드림파크는 195ha에 달하는 진해만 생태숲 외에도 목재문화체험장, 광석골쉼터, 청소년수련원이 들어선 대표적인 자연생태학습장이자 대규모 산림휴양시설이다. 특히 진해만 생태숲은 약 126ha의 대규모 난대림생태지역으로, 아름다운 숲과 진해만의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비자나무숲을 비롯해 굴거리나무숲과 팔손이숲, 동백나무숲, 후박나무숲, 붉가시나무숲, 해송숲, 구실잣밤나무숲, 가시나무숲, 종가시나무숲, 녹나무숲 등 11개의 생태숲이 생태탐방로(6,383m²)를 따라 조성되어 총 145종 약 7만종의 난대림 식물을 볼 수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식물 약 90종을 관찰할 수 있는 식물관과 작은 수목원, 난대수종시험림, 상징숲, 약용원, 철쭉원, 생태습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950여m² 연구관리 및 전시관과 300여m²의 온실이 자리하고 있다.

부산에서 가깝지만 테마여행을 시작하고는 여행지로서는 처음 찾는 진해라 정기회원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컸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수경, 김성, 박동호가 동행해 회원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오전 8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한 버스는 1시간 30분여를 달려 첫 방문지인 창원해양공원에 도착했다. 지난 2005



11월 합천여행 당첨자

기존 회원

- 김순덕(기장군 차성로)
- 김종출(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김태진(연제구 월드컵대로)
- 남순옥(연제구 법원북로)
- 이근희(해운대구 반여로)
- 이애자(해운대구 대천로)
- 이효숙(수영구 수영로)
- 정기순(수영구 수영로)
- 정필문(해운대구 양운로)
- 홍명희(수영구 광안해변로)

신규 가입

- 김정숙(남구 석포로)
- 박철호(동래구 명장로)
- 손인숙(남구 석포로)
- 송말남(연제구 중앙대로)
- 이경미(해운대구 양운로)
- 이상숙(남구 유엔로)
- 정경진(사상구 장인로)
- 조민주(남구 우암로)
- 최혜숙(수영구 구락로)
- 한미정(부산진구 백양대로)

생태숲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숲 해설사들이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본격적인 숲 탐방에 앞서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수경, 김성, 박동호 씨가 준비한 '숲속 음악회'가 펼쳐졌다. 비목, 동심초, 그리운 금강산 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명가곡들이 적막하던 숲 속에 울려 퍼지자 숨 죽여 듣고 있던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터져 나온다. 따스한 가을햇살과 산들바람이 함께 했던 숲속 음악회가 있어 10월 테마여행은 음악회 앵콜곡이기도 했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회원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짧은 음악회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회원들은 숲 해설사와 함께 숲 체험에 나섰다. 회원들은 형형색색으로 물들어가는 숲길을 따라가며 떨어진 낙엽이랑 길가에 핀 야생꽃을 따다 미니 생태액자 만들기에 도전했다. 작은 종이사각틀에 유리테이프를 붙여 그 위에 각자 채집한 알록달록 꽃과 잎으로 장식한 다양한 생태액자들이 하나 둘 완성되었다. 회원들은 동그랗게 서서 각자가 만든 액자를 서로 바꿔보며 자연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벚꽃 명소로만 알려졌던 진해의 또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10월 테마여행. 모처럼 자연의 품 속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던 진해여행은 선명하게 물들어가는 가을 숲만큼이나 오랫동안 회원들 가슴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후원 :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 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엽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십시오.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 마감일자 | 11월 16일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607-3100)

Culture Life

부산 주요 공연장 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소민아트센터 | 991-1100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 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0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60 새로 나온 음반
- 61 새로 나온 책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V - 토스카



지휘 이동신



연출 유철우



소프라노 구민영



테너 홍지형



바리톤 박대용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4년 웰빙 콘서트 '11시에 만나요'의 오페라 하이라이트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가 11월 7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막이 오른다.

최근 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로 자리를 옮긴 이동신 지휘자의 해설, 오페라 전문 연출가 유철우의 연출, 성악가들의 열연으로 사랑 받아온 웰빙콘서트는 오페라 감상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한낮의 음악선물로 자리매김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오페라 '토스카'는 1900년 1월 14일 로마 콘스탄치 극장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라 보엠' '나비 부인'과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대작이다. 오페라 '토스카'는 베리스모(사실주의)의 영향이 강한 비극이지만 푸치니의 서정적인 선율과 친근하고 감성적인 화성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작품으로 전 세계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다.

토스카의 배경은 1800년 6월 나폴레옹군이 이탈리아 북부에 침입하여 정정(政情)이 불안한 로마. 제1막은 가수 토스카의 연인 화가 카바라도시가 교회 안으로 도망쳐 온 정치범 안젤로티를 숨겨 주고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토스카가 이를 목격한다. 제2막은 궁전 내의 스카르피아의 방. 그는 카바라도시를 고문하고 그 모습을 토스카에게 보여주며 카바라도시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한다. 토스카는 자기의 몸을 바칠 것을 거짓 맹세하고 스카르피아로부터 거짓 사면장을 받아낸 후 그를 찔러 죽인다. 제3막은 감옥의 옥상. 토스카는 감옥 옥상에 끌려나온 카바라도시를 찾아가 사면장을 보이며 총살형은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토스카는 그 사면장이 결국 거짓이었고 카바라도시가 정말 총살된 것을 알고는 너무 상심한 나머지 형장의 높은 벽에서 몸을 던져 죽는다. 이번 무대에서 토스카역에는 Premio Enrico Segattini 국

제콩쿠르 특별상, Musica Sacra 국제종교성악콩쿠르 로마지역청상, Lauri Volpi 국제콩쿠르, Ritorna Vincitore 국제콩쿠르 등에서 다수 입상한 소프라노 구민영, 토스카의 연인인 화가 카바라도시에는 이탈리아 VERDI(Busseto) 국제성악콩쿠르, 이탈리아 FERMO 국제성악콩쿠르 등에서 20여회 입상한 테너 홍지형, 경찰서장인 스카르피아 남작으로는 이탈리아 프란체스코 칠레아 성악콩쿠르 우승, 이탈리아 엔나 국제성악콩쿠르 3위, 이탈리아 콜레페로 국제성악콩쿠르 2위, 이탈리아 프랑코 코렐리 국제성악콩쿠르 뮤제극장상을 수상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바리톤 박대용이 열연한다.

일 시 |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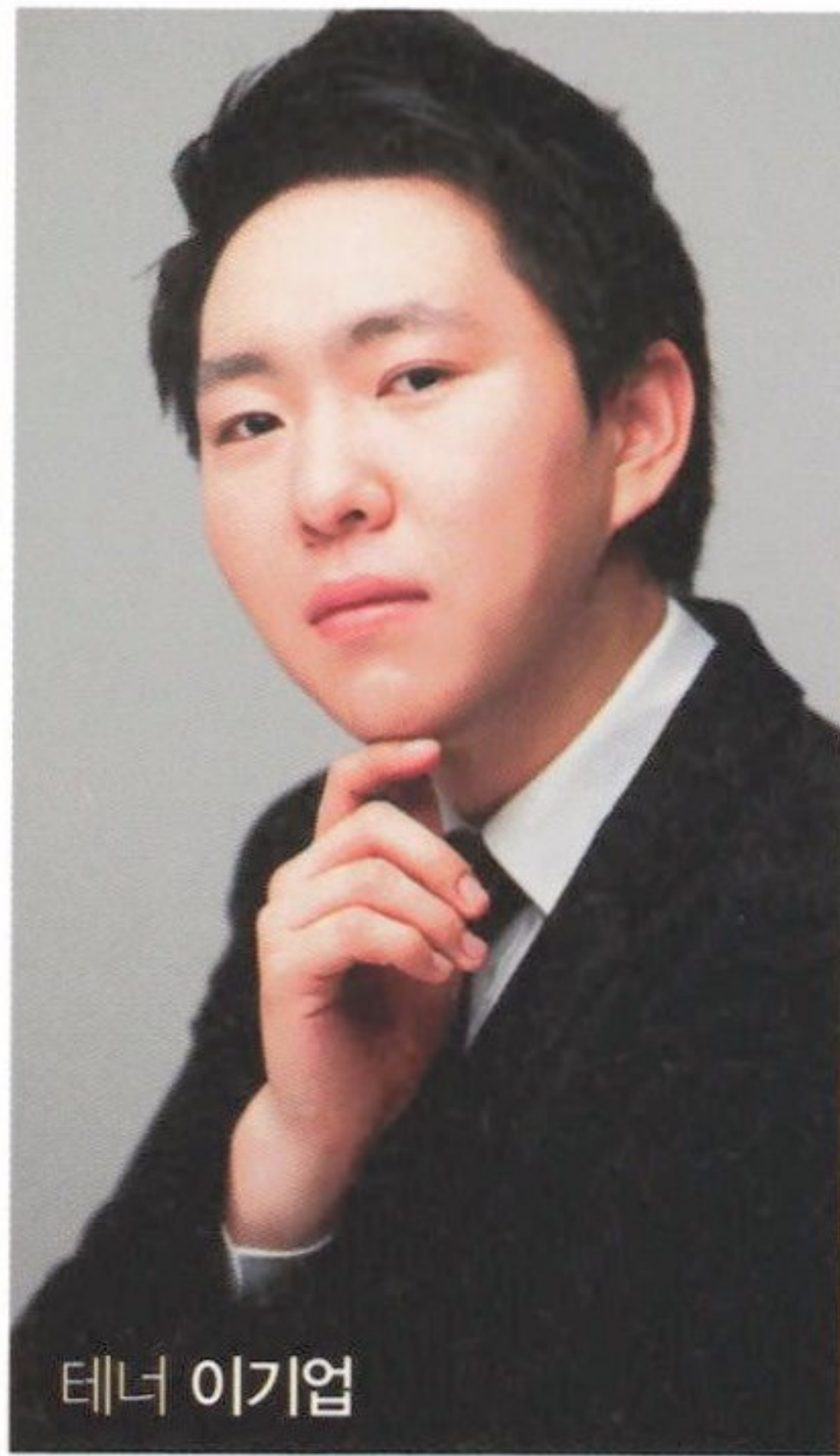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I 라 보엠



지휘·해설 금난새



테너 이기업



소프라노 이예니



바리톤 성승욱



메조 백재은

평소 어렵게 느끼는 오페라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한 오페라 갈라 콘서트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이 11월 부산음악애호가들을 다시 찾아온다.

7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을 금난새의 재미있고 친절한 작품 해설과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날 수 있다.

오페라 '라 보엠'은 프랑스 작가 앙리 무르제의 '보헤미안의 생활정경'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푸치니 자신이 어려웠던 청년시절의 체험을 적절하게 가미해 무대화한 작품이다. 특히 '라 보엠'은 '나비부인' '토스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테너 이기업과 소프라노 이예니, 바리톤 성승욱,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이 출연, '라 보엠'의 1막과 4막, 생상, 모차르트, 구노의 오페라 중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1830년 경의 크리스마스 이브, 파리 라틴구 근처 낡은 다락방을 배경으로 한 1막에는 로돌포, 미미의 이중창 '누구세요?!-잠깐' '좀 나아졌나요?' '내 이름은 미미' '오 사랑스런 아가씨'와 로돌포의 아리아 '그대의 찬 손'이 연주된다.

4막 파리 라틴구 근처 낡은 다락방에서는 '미미가 여기에 왔어요' '모두들 갔나요? 자는 척 했어요' '아무일도 아니예요. 전 괜찮아요'를 금난새의 친절한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이번 무대를 위해 부산을 찾는 테너 이기업은 10회 엄정행 전국성악콩쿠르 금상, 2013년 제19회 전국수리음악콩쿠르 성악부문 대상, 2014년 제33회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 한국 예선 1등을, 소프라노 이예니는 제33회 서울 벨베데레 성악콩쿠르

3위, 제6회 세일한국가곡콩쿠르에서 여자1위를 차지한 유망주들이다. 그 외 바리톤 성승욱은 한국인 최초로 영국 왕립 음악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 수석 졸업으로 엘리자베스 여왕상을 수상하고 영국 및 뉴질랜드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오페라 카르멘 주역으로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 바 있는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뉴욕 메네스 음악대학 석사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재학 중 뉴욕 메트로폴리탄 국제 콩쿠르, 슈리브 포트 '올해의 성악가 상'을 수상, 뉴욕 슈타콰오페라단, 버지니아 오페라단 단원을 역임하는 등 폭 넓은 무대 활동을 펼쳐왔다.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시 |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 A석 1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KBS부산방송총국 개국 79주년 기념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내한 공연



지휘자 배종훈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대표 교향악단인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이 2014년 11월 부산문화회관에서 역사적인 첫 내한공연을 갖는다.

1930년에 설립된 모스크바방송교향악단은 Alexander Orlov가 초대감독으로 지내면서 다양한 레퍼토리개발에 성공한 후 1974년 부터 세계적인 거장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지금까지 40여년간 이끌고 있다.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은 특히 독특한 예술스타일과 개성으로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2014년 부산을 찾는 유일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관심이 높다. 첫 부산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은 105명 대규모 연주단을 구성, 러시아의 진수를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 대표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치의 작품을 연주한다.

지휘는 비엔나 국립음대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오페라, 미국UCLA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귀국, 대한민국 국군교향악단 창단과 함께 초대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로서 3년간 활동하며 교향악단의 지평을 연 부산출신의 지휘자 배종훈이 맡는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심포니와의 러시아 데뷔 무대를 통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연주는 또 하나의 큰 발견이다'라는 찬사를 받은 바 있는 배종훈은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인 홀에서 객원지휘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한국 지휘자 중에 드물게 쇼스타코비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어 그와 러시아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의 만남에 기대가 크다.

이번에 연주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은 쇼스타코비치 15개의 교향곡 중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곡이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드라마적인 교향곡으로 정

평이 나있는 이 곡은 특히 1991년 구소련의 해체과정에서 보수파의 군사쿠테타가 발발하여 전차가 포위한 모스크바 방송국 안에서 이에 굴하지 않고 페도세예프가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을 이끌고 녹음한 일화가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거장 페도세예프가 추천한 러시아의 미래 첼리스트인 Fyodor Zelerub가 협연자로 함께 부산을 찾는다.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를 졸업한 Fyodor Zemlerub는 Russian Competition Young Talents of Russia에서 수상하고 해외 다수의 음악 페스티벌과 마스터클래스에 참가하여 연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일 시 |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00,000원 · S석 150,000원
A석 10,000원 · B석 70,000원 · C석 5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02-3487-0678

Preview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영원한 사랑, 시간을 초월한 사랑(Timeless Love)은 동서양과 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판타지적 욕망을 꿈꾸게 하는 소재이다. 지난해 부산시립무용단이 창단 40주년을 기념해 무대에 올린 생과 사,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로 선보였던 '40-춤추는 영혼'이 한층 업그레이드 무대로 부산시민들을 찾아온다.

고전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지는 '춤추는 영혼'은 조선시대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이생규장전'이 그 바탕이다. 춘향과 이몽룡, 로미오와 줄리엣도 부럽지 않은 사랑이야기로 조선시대 최고의 판타지 로맨스 소설로 꼽히는 '이생규장전'은 김시습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에 수록된 다섯 개의 단편 소설 중 하나로 집안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은 이생과 최랑이 그 주인공이다.

고려 말, 이생과 최랑이 첫눈에 반해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의 결실을 맺지만 최랑의 정혼자였던 박풍은 이를 질투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홍건적을 끌어 들여 혼란을 일으키고 최랑을 얻고자 한다. 결국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생은 양가 부모와 최랑을 잃고 홀로 남게 된다. 홀로 남은 이생은 최랑을 그리워하고 이승에서 못다 이룬 이생과 최랑의 애절한 사랑에 하늘이 감동하여 이들은 다시 연을 맺지만 3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 3년이 지나 또 다시 이별의 시간은 돌아오지만 그들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사랑의 약속을 이루게 된다.

전체 작품은 프롤로그-시간의 강을 시작으로 제1장 운명적 만남, 제2장 무르익는 사랑, 제3장 전쟁과 이별, 제4장 인연의 환(環), 에필로그-인연의 강으로 구성, 현실과 환상적 세계를 넘나드는 아름다운 사랑을 펼친다. 최랑과 이생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제1장 운명적 만남에서는 특히 담장 안 설레임에 가득한 여자의 춤, 담장 밖 호기심 가득한 남자의 춤, 담장 안 꽃들과 나비들의 춤(꽃춤, 바구니춤), 담장

밖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사내들의 춤으로 재미를 선사하고 제2장에는 사랑춤(사랑가를 연상하게 하는 춤), 최랑과 이생의 듀엣 등 다양한 춤사위로 무르익어가는 사랑의 장면을 연출한다. 솔직하고 대담한 주인공들의 적극적인 사랑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이란 인연의 엇갈림과 기쁨과 슬픔의 순환'이라는 의미로 곱씹어보게 하는 '춤추는 영혼'은 진정한 사랑의 가치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아 나서는 초월적 삶의 의미를 제시한다.

일 시 | 11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화바우처 단체 5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2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교류음악회



지휘 김철호



지휘 임재원



거문고 권은영



아쟁 서준웅



태평소·피리 김용우

201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3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대전의 대전연정국악연주단과의 교류음악회로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한다.

1부에서는 대전연정국악연주단 임재원 객원지휘자의 지휘로,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수석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지역별 정서가 담긴 창작음악을 함께 연주하고 두 악단 연주자를 협연자로 상호교류하며, 음악으로 하나되는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대전연정국악연주단은 1981년 개원한 이래 한국음악의 보존과 연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한국문화예술 창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 전통 문화예술 기관이다. 특히 2014년 국악문화회관 신축과 함께 '중부권 한국음악의 전당'으로서 재도약하고 있다.

1부 대전연정국악연주단의 무대는 도화타령, 농부가, 풍년가, 군밤타령, 아리랑의 다섯 민요를 국악관현악으로 편곡한 국악관현악 '민요 오색타령'을 시작으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단원 김용우가 협연하는 피리·태평소 협주곡 '바람의 유희', 국악가요 '쑥대머리', '사랑가'를 편곡한 창과 관현악무대로 진행된다. 2부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대 위촉곡 중 국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국악관현악 '가을의 기억'(백규진 작곡, 2004년 위촉),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조원행 작곡, 2007년 위촉)과 서울대학교 정대석 교수의 거문고 협주곡 '정읍사'를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권은영 교수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소아쟁협주곡 '아라성'은 잔잔한 수평선을 바라보듯 평온한 소아쟁의 음색과 강렬하게 폭풍우 치는 관현악이 대조적이며 변화무쌍한 바다, 더 나아가 자연의 신비를 노

래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양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전연정국악연주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준웅이 협연자로 국악애호가들과 만난다.

부산대학교 권은영 교수의 협연으로 듣는 '정읍사'는 민예극단의 '달하 노피곰 도드샤'의 노래 주제를 가지고 1991년 거문고 독주곡으로 재구성된 작품이다. 거문고가 지닌 독특한 저음을 살려 우직하면서도 투박한 소리를 통하여 한 없이 그립고 기다리는 님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장단 구성은 느린 중모리, 중중모리, 엇모리, 중모리로 장단이 구성되어 있다. 느린 장단에서는 애절한 거문고의 선율이 돋보이며, 빠른 장단속에서는 다이내믹한 거문고의 선율이 흥을 더한다.

일 시 |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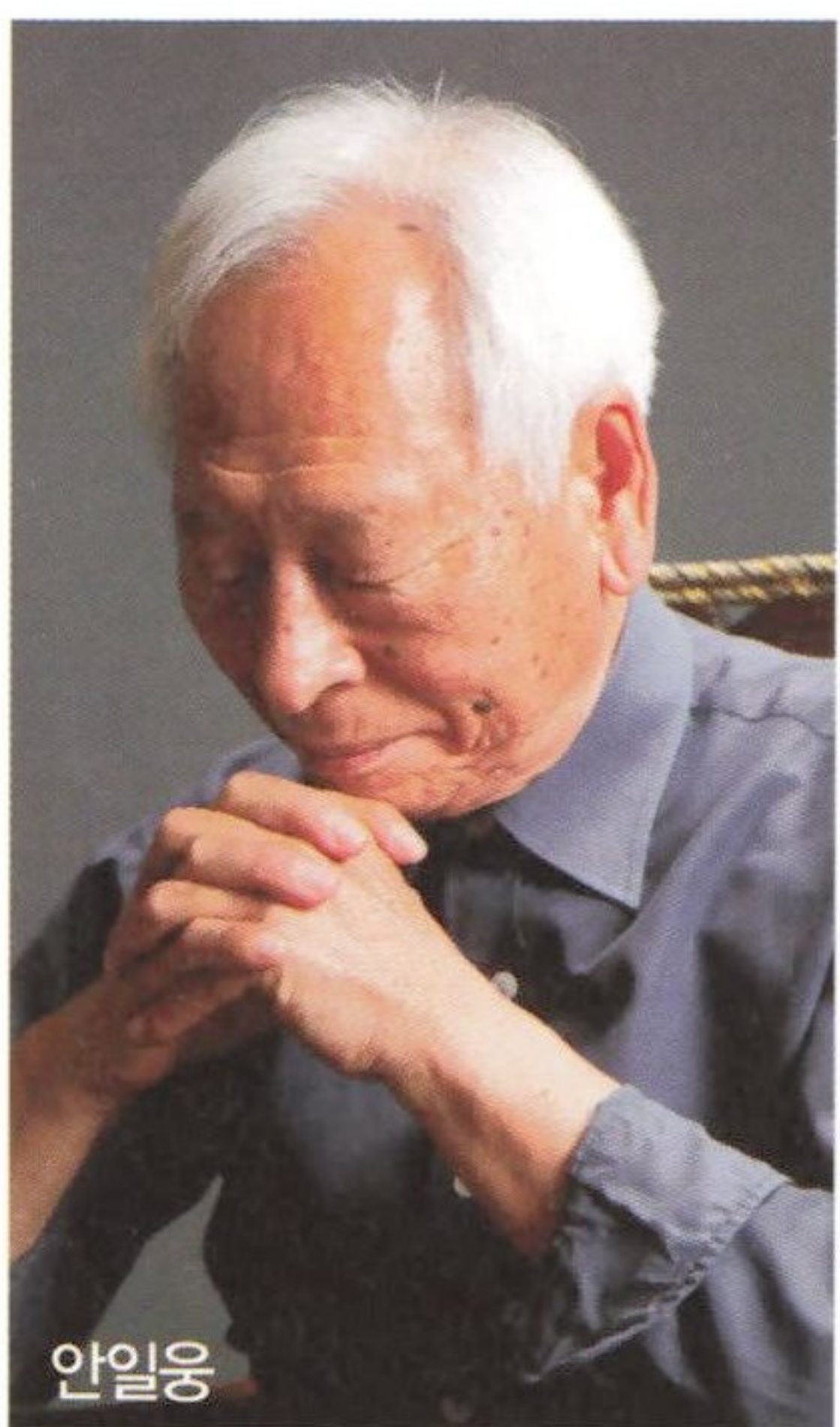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부산시립합창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의 밤-시와 합창의 만남



안일웅



정승원



김종욱



백승태



최석태

세계적인 합창음악, 성가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온 부산시립합창단이 저물어가는 가을,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시와 그 시에 옷 입힌 선율, 부산 사람들의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창작합창과 창작가곡으로 만나는 '창작합창의 밤-시와 합창의 만남'으로 부산시민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오세종이 지휘하고 경성대학교 장원상 교수가 특별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의 시인 선용, 최연근, 배상호, 이말라, 한소자 등 5명의 시인과 작곡자 백승태, 정승원, 최석태, 김종욱, 안일웅의 시와 곡으로 탄생한 창작곡을 들려준다. 창작곡에는 영도다리와 동백꽃, 대신공원, 오륙도, 동백섬 오륙대 등 부산의 자연과 정서가 시와 음악에 그대로 녹아있다.

첫 무대는 시인 선용의 '동백은 지금'과 '치마 바위 이야기'가 (사)한국음악협회 김해지부장, 을숙도 창작음악축제 추진위원장 작곡자 백승태의 선율로 덧입혀 연주되며, 두 번째 무대에서는 시인 최연근의 '영도다리 연가'와 '생명-낙동강에 봄이 오면'이 작곡자 정승원의 선율로, 세 번째 무대는 시인 배상호와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담당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곡자 최석태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창작합창 '민물 꿈장어 사이소'와 창작가곡 '강서의 노래' '대신공원'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시인 이말라와 한국교회음악학회 회원, 부산창작합창21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성대학교 교수 김종욱의 '동백섬에서'와 '오륙대 호반에 가면'이, 마지막 무대로는 작곡자 안일웅과 작곡자의 부인인 시인 한소자의 오륙도를 노래하는 '다섯 섬이, 여섯 섬이'가 장식한다.

나운영을 사사한 작곡가 안일웅은 한국과 독일에서 23회의 작품 발표회를 가진 부

산의 원로 작곡가이다. 안일웅의 작품은 특히 2000년, 2006년, 2012년 독일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에서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2015년 2월 28일 안일웅 선생의 75세를 기리는 'Abend/731-마루타 진혼기도'를 초연할 예정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메시지 중심' '일관성 추구'라는 안일웅의 음악철학을 담아낸 대표작 '다섯 섬이, 여섯 섬이'는 1981년 '5대의 클라리넷과 북, 낭송 연기자를 위한-다섯 섬이, 여섯 섬이'를 시작으로 1993년, 1996년에 이르기까지 15년에 걸쳐 3부작으로 완성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박용갑, 김자연의 특별연주로 진행된다.

일 시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0,000원 · A석 7,000원 · S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2014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제505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음악과 인생을 재조명해보는 특별한 무대를 갖는다.

바그너 이후 독일의 가장 뛰어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독일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을 대표하는 대작곡가이다. 그의 1896년작 교향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삽입곡으로 유명하다. 젊어서는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 교향시 '돈 후안', '알프스 교향곡'을 쓰고, 그 후 바그너의 영향으로 오페라 '살로메', '장미의 기사' 등을 완성하였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살로메의 춤'을 비롯해 '4개의 마지막 노래', 교향시 '죽음과 변용',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들려준다.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바탕으로 세레 요한에 대한 살로메의 야릇한 애정과 증오를 그린 오페라로, 내용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초연 당시에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이다. '살로메의 춤'은 이국적인 동방의 선율로 시작하여 유럽의 왈츠 선율이 절묘하게 고조되면서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내는데, 요염하고 음탕한 분위기 속에서 살로메의 관능적인 몸짓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동요시킨다.

'4개의 마지막 노래'는 R.슈트라우스가 독일의 시인 아이헨드롭프가 쓴 시 '해질녘'으로부터 깊은 감동을 받고 그의 생애 마지막이 될 의미 있는 작품을 위해 작곡에 착수, 이 시를 바탕으로 한 '해질녘'를 완성했고 이후 헤르만 헤세의 세계의 시에 곡을 붙여 '봄', '잠들며', '9월'을 차례로 마무리 하였다. 곡은 죽음을 인지하던 시기의 작품답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간결한 요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고요함 속의 감정표출로 강한 서정성과 음악적 흡입력을 띠고 있다. 1950년 5월 22일 R.슈트라우스

가 사망한 후 런던 로열 앨버트 홀에서 초연되었다.

이번무대에서는 중국 출신의 소프라노 슈 레이(Xu Lei)가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서정적인 '4개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준다. 2010년 메트 HD TV방송이 제작한 '타우리스의 이피게네이아'에서 '제1여사제' 역으로 메트에 데뷔한 슈레이는 이번 시즌에는 '피가로의 결혼' '제비' '파르지팔' 등으로 메트 무대에 오른 바 있다.

교향시 '죽음과 변용'은 '돈 후안'의 뒤를 잇는 두 번째 교향시로 R.슈트라우스가 시인 알렉산더 리터의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죽음이라는 관념을 소재로 한 곡이다. 병상에 누운 한 남자의 이야기로 다양한 주제들과 선율들을 관현악 기법을 통해 다채롭고 극적으로 펼쳐내고 있다.

마지막 곡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은 독일 민화 속 인물인 틸 오일렌슈피겔의 불운과 장난에 관한 연대기를 담고 있다. 주인공 틸은 온갖 소동을 일으킨 끝에 결국은 잡혀 교수형에 처해지는 익살스러운 인물로, R.슈트라우스는 이 주인공의 짧은 에피소드들을 모아 론도형식으로 곡을 완성했다.

일 시 |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0,000원 · S석 15,000원

A석 10,000원 · B석 5,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4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지휘 리 신차오
Li Xincao



Richard Strauss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Program

- 살로메의 춤
Salome's Dance
- 4개의 마지막 노래
Vier letzte Lieder
- 교향시 「죽음과 변용」
Tone poem "Tod und Verklärung"
-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Tone poem "Till Eulenspiegels lustige Streiche"



소프라노 슈 레이
Xu Lei

2014. 11. 28 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 최 부산광역시 문 의 607-3111~3(부산시향) 607-3100(홍보마케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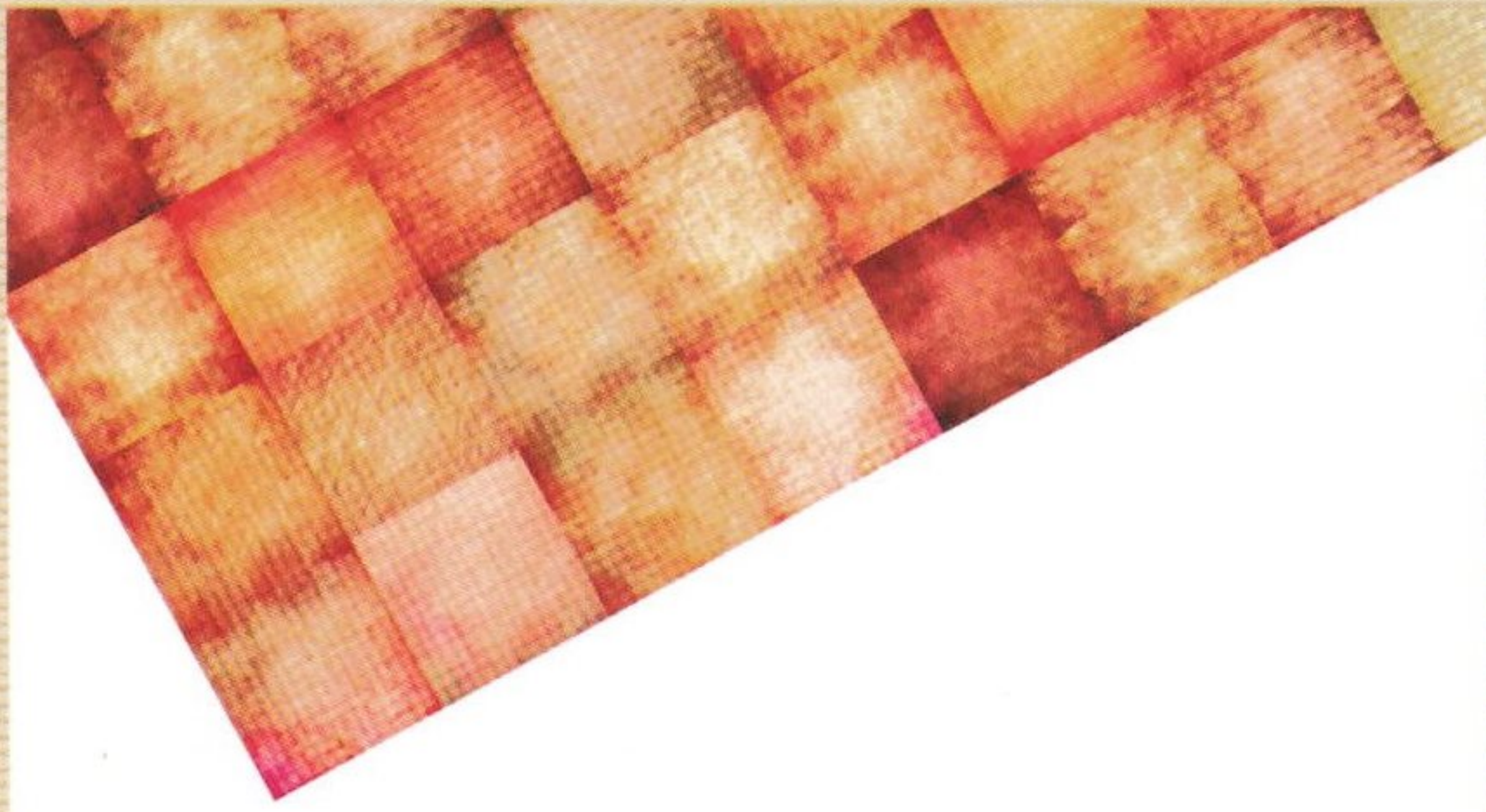
입장권 R석 20,000원 S석 15,000원 A석 10,000원 B석 5,000원

예 매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부산은행 전지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 5번 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100m "7번가 피자" 앞 → 부산문화회관 • 출발시간: 월~금 19:00 (공연있는 날에 한함)



2014부산국제합창제

인류여 한 형제가 되자

작곡가 하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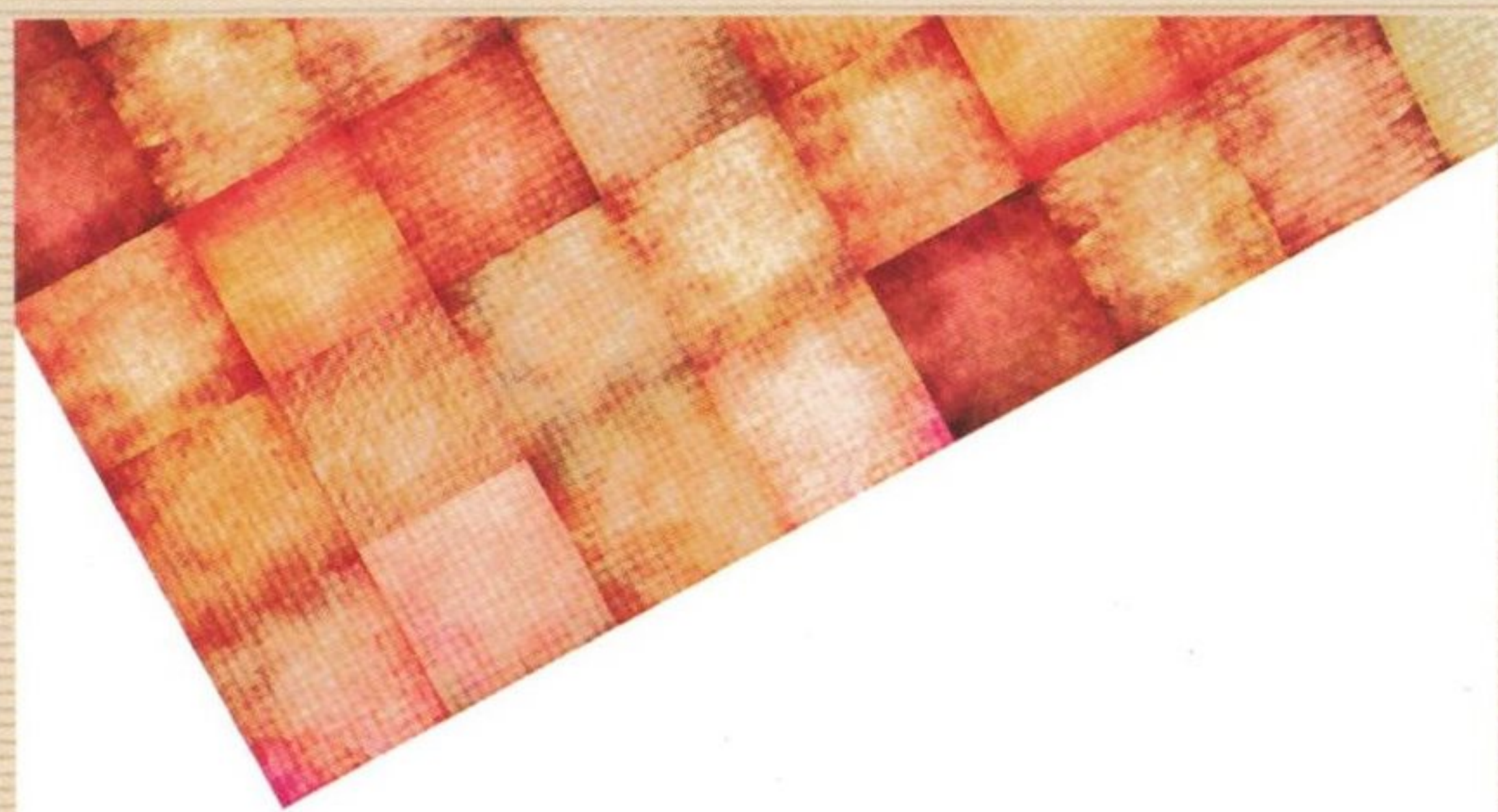
부산국제합창제가 올해는 10주년으로 지난 10월 13~18일까지 6일 간 세계 각국에서 온 11개국 50여 개 팀, 총 2,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의 축제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합창제는 합창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음악제였다. 먼저 경연부문에서는 클래식 혼성과 동성, 민속음악, 아카펠라 앙상블 그리고 청소년부문까지 다양한 장르의 합창들이 총 8,000만 원의 상금을 놓고 맘껏 기량을 펼쳤고 14일은 전야 대음악회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와 부산, 김해시립합창단이 베토벤의 코랄 환타지와 합창교향곡 4악장을 연주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10주년 기념 위촉작품 '노래로 하나되어(이영조)'가 발표되었는데, 팡파레풍의 서주부에 이어 아리랑을 주제로 한 선율이 다양한 변주를 거치다가 다시 첫 주제가 나오면서 장엄하게 마무리 되는 작품으로 축제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객석에는 부산시민들과 아울러 대회 관계자들, 참여한 외국의 합창단들, 음악 관계자들이 자리를 메워 명실공히 국제적인 행사임을 실감케 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세 차례의 갈라콘서트였다. 먼저 15일 개막공연으로 하늘연극장에서 세계적인 영국의 탈리스 스콜라즈 합창단이 영국의 토마스 탈리스를 비롯한 16세기 작곡가들과 바흐의 곡을 들려주었다. 르네상스와 바로크의 대위적 성악곡들을 가장 정통적으로 보여준 수준높은 합창이었다. 이 합창단은 특히 르네상스 음악에서 최고의 독보적인 지위에 있는 합창단으로 지휘자 피터 필립스는 이런 음악에 대한 공로로 프랑스로부터 예술 및 문학훈장을 받기도 했다.

또 16일 안산시립합창단의 갈라콘서트에서는 다양한 우리 합창 외에도 창작부문의 당선작 두 곡 1등 '겨울을 위한 노래(Dale Trombore)', 2등 '섹스피어의 두 장면(Daniel Sabzghabaei)'을 특별히 연주한 것도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 외 청소년을 위한 갈라에서는 대만의 쉬유합창단, 인도네시아 엔하모닉 싱어즈, 싱가포르의 화이트 노이즈 등이 연주하였고 그리고 최고의 합창단들이 선보이는 갈라에선 체코의 페로믹, 바르샤바 대학합창단 등 7개의 합창단이 다양한 합창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지휘자들이 들려주는 합창세미나와 찾아가는 음악회에서는 감천시멘스 클럽, 수영로교회, 지하철 역, 영도다리,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 전체가 합창의 거대한 가마솥(釜)이 되어 온 세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부산의 여러 축제 중에서도 국제합창제는 이제 우뚝 자리매김한 것 같다. 이번 합창제를 보면서 베토벤이 '인류여 하나로 형제가 되자'라고 그의 마지막 교향곡에서 왜 합창으로 외쳤는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상쟁이 음악의 힘으로, 한 목소리의 합창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합창교향곡을 듣고 집으로 오는 내내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부산시립극단 제51회 정기공연 <철로>

이미지의 파편과 '우리'의 이야기

연극평론가, 부경대학교 국문과 교수 김남석

<철로(The Permanent Way)>(David Hare 작, 김지용 연출) 공연은 몇 개의 분절된 이미지로 요약될 수 있다. 무대 바닥을 구르는 의자의 철제 바퀴, 장면의 전환 시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철커덕' 소리, 그때마다 인물 주위로 명멸하는 부분 조명, 스크린에 일어나는 선동적 구호, 그 옆으로 튀어 오르며 번져가는 핏빛 이미지, 그리고 관객을 향해 말하는 무표정한 인물의 내레이션.

이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하나의 캐릭터를 맡아 정해진 이야기를 전개하는 일상적인 배역을 수



행하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변신하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도록 훈련되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같은 상반되는 역할도 넘나들도록 유도되었다. 철도 관련 전문 기관의 종사자가 되기도 했고,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공무원이 되기도 했으며, 토론을 벌이거나 항의를 하는 유족이나 피해자 혹은 고발자 역할을 맡기도 했다. 배우들의 수행하는 역할은 다양하고 복잡했다(1인 2~3역은 기본이었다). 그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역할 분배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역할에도 공통점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철로를 이동하는 '승객'이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승객은 예외 없이 철로에서 상해를 입는 피해자로 전락했다. 배우들은 코러스가 되어 의자를 끌고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구르고 넘어지고 멈추고 핏빛 조명을 뒤집어쓰고, 그러다가 죽고, 다치고,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간신히 살아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은 자들을 연기해야 했다. 문제는 이러한 역할이 모두 승객이라는 점이다. 연출가는 자칫 길어질 수 있는 원작 희곡의 공연 시간을 줄이는 대신, 배우들에게 반복적인 연기를 주문했다. 배우들은 오프닝(opening)부터 승객이 되어야 했고, 동시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다치는 피해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신문을 펴고 바퀴 달린 의자를 밀고 책상에 부딪치거나 책상 위를 구르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철제 금속음을 생산해야 했다. 이러한 설정은 관객들에게 철로 위로 기차가 달리고, 기차에서 승객이 서로 부딪치거나 이동하는 상황을 연상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결말은 늘 참담했다.

그 결과 <철로>는 관객들을 감성적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이끌었다. 관람하는 이들은 철도 사고가 왜 일어났고, 무엇 때문에 앞의 사고가 수습되기도 전에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도록 채근 당했다. 그 이유는 늘 한 가지였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이성적 물음과 답변에 대한 채근은 성공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관객들은 '철도 민영화의 허실'과 '사고의 위험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본능처럼 그 답을 구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시립극단의 <철로>는 원작의 계몽성과 그 전파에 충실한 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꼭 따져보아야 할 것들도 있다. 하나는 영국의 사례만으로, 이 시대의 관객이 피부로 절감하는 안전과 대책의 문제의식을 끌어낼 수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반복되는 이미지만으로 과연 정서적 울림을 동반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가이다. 인식에의 충격은 이 작품이 추구해야 할 몫이지만, 파편화된 이미지의 반복적 나열이 이러한 충격을 과연 끝까지 밀고 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물음과 의문 앞에서 우리는 <철로>를 보는/만드는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이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과연 그 진실을 우리 마음 속 깊숙이 밀어 넣는 데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파편화된 이미지는 분명 충격적이지만, 그 이미지들이 확장된 사유 위에서 효과적으로 결집되지 못한다면 마음 속에 한 줄기 통합된 이야기로 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철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이 시대'에 남기 위해서는 이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프로그램
가이드

제1회 PBC부산평화방송 가톨릭성가제

일 시 | 11월 1일 토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PBC부산평화방송 600-8811~3

...
PBC 부산평화방송이 한국 천주교회의 큰 축복,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을 축하하고 천주교 부산교구의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 시복을 기념하는 성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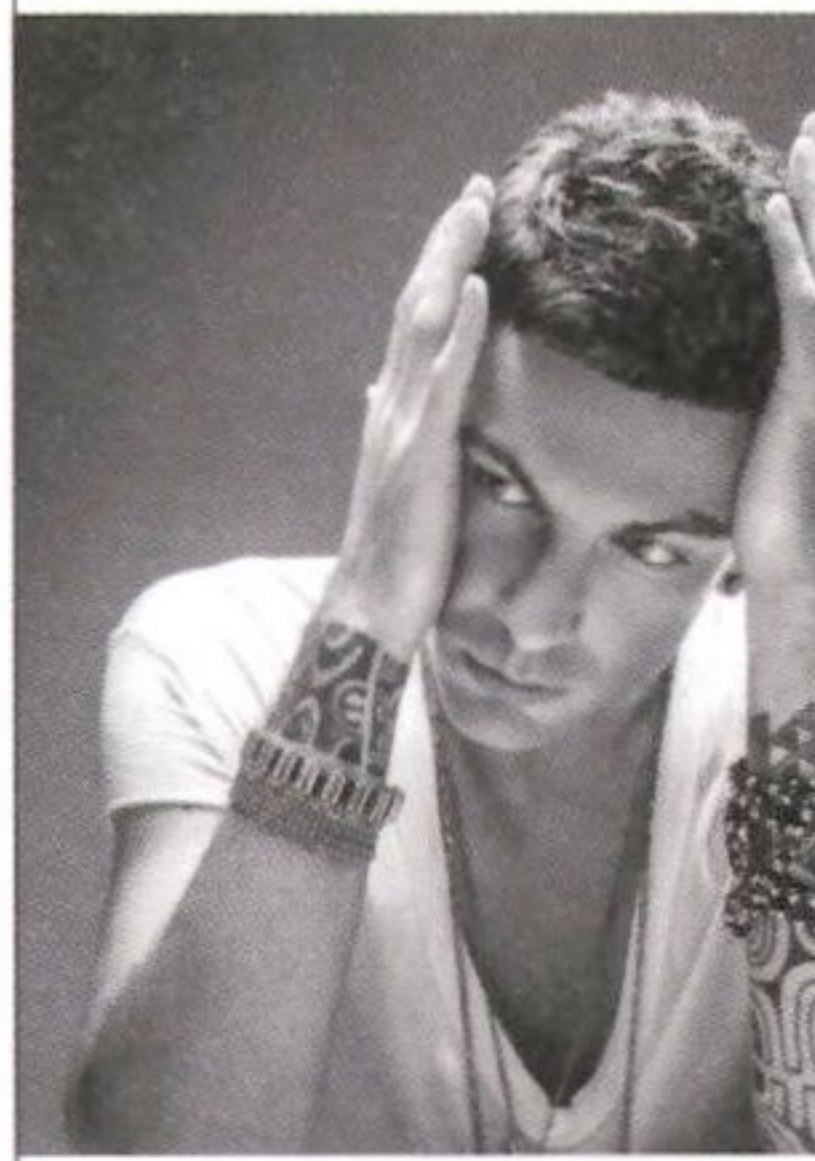
극단새벽 창단 30주년, 갑오농민항쟁 120주년 에 부치는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일 시 | 10월 31일 금요일 오후 8:00,
11월 1일 토요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극단새벽 245-5919, 010-2570-9634

...
'삶의 연극화, 역사의 연극화'를 모토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온 극단 새벽이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으로 선보이는 발림(몸짓)극 '새야 매야'. '새야 매야'는 음악과 다양한 탈 등을 매개로 춤과 몸짓이 어우러지는 비언어연극이다.
•구성, 연출/이성민
•탈 제작/박남희
•출연/유미희, 변현주, 이현식, 전상미, 박정아 외

2014년 막심 므라비차 전국투어공연

일 시 | 11월 2일 일요일 오후 6: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5만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지니컨텐츠 02-568-8831



'신이 내린 손가락' 막심 므라비차 2014년 전국 투어 공연. 멋진 외모, 파워풀한 격정적인 연주와 다이내믹한 속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전좌석을 매진시킨 일렉트릭 피아니스트 막심 므라비차가 2014년 새 앨범 발

매와 함께 내한 공연을 펼친다. 늘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막심 므라비차는 국내 관객들에게 익숙한 영화 OST, 클래식, 팝 등 다양한 장르와 새 앨범 곡을 추가해 4인조 스트링, 베이스, 드럼, 퍼커션으로 구성된 7인조 막심 밴드와 함께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연주를 선사한다.

전장수 클래식기타 독주회

일 시 | 11월 2일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We Music 010-6416-5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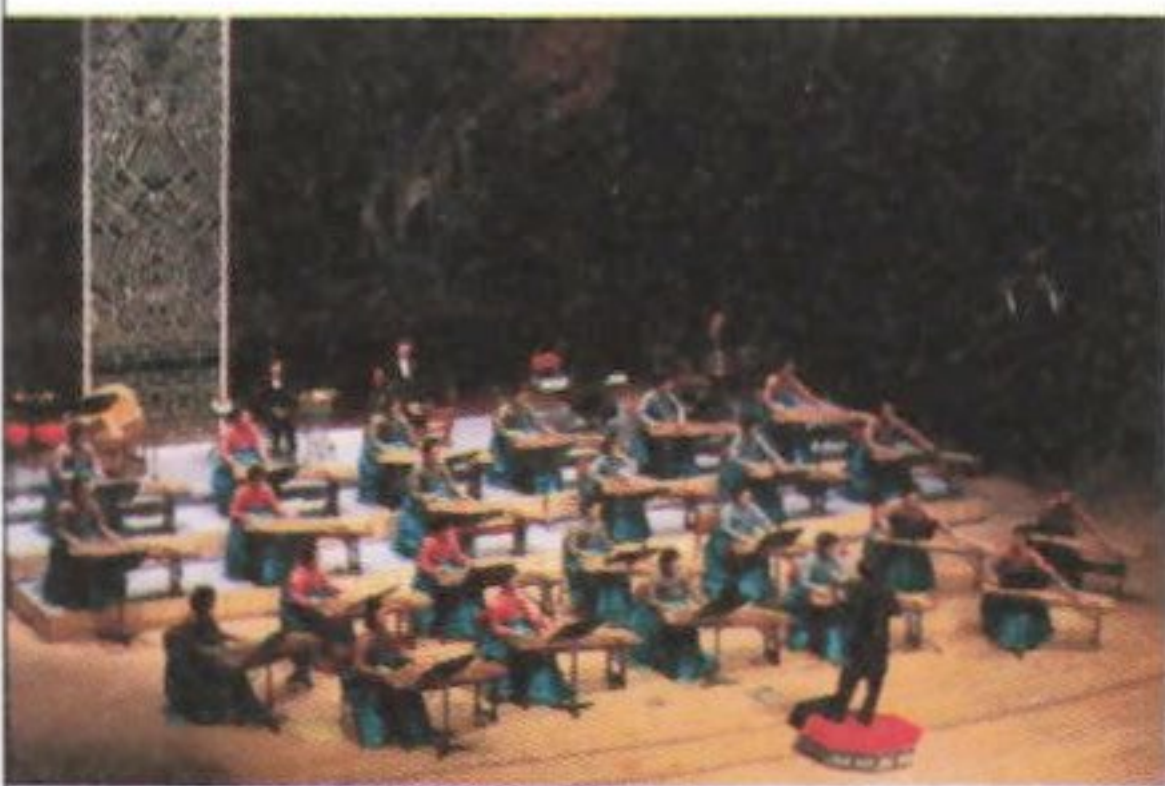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이상우 사사)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클래식 기타를 공부(Benjamin Verdery 사사)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전장수 독주회.

전장수는 미국 유학시절부터 시작한 독립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자녀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치고 한국 적십자 피스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을 역임하며 다양한 연주, 봉사활동을 가져오고 있다. 한국인 기타리스트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카네기 홀에서 독주회를 가진 그는 '독도의 사계'라는 4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작품 중 여음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적인 거장 Alvaro Pierri 교수를 사사한 전장수는 '가슴이 뜨거운 연주자'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바흐/브란덴부르크 협주곡 제6번 BWV1051
피아졸라/탱고의 역사 등 수곡
•특별출연/오신정, 배윤진, 서만재

부산가야금연주단 10주년 기념 음악회 천년의 소리 세계를 품은 가야금

일 시 |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1층), S석 1만원(2층)
(사랑티켓 참가자)
문 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6575-7968
(카톡아이디: inyee21)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부산가야금연주단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무대 '천년

의 소리-세계를 품은 가야금'.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 초대 음악감독을 역임한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를 중심으로 가야금 전공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부산가야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독창적인 구성의 정기연주회, 해외 초청 연주회, 특별연주회, 상설공연 등 연간 20~30회의 공연을 소화해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과 김해의 가야금연주자, 애호가, 학생 등 100명으로 구성된 100인의 가야금연주단이 들려주는 아리랑변주곡, 가야금 소리의 영롱함을 통해 세계인과 호흡하기 위한 음악으로 작곡된 위

촉곡 '세계를 품은 가야금' 등을 들려준다. 세계를 품은 가야금은 특히 침밀밀(중국), Dark eyes(러시아), Hava Nagila(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대표곡들이 영상과 함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프로그램]
천년만세(양금/김경희 · 장구/송강수)
위촉 연극 '바람의 향기(2009)' '현향신화(2007)' '2012Brand New!(2012)' '부산이야기 靑興動(2010)'
황의중/100인의 가야금 - 아리랑변주곡
이수은 /세계를 품은 가야금(위촉곡)
장연정(편곡)/남상일과 함께하는 민요연곡-태평가, 천안삼거리, 남원산성, 까투리타령, 너영나영
이경섭/타악협주곡 '타(打)' 등
•단장/김남순(부산대학교 교수)
•지휘/이수은
•연주/부산가야금연주단(이명일, 배수연, 최미란, 강미정, 서나영, 옥경화, 이미자, 서은진, 김은별, 최주실, 문영주, 이남연, 김지현, 최승혜, 김두경, 문포근, 김윤미, 박경진, 허재원, 권지현, 나근화, 김지연, 이덕금)
•해설/윤중강(국악평론가)
•특별출연/남상일(소리), DreamTA(타악), 100대의 가야금(아리랑)

허에스더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고신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미국 Azusa Pacific 대학교 음악대학 피아노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허에스더 피아노 독주회.

온누리 국제 크리스찬 아카데미 강사를 역임한 허에스더는 드뷔시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 J. S. Bach, Father of Counterpoint 등의 무대를 통해 음악애호가들과 만났다.

[프로그램]
바흐/프랑스모음곡 V
베토벤/피아노소나타 제7번 라장조 작품 10
슈만/피아노소나타 제2번 사단조 작품 22
프로코피에프/덧없는 환영 작품 22

Program Guide >>

제18회 새물결 춤 작가전

일 시 | 11월 4일-5일 화-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한국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632-5116



부산무용계의 내일을 가능
해볼 수 있는 차세대 춤꾼
들이 마련하는 창작의 장
제18회 새물결 춤 작가전.
춤에 대한 열정과 도전의식
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장
르의 창작 무대를 펼친다.

작품

■ 4일(화) 오후 7:30

박현정무용단 '1인분 인

생'(안무/이민선)

판댄스 시어터 '나름'(안무/박은지)

땡브르발레연구회 이중섭의 연서-대향(大鄕)을 사
랑한 남덕(안무/이상영)

■ 5일(수) 오후 7:30

현대무용단 '자유'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안무/
이연주 · 출연/이현주, 권아름, 조현배, 이나라)

현대무용단 주-모 '아는 사람 이야기'(안무/박보
라 · 출연/김민지, 박보라, 이수향)

강미리할무용단 '내-안으로'(안무/한지은 · 출연/곽
민지, 윤수양, 장미, 한지은)

테너 오동주의 14th Story Concert

가을 그리고... 그리움

일 시 |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남성성악양상블 4+1 010-4556-5058



관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테너 오동주의
Story Concert 14번째
무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루
이자 단눈치오 국립음악
원, 이탈리아 페스카라 국
립아카데미 오페라 연기과
를 졸업한 오동주는 부산

시립합창단 기획, 경성대학교 외래교수, 목련합창
단 지휘자, 남성성악양상블 4+1, 이태리음악연구
회원 등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가을, 그리고 그리움/아 가을인가(나운영 곡), 산들
바람(현제명 곡), 그리운 사람(박경규 곡)

그리움에 대한 F.P.Tosti/Tristezza(슬픔), Non
t'amo piu(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 등 수곡

- 반주/유영욱(피아노), 황미리(플룻), 정승리(첼로)
- 특별출연/바리톤 김중표, B-STAr(부산광역시
공무원 합창단, 피아노 이승윤)

부산 남구구립 오륙도여성합창단 2014년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광역시 남구청 607-4064

1970년 7월 남구 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한 이후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치며 남구민의 정서소화를 위
해 폭 넓은 활동을 펼쳐온 오륙도여성합창단의
2014년 정기연주회.

지난해 구립여성합창단으로 재창단된 오륙도여성합
창단은 남구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으로 밝고 건전
한 음악을 보급하며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
해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륙도여성합창단은 부산광역시 주관 구 대항 합창
단 경연대회 1위, 거제합창제 장려상, 2007 부산
국제합창제 동상, 제5회 부산어머니합창 페스티벌
은상 등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임금수/옛님

김효근/내 영혼 바람되어

전래동요/두껍아 문지기

슈베르트/아베마리아 등 수곡

• 지휘/고영호 • 반주/최여진

• 특별출연/양승엽(테너), 차경훈(테너), 드미트리
로카렌크프(트럼펫,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조면주(사회)

제12회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011-833-0621, 010-2357-0919

부산 16개 구군 여성합창단 연합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의 2014
년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이현철/푸르른 바람아

로시니/윌리엄 텔 서곡

새에게 등 수곡

• 지휘/윤정윤

• 반주/이현주



송다솔 거문고 독주회 거문고 회상

일 시 |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송다솔 010-4187-7266



부산대학교 한
국음악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음악수업을 하
고 현재 부산시
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거문
고악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

는 송다솔의 거문고 독주회 '거문고 회상'.

이번 무대에서는 거문고가 음악의 중심선율을 이어
가는 '거문고회상' 또는 '현악영산회상'이라고 불리
는 줄풍류 영산회상(靈山會相)과 조선후기 풍류방
선비들이 영산회상 전곡 연주에 이어 뒷풍류로 즐겨
연주하던 뒷풍류 천년만세(千年萬歲)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줄풍류 영산회상(靈山會相)

뒷풍류 천년만세(千年萬歲)

• 대금/손한별(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V-토스카

일 시 |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해 부산
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2014년 웰빙콘서트 '11
시에 만나요!'의 오페라 하
이라이트 시리즈 마지막
무대 오페라 '토스카'.

최근 경북도립교향악단 지
휘자로 자리를 옮긴 이동
신 지휘자의 해설, 오페라

전문연출가의 유철우의 연출, 성악가들의 열연으로
매회 사랑을 받아온 웰빙콘서트는 오페라 감상의 즐
거움을 더해주는 한낮의 음악선물로 많은 사랑을 받
아왔다.

• 지휘, 해설/이동신(경북도립교향악단 지휘자)

• 연출/유철우

• 테너/홍지형

• 소프라노/구민영

• 베이스/박대용

프로그램
가이드

한얼정악연구소 제19회 정기공연 천년의 문화 시조, 어제와 오늘

일 시 | 11월 7일 토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한얼정악연구소 010-3870-8597

1995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조 창무극 장르를 개발, 다양한 무대 활동을 펼쳐온 한얼정악연구소의 제19회 정기공연. 중요무형문화재 제41호 이수자 정인경은 그동안 시조, 가사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조시화전, 시낭송, 극화한 시조창 등과 같은 다양한 입체적인 방법으로 한얼정악연구소의 무대를 꾸며왔다. 올해는 1부 시조로 부르는 가곡의 어제와 오늘, 2부 시조의 어제와 오늘, 3부 시조를 지어 노래부르기, 4부 시조시로 부르는 경기민요 등으로 다양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 정통가곡 초수대엽 동창이 밝았느냐
- 현대가곡 낙동강에 새봄 옷들, 별, 장안사
- 사설시조 청려장 집고, 경제시조 우조시조 월정명 등
- 창/정인경, 문현(국립국악원 정가 수석 단원), 이희재(국립부산국악원 단원), 박수진, 정유정
- 노래/부산시조합창단, 부산여류시조시인협회, 강호룡, 방미영, 이성아, 박순이, 부흥초등학교 어린이시조동요합창단
- 경기민요/김정희, 김희진, 서영숙 외
- 시낭송/전연희, 손증호 •사회/정희경

2014 이루마 콘서트 HEART(hurt)

일 시 | 11월 8일 토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 8천원 · S석 7만 7천원
문 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한국적 감성으로 세계를 감동시킨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의 2014년 전국 투어 콘서트. 매년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따뜻하고 친숙한 음악으로 아름다운 감성을 전해온 이루마는 2013년 발매된 정규 8집 'Blind Film'과 2014년 새롭게 선보인 스페셜 앨범 'ATMOSFERA'로 올 한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루마를 대표하는 'Kiss The Rain'을 비롯하여 처음의 약속과 다짐을 담은 곡 'Our Same Word...약속', 피아노로 전하는 사랑의 멜로디인 '너에게 보낸 내마음' 등 이루마의 숨겨진 명곡들, 잊혀진 선율들을 재발견하여 설레는 마음과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준다.



사제 간의 듀오 음악여행 선우난영, 김현정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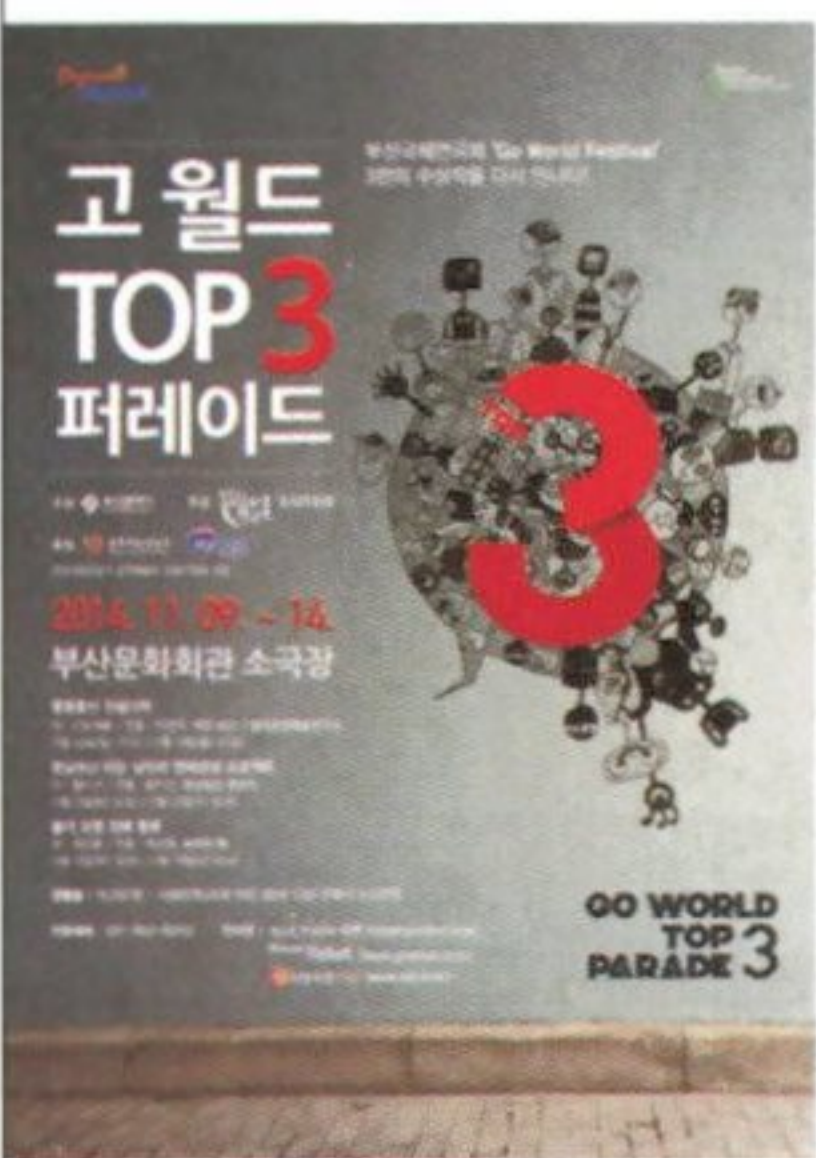
서울대 음대 및 동대학원,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선우난영과 그의 제자 김현정이 함께 펼치는 듀오 리사이틀. 20여 년간 스승과 제자로 인연을 맺어온 선우난영, 김현정이 음악에 대한 열정, 변함없는 음악사랑으로 사제 간의 듀오 음악여행을 떠난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판타지 바단조 D, 940(1 Piano 4 Hands)
- 생상/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 작품28(2 Piano 4 Hands)
- 브람스/헝가리무곡(1 Piano 4 Hands)
- 피아졸라/아디오스 노니노(2 Piano 4 Hands), 리베르탱고

부산국제연극제 'Go World Festival' TOP3 퍼레이드

일 시 | 11월 9일-11월 14일
평일 오후 7:30,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 5천원(사랑티켓 참가작)
문 의 | 부산국제연극제 802-8003



국내 우수 공연 단체의 예술성을 갖춘 신작을 발굴하여 프랑스의 '아비뇽 오프', 영국의 '에딘버러 프린지'와 같은 세계적인 공연 예술제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부산국제연극제가 기획하고 있는 'Go World Festival'의 2014년 수상작 특별공연.

극단 마고, 창작공연예술연구소

'벚꽃동산 진실너머'(Go World Festival 대상)
11월 9일(일) 오후 5:00, 11월 10일(월) 오후 7:30
안톤 체홉의 마지막 희곡 작품 '벚꽃동산'을 젊은 연출가의 독특한 농노해방에 뒤따른 지주 계급의 몰락과 평민 부르조아 계급의 발흥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지방 명물 벚꽃동산이 매각되는 과정을 통해 러시아의 몰락해가는 지주계층을 날카롭게 묘사했다.

- 작/안톤 체홉 •연출/박연주
- 출연/임윤진, 정진숙, 유효진

공상집단 동단지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Go World Festival 우수상)

11월 11일(화)-12일(화) 오후 7:30
'런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 프로젝트'는 실연, 불면증으로 괴로운 상황이지만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쫓기는 샐러리맨이 7년 연애 끝에 실연을 당하고 멈추지 않는 런닝머신에서 달리는 듯한 위태로운 모습을 재미있게 그려낸다.

- 작/황이선 •연출/ 황이선
- 출연/윤광희, 김형섭, 박영기, 문병주, 손승범, 안영주

씨어터 백 '봄이 오면 산에 들에'(Go World Festival 최우수상)

11월 13일(목)-14(금) 오후 7:30
'봄이 오면 산에 들에'는 작가 최인훈 선생이 1970년대에 문동이 설화를 모티브로 쓴 작품으로 극단 씨어터 백이 2013년 제13회 2인극페스티벌에서 연출상과 여자배우연기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말더듬이 아버지와 문동병에 걸려 집을 떠난 어머니,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딸 달래, 그리고 달래를 좋아하는 바우에게 닥친 거부할 수 없는 시련을 감동적으로 그려낸다.

- 작/최인훈 •연출/백순원
- 출연/이정국, 김지영

2014 김희은의 춤 '罽'

일 시 |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김희은 댄스컴퍼니 010-7770-5395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한 동의대학교 김희은 교수가 새롭게 준비한 2014년 창작 '罽'. 욕을 듣고, 욕을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을 역동적인 춤 언어로 풀어낸다.

프로그램

- 1부**
Opening Galashow
레이저쇼와 샌드드로잉 퍼포먼스(출연/박준영, 김인기)
- 2부**
'욕' '농'(출연/최준호, 윤석태, 안나영, 최정화, 신상현, 천권준, 이진아, 이미화, 황미리, 김하영, 김미정, 배희경, 서민규, 강주영, 장명주, 김지은)
- 안무, 연출/김희은(동의대학교 교수)
- 기획/김은정(부산예술대학교 교수)
- 대본/김인영(한양대학교)

Program Guide >>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II 라 보엠

일 시 |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8



평소 어렵게 느끼는 오페라에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부산문화회관에서 특별기획한 오페라 갈라콘서트 '금난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오페라 '라 보엠'은 프랑스 작가 앙리 뒤르제의 '보헤미안의 생활정경'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푸치니 자신의 어려웠던 청년시절의 체험을 적절하게 가미해 무대화한 작품이다. 라보엠은 특히 '나비부인' '토스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푸치니의 3대 걸작 중 하나이다.

테너 이기업, 소프라노 이예니, 바리톤 성승욱, 메조소프라노 백재은이 출연 라보엠 1, 4막과 생상, 모차르트, 구노의 오페라 중 유명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푸치니/오페라 '라 보엠' 하이라이트
누구세요?!-잠깐 (Chi è là?!-Scusi), 좀 나아졌나요?(Si sente meglio?), 그대의 찬 손(Che gelida manina), 내 이름은 미미(Si, Mi chiamano Mimi), 오 사랑스런 아가씨(O soave fanciulla) 생상/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그대 음성 에 내 마음 열리고(Mon coeur s'ouvre ta voix)'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더 이상 날지 못하리(Non piu andrai)' 구노/오페라 '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Salut! demeure chaste et pure)'
(※ 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4 유럽 최고의 기타리스트 띠보 꼬방 초청 콘서트

일 시 |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문화 1600-1803



천부적인 재능과 카리스마 넘치는 기타리스트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기타리스트 띠보 꼬

방(Thibault Cauvin) 부산연주회. 2007년 22살의 나이로 프랑스문화진흥원 후원으로 부산 공연을 가진 이래 7년만에 성숙한 모습으로 부산을 찾은 띠보 꼬방은 세월이 흘러 지금은 전문 프로덕션에 소속이 되어있는 유럽의 촉망받는 기타리스트 중 한 명으로 세계를 누비고 있다.

|프로그램|
스칼라티/소나타 K1, 소나타 K36, 소나타 K178
알베니스/그라나다, 까탈루냐
재즈 명곡들/할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A 지하철, 행복 도시와 관련된 음악/울란바토르, 캘커타, 이스탄불 등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음악이야기 가을 밤에 듣는 독일 가곡

일 시 | 11월 12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김경미 010-6450-7591



경성대학교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경미가 들려주는 특별 무대 '가을 밤에 듣는 독일가곡'. 그동안 실내악, 독창회, 독주회 반주, 오페라 음악 코치 등으로 활동하며 앙상블 음악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주 활동을 펼쳐온

김경미는 슈트라우스, 쇤베르크, 볼프 등 독일가곡만 엄선한 이번 무대에서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가곡 뿐 아니라 흔히 연주되지 않는 곡들을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트라우스/꽃노래
쇤베르크/키바레의 노래
볼프/외리케 시에 의한 노래
슈트라우스/Lieder 작품 27

장인숙 전통춤 공연

일 시 |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장인숙 010-8508-4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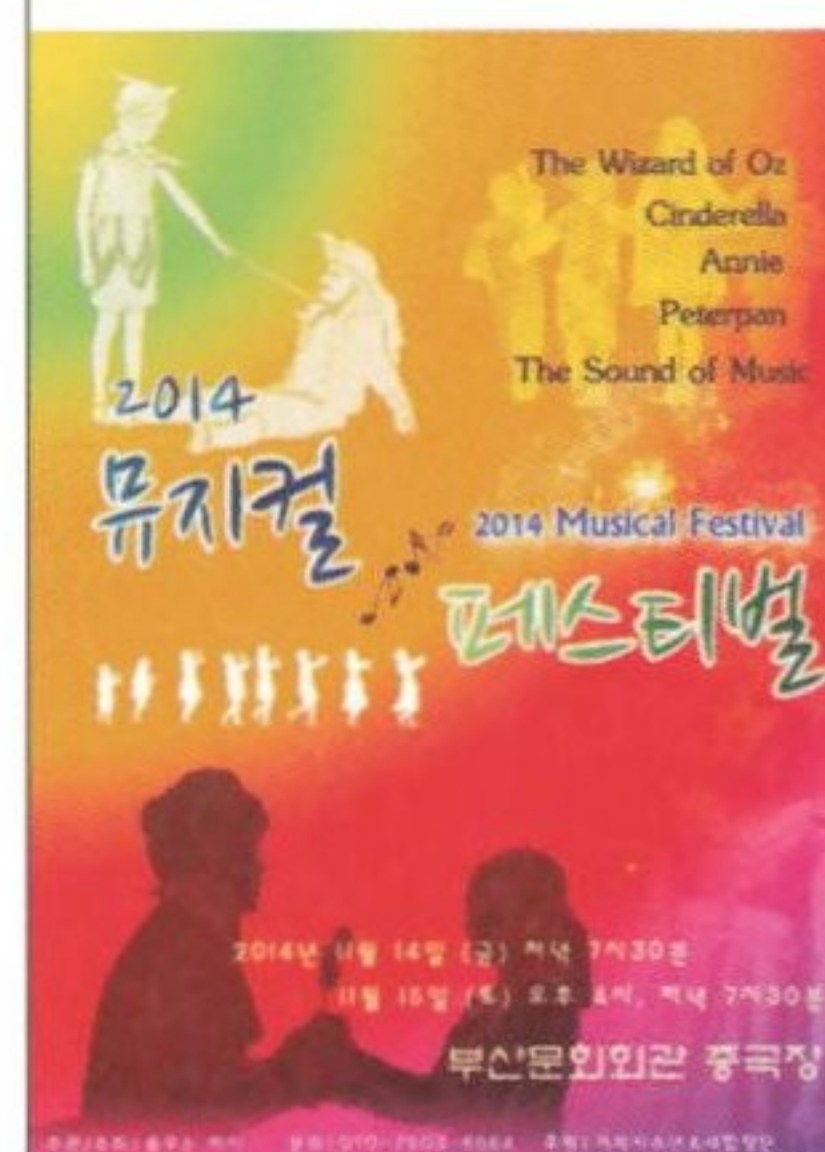
제28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문화관광부장관상 및 제17회 서울국제무용제 개인 연기상 수상에 빛나는 부산의 중견무용인 장인숙의 전통춤 공연.

신라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동래야류 가면무의 미의식 연구' 논문으로 이학박사를 취득한 장인숙은 그동안 장인숙 무용단 전통춤 공연을 비롯해 한국의 명인 명무전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춤꾼으로, 지역 춤에 대한 이론가로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프로그램|
살풀이(춤/김진홍)
산조(춤/김현임, 이광호)
장구춤(춤/김현임, 김송이, 이슬라)
지전춤(춤/장인숙)
태평무(춤/엄옥자)
이매방류승무(춤/장인숙, 김현임, 이광호, 김송이, 이슬라)

꿈꾸는 아이 11번째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일 시 |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15일 토요일 오후 4:00,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꿈꾸는 아이 010-7503-6564



어린이들의 정서 순화를 위해 꾸준히 뮤지컬 작업을 진행해온 꿈꾸는 아이의 11번째 무대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그동안 선보여온 오즈의 마법사, 신데렐라, 애니, 피터팬, 사운드 오브 뮤직 다섯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과 거제소년소녀합창단, 꿈꾸는 아이가 함께 출연한다.

- 총감독/서정아
- 연출/윤은대
- 음악감독/노미숙, 이형예
- 작곡 및 편곡/김성훈
- 출연/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꿈꾸는 아이 등

프로그램
가이드

뮤지컬 '시카고'

일 시 | 11월 14일-16일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2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A석 6만원
문 의 | 예술기획성우 1599-1980

2003년 런던 오리지널팀의 첫 내한공연 이후 매 시즌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 부산공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캣츠'에 이어서, 7300회 이상 공연되며 브로드웨이 역사상 3번째로 통련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는 희곡작가 모린 달라스 왓킨스가 쓴 동명연극을 원작으로, 1920년대 격동기의 미국,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문화가 발달했던 시카고 거리에서 스타가 되길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 극본, 작곡/John Kander, Fred Ebb
- 작사/ Fred Ebb
- 연출/타냐 마리아 (da SILVA, TÂNIA MARIA JESUS)
- 국내연출/김태훈
- 국내 음악감독/박칼린 •국내 안무/노지현
- 출연/최정원(벨마켈리), 아이비(룩시 하트), 이종혁/성기윤(빌리), 전수경/김경선(마마 모튼), 류창우(에이 모스), 김태우(메리 선샤인), 최성대, 서만석, 차정현, 최인우, 김시영, 유철호, 강동주, 민세희, 김미정, 연보라, 최은주, 하혜민, 방미홍, 김지은 외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내한공연

일 시 |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0만원 · S석 15만원 · A석 10만원
B석 7만원 · C석 5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주)코리아나매니지먼트 02-3487-0678



2014. 11. 17(월)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8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대표 교향악단인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의 첫 부산 내한공연.

1930년 설립된 모스크바방송교향악단은 Alexander Orlov가 초대감독으로 출발, 1974년부터 세계적인 거장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가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맡아 지금까지 40여년 간 이어오며 독특한 예술 스타일과 개성으로 러시아의 가장 권위 있는 오케스트라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백조의 호수 모음곡, 로코코변주곡
쇼스타코비치/교향곡 5번
- 지휘/배중훈(Korean Youth Symphony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 첼로/Fyodor Zemlerub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2014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미정
문 의 |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623-3331, 010-6428-7019)

진정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아가 이웃사랑까지 실천하는 부산 부부합창단의 2014년 정기연주회. 1987년 대구에서 창단(현 숙대 음대 권순호 교수)된 사랑의 부부합창단은 현재는 부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에서 400여 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년마다 개최하는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2대 지휘자로 추대된 남화성의 깔끔한 음악적 해석과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부합창단의 참 모습을 보여준다.

- 프로그램**
1st 은혜/Lamb of god, 만왕의 왕 여호와, 구름기둥과 불기둥
2st 추억/가을의 서정, 한국가요정선, 가을 밤
3st 승리/Walking in Sunlight, Just a Closer Wark, 하나님의 나팔소리
- 지휘/남화성 •반주/양은경
 - 연출/이외균 •단장/정연택
 - 특별출연/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챔버 앙상블 Bright Bows 초청 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움 557-3369

클래식 본고장의 젊고 기량이 뛰어난 러시아 챔버 앙상블 'Bright Bows' 초청연주회. 1993년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글린카 국립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Kuzina Marina 교수의 제자들로 창단된 챔버 앙상블 'Bright Bows' 단원들은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국제 콩쿠르에서도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실력파들이다.

-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프로렌스의 추억
피아졸라/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solo: MarinaKuzina)
차이코프스키/현을 위한 세레나데, 사계 등 수곡
- 해설/박광식(움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일 시 | 11월 20일-2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무용단 607-3131

조선의 판타지 로맨스 소설 <이생규장전>을 현대적 감각의 춤 언어로 재창작한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지난해 창단 40주년 기념작으로 초연된 '춤추는 영혼'은 생과 사,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과 사랑 이야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실의 제도, 관습, 운명관, 전쟁 등의 시련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환상적이고도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춤추는 영혼'은 간절한 사랑과 운명적 만남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현대인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 안무 및 구성/홍경희(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작품**
프롤로그-시간의 강
제 1장 운명적 만남
제 2장 무르익는 사랑
제 3장 전쟁과 이별
제 4장 인연의 환(環)
에필로그 - 인연의 강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창단 30주년 교류음악회

일 시 | 11월 20일 **목요일**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201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창단 30주년을 기념, 대전연정국악연주단과 함께 하는 교류음악회.

1부에서는 대전연정국악연주단의 임재원 지휘자의 지휘로 창과 국악관현악 '쑥대머리', 국악가요 '쑥대머리', 사랑가를 편곡한 창과 관현악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피리 부수석 김우영의 피리, 태평소 협연 무대, 2부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김철호 지휘자의 지휘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역대 우측곡 중 국악관현악 '가을의 기억', 소아쟁 협주곡 '아라성' 등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박한규(편곡)/국악관현악 '민요 오색타령'
이경섭/피리 · 태평소 협주곡 '바람의 유희'
창과 관현악/쑥대머리, 국악가요 '쑥대머리' 사랑가 (황호준 曲)
조원형/소아쟁 협주곡 '아라성'(2007년 위촉곡)
백규진/국악관현악 '가을의 기억'(2004년 위촉곡)
김재영/거문고 협주곡 '정읍사'
- 지휘/임재원 지휘자(1부), 김철호 지휘자(2부)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4회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해운대청소년오케스트라
 010-6677-5854



2000년 해운대지역 초·중·고등학생들로 창단 후 청소년들에게 음악적 정서 함양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매년 정기 연주회와 재능 나눔 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여러 연주회로 부산 시민들과 만나온 해운대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제 14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주페/경기병 서곡
- 사라사테/나바라 작품 33
- 어구스틴 라라/그라나다
- 아르디티/입맞춤
- 스비리도프/눈보라
- 지휘/정우영
- 바이올린/우소라, 심신지
- 소프라노/고예정 • 테너/조윤환

제46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원
 문 의 |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626-8081
 010-8918-1535

1996년 학연과 지연을 초월한 열린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이래 정기연주회와 찾아가는 음악회, 자선음악회, 시민을 위한 순회 야외음악회 등을 활발히 벌여온 부산의 대표적인 민간 교향악단 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 베토벤/교향곡 제1번 다단조
- 멘델스존/교향곡 제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 지휘/윤상운



제22회 부산플루트앙상블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의 대표적인 플루트 앙상블 단체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쳐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의 제22회 정기 연주회.

20여년동안 부산 지역의 관악계를 이끌어온 부산플루트앙상블은 부산플루트유스앙상블 등 청소년 음악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 출연/박찬엽, 장극태, 정옥경, 조진학, 김성은, 이진향, 길명훈, 강미경, 김하나, 장예지, 한유주



이혜진, 김여원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이혜진 010-4842-4844

한양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진,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여원이 펼치는 듀오 리사이틀.

고전, 낭만, 현대의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의 곡을 통해 각 시대별 음악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레클래어/바이올린소나타 제3번 라장조
- 프랑크/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V
- 생상스/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 프로코피예프/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장조 작품 94bis



2014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 아시아의 창(窓) 부산

일 시 |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0만원 · R석 7만원 · S석 5만원
 문 의 | KNN 850-9344, www.knn.co.kr
 BWPO www.bwpo.co.kr



유럽과 미국, 러시아 등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산, 경남 출신의 연주자들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의 2014년 무대 'The Classic - 아시아의 창(窓) 부산'.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부산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과 문화의 저변확대, 세계음악 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코리아 부산을 시작으로, 일본 도쿄,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아시아 5개 항구도시 오케스트라를 잇는 아시아 포트 시리즈로 대화합으로 상생하는 아시아를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타이베이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타이난 국립예술대학교 린 후이춘 교수가 2014년 BWPO의 악장을 맡아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고 지난해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악장을 역임한 우아한 음색의 바이올리니스트 양경아와 한국의 혼을 담아내는 국악인 나리가 협연자로 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무대를 빛내준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대한민국의 음률을 살린 한국적 현대곡 리체이 곡 '부산환상곡-Busan Fantasy'을 통해 부산에서부터 코리안 웨이브를 실현시킨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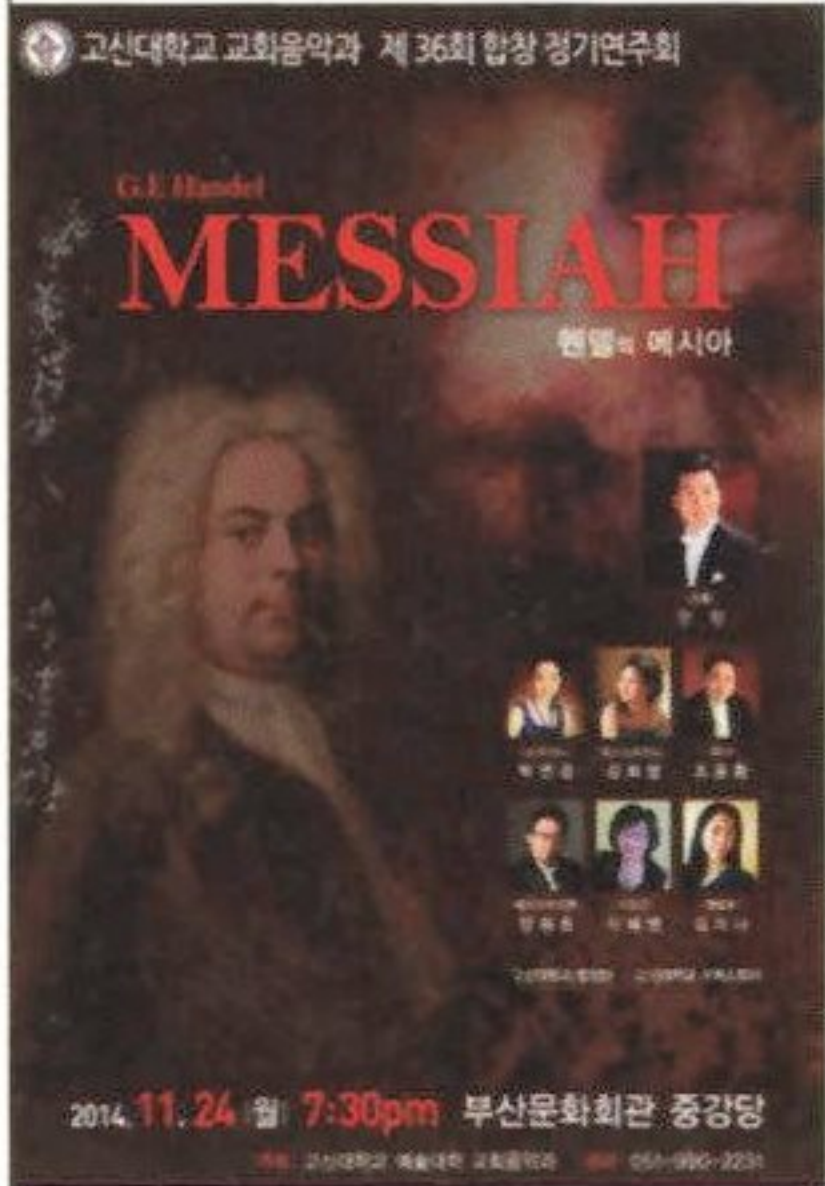
- 차이코프스키/슬라브 행진곡 작품31
- 리체이/바이올린과 해금을 위한 이중협주곡 '부산환상곡'
-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6번 작품74 '비창'
- 예술감독/오충근(지휘)
- 연주/부산월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BWPO)
- 협연/양경아(바이올린), 나리(해금)



프로그램
가이드

제36회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 정기연주회 헨델의 메시아

일 시 |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신대학교 990-2231



고신대학교 교회음악학과 교수와 재학생들이 들려주는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정기연주회.

올해는 헨델이 작곡한 세계 3대 오라트리오 중 하나인 '메시아'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의 하나로 꼽히며 종교음악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헨델의 메시아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예언과 탄생>은 전체적으로 맑고 온화함이 넘치고 제2부 예수의 <수난과 속죄>에서는 복음의 선포와 그 최후의 승리를 이야기한다. 바로 제2부 마지막에 유명한 할렐루야 코러스가 등장한다. 제3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굳은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영생의 찬미로 끝난다.

- 지휘/안민
- 소프라노/박연경
- 테너/조윤희
- 오르간/이혜영
- 메조소프라노/강희영
- 바리톤/양재원
- 챔발로/김미나

아리(A-ri) 앙상블 창단 콘서트 리드믹의 향연

일 시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강인경 010-6803-3886



부산의 신예 연주자들로 결성된 '아리(A-ri) 앙상블'의 창단연주회. 서양음악의 본고장 독일에서, 혹은 국내 대학원에서 각자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키워온 조나영(바이올린), 박웅(첼로), 강인경, 류상경, 장윤정, 조은주(이상 피아노)가 의욕적으로 결성한 아리(A-ri) 앙상블은 이번 창단연주회에서 20세기 현대음악을 통해 낯선 즐거움, 유쾌한 아카데미즘(academism)을 선사할 예정이다. '아리'는 우리말 '알이'에서 따온 말. 음악을 하기 위해서, 음악 때문에 앓는다는 의미로 이름 붙였다.

[프로그램]
리베르만/Gargoyler 작품29
미요/지붕위의 소(Le Bouef Sur Le Toit) 작품58
쇼스타코비치/피아노트리오 작품67

2014 부산대학교 효원음악회

일 시 |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10/27일(월)부터 11/7(금)까지 인터넷 <http://concert.pusan.ac.kr>으로 신청)
문 의 | 부산대학교 홍보실 510-1266

지역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문화와 예술, 아카데미즘의 사회적 공헌을 통해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이끌어온 부산대학교가 시민들을 위해 마련하는 2014년 부산대학교 효원음악회. 부산대 음악학과 박성완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합합창단이 연주한다.

- [프로그램]**
주페/경기병서곡
앤더슨/말과 마차
로시니/웰리엄텔
가요/사랑아 등 수곡
- 지휘/박성완(부산대학교 교수)
 - 출연/테너 김중희, 바이올리니스트 김동욱, 소프라노 박은주(이상 부산대학교 교수),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테너 이은민, 베이스-바리톤 조규희,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합합창단
 - 특별출연/더원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강학운 010-9287-6350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가곡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이 들려주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무대.

- [프로그램]**
김동진/신아리랑
김동환/그리운 마음
김연준/비가
최영섭/그리운 금강산
변훈/떠나가는 배

- 이수인/그리움, 내맘의 강물
토스티/이상 등 수곡
- 지도교수/테너 강학운
 - 출연/소프라노 박순희, 문준옥, 이숙정, 유옥희, 박혜정, 메조소프라노 강양옥, 테너 추석호, 양수배, 바리톤 황영상, 박인재, 조철호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일 시 | 11월 28일-30일 금-일요일
중극장, 대, 중 전시실
개막식 : 28일(금) 오후 3:00 **중극장**
폐막식 : 30일(일) 오후 4:0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



품격있는 문화예술도시 부산의 차문화 부흥을 위해 부산의 가을, 차향을 전하는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

현대인의 생활 속에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오는 차예절을 확산시키고, 차(茶)문화를 올바르게 전파하기 위해 마련되는 부산국제차어울림 문화제는 2005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는 부대행사로 처음 열린 후 차문화의 생활화와 차인구 저변 확대 등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정]
대전시실
(11월 28일~30일까지 10시 개장)
• 정인오 교수 세계 명차(강의, 시연, 품평회 다양한

- 프로그램 마련. 대전시실 메인 전시)
- 원행스님 소장 자사호전
 - 석창포
 - 향료(청, 송대)
 - 발달가마 달항아리
 - 10주년 기획 특별전 고려차 재현품 전시
 - 조정우 보석다완 석기전
 - 선고다인전

- 중전시실**
(11월 28일~30일까지, 10시 개장)
- 한국의 야생꽃차와 산야초 효소(여여스님)
 - 하카타 전통일본공예품전
 - 바늘과 명상 클래식 쿨트
 - 연필명상
 - 능인향당
 - 섬유공예
 - 찾자리 30팀

- 중극장**
- 개막식 /원행스님 고려사원 차 시현(11월 28일 오후 3시)
 - 원행스님 고려사원 차 강연(11월 29일 오후 3시)
 - 현대의식(11월 29일 1시~2시 30분)
 - 정인오 교수 세계명차 강의(11월 30일 오후 1시)

중앙광장 : 고목 솟대전시

부산시립합창단 제153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의 밤-시와 합창의 만남

일 시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 A석 7천원 · S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부산의 이야기를 담은 시와 그 시에 옷 입힌 선율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제153회 정기연주회 창작합창과 창작가곡으로 만나는 '창작합창의 밤-시와 합창의 만남'.

선용, 최연근, 배상호, 이말라, 한소자 등 5명의 시에 작곡자 백승태, 정승원, 최석태, 김종옥, 안일웅이 작곡한 창작곡을 들려주는 이번 무대에서는 영도 다리와 동백꽃, 대신공원, 오륙도, 오륜대 등 부산의 자연과 정서가 그대로 음악에 녹아있다.

프로그램

- 백승태/동백은 지금, 치마바위 이야기(선용 詩)
- 정승원/영도다리 연가, 생명-낙동강에 봄이 오면 (최연근 詩)
- 최석태/민물 꿈장어 사이소, 강서의 노래, 대신공원(배상호 詩)
- 김종옥/동백섬에서, 오륜대 호반에 가면(이말라 詩)
- 안일웅/다섯 섬이, 여섯 섬이 오륙도(한소자 詩)
- 지휘/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특별출연/테너 장원상(경성대학교 교수)
- 특별연주/박용갑, 김자연(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일 시 |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 S석 1만5천원 · A석 1만원 ·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4

2014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교향곡, 교향시, 오페라, 리트 등 다양한 장르에서 두루 뛰어난 거장인 데다 세계 최고의 음악 축제로 손꼽히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창시한 삼총사 중 한사람이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는 이국적인 동방의 선율로 시작하여 유럽의 왈츠 선율이 절묘하게 고조되면서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 내는 '살로메의 춤'을 비롯해 '4개의 마지막 노래 작품150' 교향시 '죽음과 변용'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R. 슈트라우스/살로메의 춤, 4개의 마지막 노래 작품150
- R. 슈트라우스/교향시 '죽음과 변용' 작품24
- R. 슈트라우스/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 작품28
- 지휘/리 신차오
- 소프라노/슈 레이

토요상설무대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4:00(29일 공연 없음)

소극장

입장료 | 선착순 무료

(공연 30분 전 입장, 미취학 아동 입장 불가)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11월 1일

부산시립교향악단 금관5중주

...

프로그램

- Just a Closer Walk
- 허버트 '허브' 앨퍼트/티후아나 택시
- 몬티/차르다시
- 가요/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사랑은 로저스/사운드 오브 뮤직 중 '도레미'
- 가너/안개 짙은
- 시벨리우스/핀란드아
- 연주/금관5중주 Trumpet I. 김용건, Trumpet II. 박승훈, Horn. 안혜빈, Trombone. 박동혁, Tuba. 조상혁, Set Drum. 이희정

11월 15일

부산시립합창단 연주회

...

프로그램

- 오페라 합창/마스카니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 나' 중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 '대장간의 합창'
- 여성 아리아 듀오/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2중창'
- 미국민요/오 수잔나
- 여성 아리아/푸치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혼성합창/버리디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등 수곡
- 지휘/박광하
- 반주/이승윤



11월 8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현악4중주

...

프로그램

- 모차르트/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전악장)
- 쇼팽/아상곡 제20번 올림다단조 유작
- 윌리엄스/산들러 리스트 주제곡
- 김효근/내 영혼 바람되어
- 쇼스타코비치/재즈 오케스트라 모음곡 제2번 중 '왈츠 II'
- 피아졸라/리베르 탱고
- 몬티/차르다시
- 연주/현악4중주 Violin I. 배아름, Violin II. 권순지, Viola. 성정인, Cello. 김동미, 객원 Piano. 전형진



11월 22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

프로그램

- 수제천(집박/채수만 · 소금/손한별 · 대금/강은주, 이만형, 황두호 · 피리/김용우, 권미정, 박순자)
- 해금/최윤정, 윤해승, 한지연 · 아쟁/권혜정, 최희정 · 장구/이장우 · 좌고/이경희)
- 해금산조 '지영희 류'(해금/강민정 · 장구/박재현)
- 천년만세(대금/김수일 · 피리/박영은 · 해금/최윤희 · 단소/조은경 · 양금/장미진 · 가야금/옥경화 · 거문고/송다솔 · 장구/이장우)
- 판소리(판소리/정선희 · 고수/송강수)
- 시나위(대금/한영길 · 피리/김경수 · 해금/김소현 · 아쟁/홍영혜 · 가야금/정미자 · 거문고/이대하 · 장구/전학수 · 징/장미진)
- 태평소와 사물놀이(태평소/진형준 · 팽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이경희 · 북/박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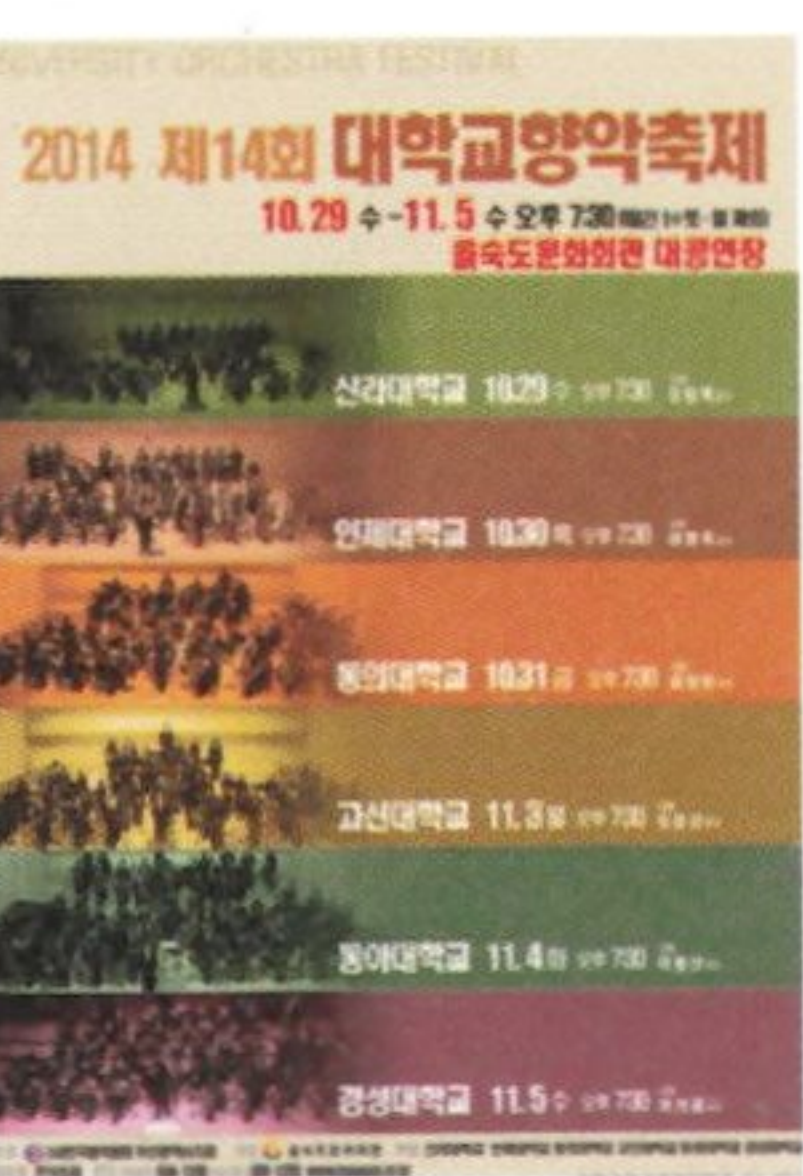


음악

제14회 대학교향악축제

일 시 | 10월 29일(수)-11월 5일(수)
오후 7:30(주말 공연 없음)
울속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05, 5812~3



부산지역 6개 대학교 음악학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오케스트라가 참가하는 제14회 대학교향악축제.

일정
10/29일(수) 신라대학교 (지휘/오창록)
10/30일(목) 인제대학교 (지휘/이병욱)
10/31일(금) 동의대학교

(지휘/윤상운)
11/3일(월) 고신대학교(지휘/오충근)
11/4일(화) 동아대학교(지휘/이동신)
11/5일(수)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11월 1일(토), 22일(토)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음악애호가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1일 더 콰르텟(The Quartet)

바이올리니스트 김나영, 이명한, 비올리스트 윤솔샘, 첼리스트 박예리나로 구성된 '더 콰르텟'의 무대.

|프로그램|
이자이/트리오 소나타
베토벤/트리오 작품 8 세레나데
멘델스존/현악사중주 작품 80



22일 11월愛...3인 3색 연주회

러시아 글링카 국립음악원 학사 및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은탁과 서울대학교 성악과, 이태리 노바라국립음악원을 수석졸업한 테너 임종진, 피아니스트 성아람이 함께하는 3인 3색 무대.

|프로그램|
프로코피에프/5개의 멜로디
마스네/타이스의 명상곡
슈만/아베크 변주곡 작품 1
김연준/청산에 살리라
이수인/내맘의 강물
도니제티/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흘리는 눈물' 등 수곡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 세번째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일 일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
010-5355-4833



아쟁산조의 창시자인 한일섭 선생의 1대 제자로, 지난 2009년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은 아쟁의 대가 박대성 선생의 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박대성류 아쟁산조보존회의 3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기존의 박대성류 아쟁산조를 고음 소아쟁, 가야금, 중음소아쟁, 대아쟁 등 파트별로 나누어 들려주면서 박대성류 아쟁산조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프로그램|
김용실/거문고 합주를 위한 '기상곡'
박대성류 아쟁산조 합주
판소리 '춘향가' 중 '어서출두 대목'
장은교/아쟁창작곡 'Valhalla' 등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1

4일 가야금 명인 신명숙, 興來今日盡君歡(흥래금일진군환)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있는 가야금 명인 신명숙 선생의 무대. 신명숙은 전국무용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제6회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KBS 국악대상, 제6회 동래구 애향대상 예술부문, 제42회 부산문화상 공연예술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와 구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주제에 의한 25현가야금 이중주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11일 배민지의 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경상대학교 민속무용학과와 중국 사천대학교 무용과

를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정단원으로 있는 배민지의 춤. 배민지는 제32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동초수건춤, 춘앵전, 산조춤, 북춤, 태평무, 살풀이춤, 설장고춤

18일 관현맹인전통예술단과 함께하는 변종혁 해금독주회



해금합주단 '이현의 사랑' 대표,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관현맹인전통예술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해금주자 변종혁 독주회.

|프로그램|
천년만세, 여창가곡 '계락', 수룡음,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 서용석류 해금산조, 설장구합주 '울림', 해금과 피아노를 위한 2중주 '적념'

25일 최연형의 궁중정재III '니를 낮춰, 올리는 춤 정재'

한성대학교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지도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전수자로 있는 춤꾼 최연형의 무대.

|프로그램|
춘앵전, 무고, 가사 '백구사', 첨수무, 무산향, 시창 '십이간간 벽옥대', 처용무

Program Guide >>

정주연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예고 졸업 후 도미, 미국 맨하튼 예비학교를 거쳐 듀케인 대학에서 학사, 석사과정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정주연 독주회. 매년 독주회를 통해 음악적 기량과 활동 영역을 넓혀 온 정주연은 현재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종합 콘서바토리,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에 출강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함부르크 소나타
 B. Godard/Suite of three piece
 게리 쇼커/에어본
 슈베르트/'시든꽃' 주제에 의한 변주곡
 •피아노/김승환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5일 부부음악회



테너 이철성-소프라노 김정아, 테너 장진규-피아니스트 양광기, 바리톤 지광윤-비올리스트 김송이 등 세 쌍의 부부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프로그램
 쇼팽/녹턴 내림마장조 작품 9 제2번
 모차르트/오페라 '돈지오반니' 중 '카탈로그의 노래'
 카치니/아베마리아
 브람스/기슴 깊이 간직한 동경 등 수곡

12일 김민주, 최영민 듀오 리사이틀

(재)대구오페라하우스 D100오케스트라 단원, 서울 강북 평강교회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주와 칸타빌레앙상블 피아니스트, Tool Music Ent.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중인 피아니스트 최영민이 함께하는 듀오 무대.

19일 IF Flute Ensemble 'IF & Autumn'

지난 2012년 8월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와 졸업생들로 창단, 그동안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IF Flute Ensemble의 무대.

- 음악감독, 리더/오신정(인제대학교 교수)
- 연주/이승호, 박찬엽, 김동욱, 김혜미, 차민경, 정미라, 유혜성, 공주리, 황민지, 김재한, 류현욱, 정수진, 이지영, 양재관, 조혜영, 박은주

26일 러시아음악연구회 '러시아 로망스와 아리아의 밤'



러시아의 국립음악대학에서 수학한 부산의 음악인들로 결성된 러시아음악연구회의 무대. 러시아음악연구회는 올해 2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러시아 음악을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 베이스/박기범
- 소프라노/조희정, 허영은, 노미숙
- 피아노/김유진, 고영주
- 특별출연/라온소년소녀합창단

진민진 두 번째 아쟁독주회 '궤적'

일 시 |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시당
 입장료 | 초대
 문 의 | 진민진 010-2559-0428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단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이수자,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전수장학생으로 있는 아쟁 연주자 진민진의 두 번째 독주회. 첫 독주회를 통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옛 음악듣기 프로젝트'를 시도

해 호평을 받은 진민진은 이번 무대에서도 민속음악의 백미인 산조의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보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현대와 가장 근접한 박대성류 아쟁산조를 시작으로 그의 스승이자 아쟁산조의 효시인 한일섭의 아쟁산조와 산조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봉장취, 민속음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굿 가운데 예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진도씻김굿을 들려준다.

- 해설/조태원(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 특별출연/박환영(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이수자, 부산대학교 교수)

아트뱅크코리아 15주년 기념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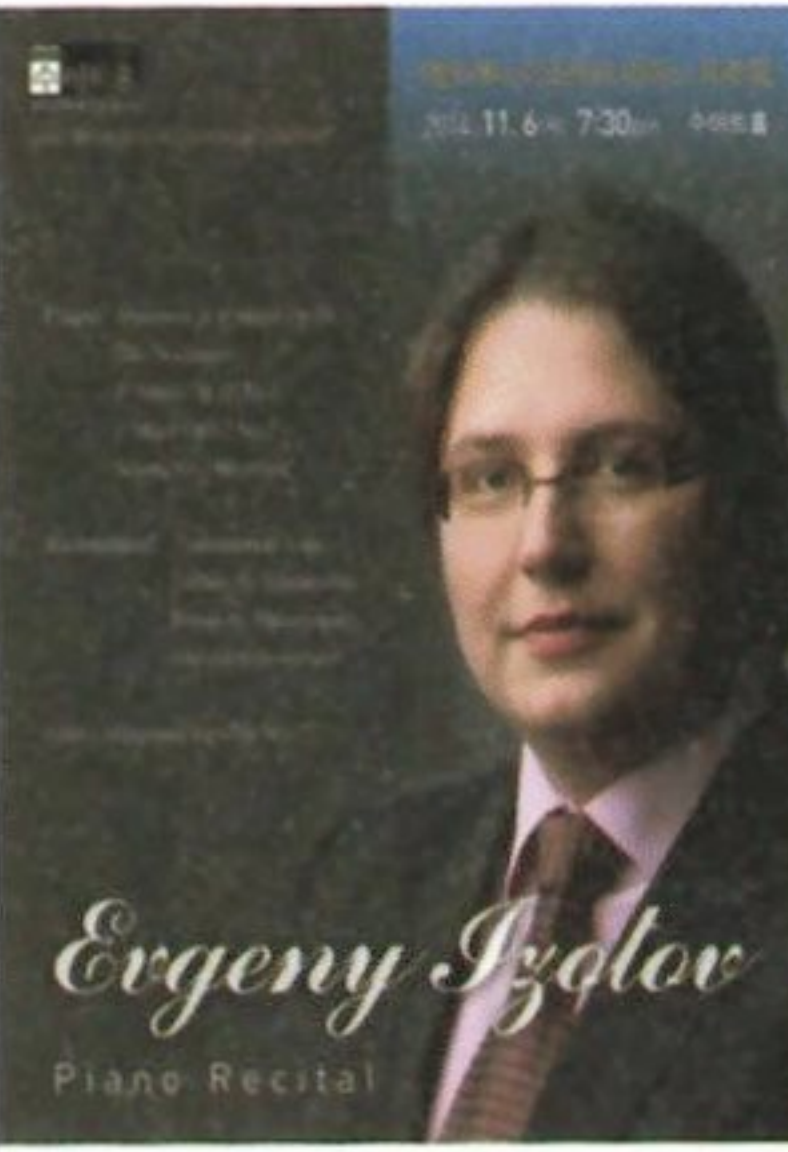
Richard Strauss, 1864 ~1949
 일 시 |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올해로 탄생 150주년을 맞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대표곡들을 만날 수 있는 슈트라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세 번째 무대. 평소에 잘 접할 수 없는 슈트라우스의 실내악곡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 Soliall 오케스트라 악장, 벨루스 콰르텟 리더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고진영, Soliall 오케스트라 수석, 벨루스 콰르텟 단원 비올리스트 김신희, 화음챔버오케스트라, Trio K 단원인 첼리스트 김연진, 부산교대, 동의대, 부산예중고에 출강중인 피아니스트 성민주, ento Chamber Society 단원인 피아니스트 박정희가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예프게니 이조토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6일 목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수아트홀 744-1415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프랑스 에콜 노르말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현재 신라대학교 교수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예프게니 이조토프 피아노 독주회. 예프게니 이조토프는 이탈리아 국제피아노콩쿠르 'Lake Como' 1등상, 루마니아 국제피아노콩쿠르 'George Enescu' 2등상 등을 수상하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팽/즉흥곡 올림바장조 작품 36
 라흐마니노프/Transcription:Lilac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12번

프로그램
가이드

Space UM '차가 있는 음악회'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복합문화공간 Space UM이 매주 목요일 저녁 마련하는 '차가 있는 음악회' 11월 무대.

6일 더 뮤:즈 '이별 Der Abschied'



첼리스트 문숙연, 바이올리니스트 강고은, 피아니스트 박은정 등 부산예고 선배들로 결성된 '더 뮤:즈' 초청무대.

2013년 4월 창립연주를 가진 후 다양한 무대에서 온 '더 뮤:즈'는 현대음악을 비롯한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과 함께 관객에게 보다 친근한 연주를 들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일 더블리드앙상블 '피아노, 잉글리쉬 호른 그리고 다섯 개의 오보에'

오보이스트 류재환, 김미영, 이승희, 박선영, 하현정과 피아니스트 정민정이 들려주는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코렐리/소나타
라벨/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푸치니/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전주곡 등

20일 렉처 리사이틀 '고독한 예술가의 추억, 차이코프스키'

피아니스트 김진희의 해설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세계로 떠나는 렉처 콘서트.

|프로그램|
로망스 바단조 작품 5, 6개의 소곡 작품 19 제4번, 사계 작품 37b 중 뱃노래, 가을 노래, 트로이카, 크리스마스, 백조의 호수, 달콤한 꿈 등 수곡

• 연주/강대현, 강정아, 박선아, 송승이, 신윤석, 윤현정, 이미진, 임소영, 임주영, 정지혜, 진준영

27일 현악&플룻&기타, 감동이 있는 그 아름다운 만남

바이올리니스트 이장호, 홍기정, 비올리스트 박소영, 첼리스트 우리라, 플루티스트 김영,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이 함께하는 감동이 있는 앙상블의 밤.

|프로그램|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이든/십자가상의 칠연 등

2014 풍류전통예술원 정기공연 동해바다 거칠산 2

일 시 | 11월 7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풍류전통예술원 010-2781-3888

지난 1999년 3월, 동해안별신굿의 무속음악과 경상도 지역의 토속적인 풍물의 원형과 맛을 구현하고자 창단한 풍류전통예술원의 2014년 정기공연.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부정굿을 시작으로 동해안별신굿의 독특한 타법을 이용한 팽과리 연주곡 자브라갱, 초망지긋의 양식을 얹은반사물놀이 형식으로 만든 청배2, 우도 선반설장구, 비나리, 판굿 등을 선보인다.

• 출연/박종환, 이정현, 권용우, 최선희, 정동훈, 김구대, 홍효진, 어성범, 박정원, 전상오, 이정환



2015 제10회 부산국제음악제 기념 프레콘서트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회 (32피아니스트 in 부산)

일 시 | 11월 7일(금)~15일(토)
오후 7:30(일요일 공연 없음)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0-5833



2015년 국내 유일의 민간 주도 국제축제인 부산국제음악제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마련하는 프레콘서트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회'.

영화의전당과 부산아트매니지먼트가 주최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의 음악가들을 집중 조명하는 자리로, 학

연, 자연 중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산에서 오랫동안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부산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32인을 선정, 총 8일동안 베토벤 불멸의 피아노 소나타 전곡이 연주된다.

특히 이번 '베토벤 소나타 전곡연주회'는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피아노 소나타 '월광' '열정' '비창'에서부터 잘 연주되지 않는 곡들까지 피아노 음악 가운

데 가장 방대하고도 위대한 유산이라 할 수 있는 베토벤의 32개 소나타 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이다.

- |일정|**
7일(금) 소나타 제 1, 2, 3, 4번
• 연주/김은주, 홍유리, 김정화, 김해옥
8일(토) 소나타 제 5, 6, 7, 8번
• 연주/김진희, 김미현, 김민정, 박필은
10일(월) 소나타 제 9, 10, 11, 12번
• 연주/정광민, 서혜원, 김혜린, 김선영
12일(수) 소나타 제 17, 18, 19, 20, 21번
• 연주/황정미, 최지은, 김문주, 김경출
13일(목) 소나타 제 22, 23, 24, 25, 26번
• 연주/송지은, 강남길, 하승경, 장효진, 권혜령
14일(금) 소나타 제 27, 28, 29번
• 연주/정안선, 원영아, 권영준
15일(토) 소나타 제 30, 31, 32번
• 연주/심경숙, 노은주, 정문정

2014년 제20회 우리가락 다스름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8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우리가락 다스름 010-5506-0735



지난 1992년 금정근로청 소년회관이 주관한 대금, 단소 강습반 수료생들로 결성된 우리가락 다스름의 2014년 정기연주회.

우리가락 다스름은 그동안 19차례 정기연주회를 비롯 부산문화회관 토요일 상설 무대, 청송교도소 재소자 위안공연, 서면문화예술

축제, 부산생활음악축제, 부산문화회관 주관 찾아 가는 문화활동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우리가락의 신명을 관객들에게 전해왔다.

|프로그램|
정악 '함녕지곡',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실내악 '어울림을 위한 아리랑풀이', 국악가요 '봄비에게', '꽃분네야', '에고 도솔천아', 국악관현악 '원장현류 대금산조 협주곡',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 국악관현악 '방황'

• 회장/이창렬 • 진행/이호연

Program Guide >>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 시즌 'Festival'

일 시 | 11월 9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인호 010-4554-77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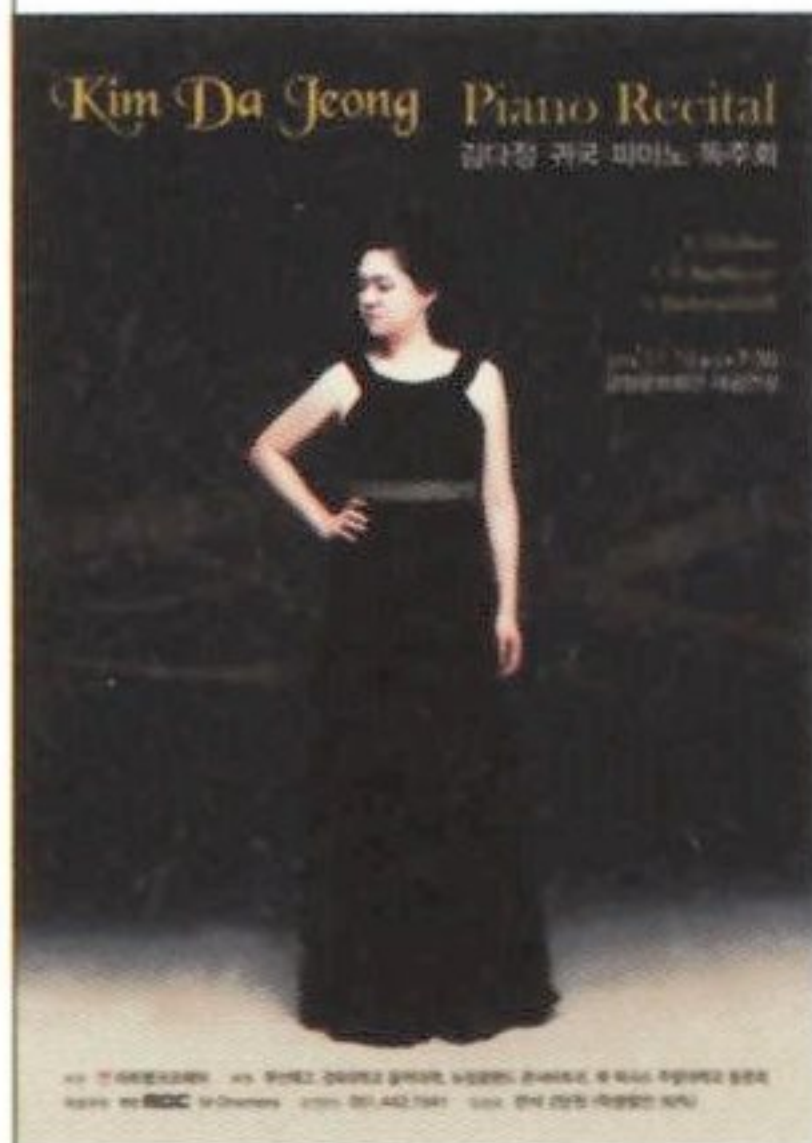
현재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15명의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된 플루트오케스트라 '솔로이스츠 플루트콰이어'의 무대. 피콜로에서부터 콘서트플루트, 알토플루트, 베이스 플루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플루트가 빛어내는 플루트오케스트라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프로그램]
 성조기여 영원하라(수자 곡), 아이들의 유희(비제 곡), 지금 이 순간, 영화 '마이 페어 레이디' 중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축배의 노래, 맘미아 OST, 클래식 모음곡(후크 편곡) 등

- 음악감독 겸 지휘/김인호
- 협연/테너 박창준(성남시립합창단 수석단원) 소프라노 구민영
- 특별출연/피아노 최영민, 드럼 박아론

김다정 귀국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



화려한 테크닉과 깊이 있는 음악적 해석을 지닌 피아니스트 김다정 귀국 독주회. 경희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2006년 도미,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석사학위를, 북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피아노 연주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다정은 그동안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 한국원로교향악단 콩쿠르, 경희대학교 콘체르토 장학콩쿠르에서 입상해 음악적 기량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슈베르트/방랑자 환타지 다장조 D.760 작품 15
 베토벤/소나타 제31번 내림가장조 작품 110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010-4568-3370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카메라타 부산 단원으로 있는 비올리스트 성정인,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 있는 첼리스트 박준현 등 부산예술고등학교 선, 후배 동문들로 결성된 클레다 현악사중주단 정기연주회. 클레다 현악사중주단은 'Classic never dies! 클래식은 죽지 않는다'라는 모토로, 자극적인 전자음과 화려한 조명에 지쳐 있는 청중의 귀와 눈을 순수 음악으로 되돌리고자 모인 젊은 앙상블이다.

[프로그램]
 베토벤/현악사중주 작품 18 제3번 라장조 피아졸라/Four for Tango 등

라 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라 무지카 앙상블 010-4560-5322

바이올리니스트 황지원, 우소라, 비올리스트 이성호, 첼리스트 김판수, 피아니스트 이진성으로 결성된 라 무지카 앙상블 정기연주회. '어렵지 않은 클래식 음악'을 모토로 연주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흥미로운 음악회를 꾸준히 가져온 라 무지카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해설과 함께 실내악 앙상블로 들려준다.

- 해설/황지원
- 게스트/김동욱(플루트, 창원시립교향악단 수석), 조정현(오보에)



제30회 동래문화회관 숲속의 열린음악회 '노래'

일 시 |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클래식과 국악, 락을 아우르는 크로스오버 무대를 선보여온 '토다' 초청 무대. 지난 2007년 동의대학교 교수이자 작곡가인 이기녕 교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토다'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공의 소리가 어우러진 독특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 작곡/이기녕
- 연주/진형준(피리), 윤학성(드럼), 정우진(베이스 기타), 신영미(보이스), 김혜진(바이올린), 이상(보컬), 이원주(기타), 최호선(전자음향), 이다혜(보컬), 조유진(보컬), 이유라(해금)



2014 MiOT 우리시대음악 제17회 정기연주회 우리시대 음악 '어제와 오늘' II

일 시 |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강순희 701-1584, 010-6566-1584

1997년 작곡가 강순희를 주축으로 현대음악을 연구하고 알려진 MiOT(Music in Our Time · 우리시대음악)의 17번째 무대. 현대음악의 '어제'를 세계2차대전 이전으로 구분해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곡가이자 20세기 음악을 이끌었던 작곡가 메시앙의 '세상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우리시대음악 '오늘'에서는 이번 무대를 위해 위촉한 경성대학교 김중욱 교수의 '피아노를 위한 여정'과 인제대학교 오세일 교수의 '관계Ⅲ : 두대의 버순을 위한 중얼거림'을 들려준다.

- 예술감독/강순희



프로그램
가이드

제1163회 MBC목요음악회
'피아노가 있는 실내악풍경'

일 시 | 11월 13일 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비루투오조앙상블 890-1318



부산을 대표하는 실내악 연주단체로 사랑받고 있는 비루투오조앙상블 초청 제1163회 MBC목요음악회.

1995년 동의대학교 백재진 교수를 주축으로 창단된 후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비루투오조 앙상블은 이번 무대에서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체코의 국민 작곡가 스메타나 피아노 트리오와 독일 낭만파 음악의 정점에 있는 브람스 피아노 4중주를 비롯해 후기 낭만파의 마지막 불꽃을 잇는 벨기에의 천재 요절 작곡가 르코의 피아노 4중주곡을 부산에서 초연한다.

•연주/바이올리니스트 백재진, 김세준, 김도경, 비올리스트 김은진, 김민경, 첼리스트 정준수, 문주원, 배성아, 피아니스트 김소형, 김미현, 성민주

앙상블 아리(A-ri) 창단 예비콘서트
낮선 즐거움으로의 초대

일 시 | 11월 13일 목요일 오후 7:00
음악풍경 연주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음악풍경 987-5005



'음악으로 행복한 세상을!'을 꿈꾸는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이 마련하는 토크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조나영, 첼리스트 박웅, 피아니스트 강인경, 류상경, 장윤정, 조은주 등 부산의 신예 연주자들로 결성된 젊은 실내악단 '앙상블 아리(A-ri)'의 무대가 펼쳐진다.

우리말 '얹이'에서 이름을 가져온 앙상블 아리(A-ri)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음악 때문에 앓는다는 뜻으로, 앓음을 통해 음악적으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남을 의미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리베르만, 미요, 쇼스타코비치 등 20세기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황의종의 치유음악

일 시 |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1만원
문의 | 황의종 510-1739, 010-2448-0823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로 있는 작곡가 황의종의 창작국악 무대.

1985년 부산에서 처음으로 국악 작곡발표회를 가진 후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황의종은 제2회, 제7회 대한민국 작곡상, 제3회 부산상공회의소 예술대상, 1996년 KBS 국

악대상 작곡상 등을 수상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황의종 특유의 서정적인 선율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친숙하면서도 진부하지 않고 새로우면서도 생경하지 않은 음악세계를 펼친다.

|프로그램|

천년만세 변주곡(정악 가야금/정하린, 25현 가야금/김미나, 전민경)
꽃잎 인연(25현 가야금/안숙현, 한지우, 조설리)
사랑은 깊은 하늘(노래/최윤영, 대금/손한별, 거문고/전현진) 등

테너 김현식 독창회
그대 있음에

일 시 |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김현식 010-3566-4172



부산대학교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베를린 국립음대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김현식 독창회.

그동안 7차례 독창회를 통해 학구적인 무대를 가져온 김현식은 이번 무대에서 우리 정서가 담긴 아름다운 쇠구에 곡을 붙인 한 국가곡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프로그램|

이수인/고향의 노래(김재호 詩)
박명주/마을(조지훈 詩)
김동진/소리(박목월 詩)
임금수/강 건너 봄이 오듯(송길자 詩)
김순애/그대 있음에(김남조 詩)
김애경/그대에게 가는 길(박수진 詩) 등 수곡
•피아노/박정호

을숙도 명품콘서트
Evgeny Izotov & Kit Armstrong

일 시 |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8:00,
15일 토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14일 예브게니 이조토프 '쇼팽 & 라흐마니노프'

2013년 G20 세계정상회담 특별 독주자이자 현 신라대학교 교수인 피아니스트 예브게니 이조토프와 함께하는 제36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과 프랑스 예콜 노르말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예브게니 이조토프는

이탈리아 국제피아노콩쿠르 'Lake Como' 1등상, 루마니아 국제피아노콩쿠르 'George Enescu' 2등상, 포르투갈 세르난시엘리 국제콩쿠르, 프랑스 미쉬쉴렌 국제콩쿠르 1등상 등을 수상하며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조토프는 음악원 재학 중 이미 러시아, 유럽, 일본, 한국, 브라질 등 해외 순회연주회를 가졌으며, 그동안 세계 주요 공연장과 해외 페스티벌, 세계 유

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무대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5년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 쇼팽협회 멤버로 활동 중인 이조토프는 이번 무대에서 쇼팽과 러시아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쇼팽/즉흥곡 올림바장조 작품 36
쇼팽/녹턴 올림바장조 작품 15 제1번
라흐마니노프/소나타 제2번 내림나단조 등

15일 킷 암스트롱 'Bach & Mozart & Beethoven'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알프레드 브렌델이 '전에도 만나보지 못한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극찬한 '21세기 피아노 신동' 킷 암스트롱과 함께하는 제37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오늘날 클래식계에 가장 경이로운 인물로 꼽히는 21세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킷 암스트롱은 5세에 피아노를 시작해 커티스음악원, 영국왕립음악원에서 음악수업을 받았으며, 13세에 알프레드 브렌델과 만나 지금까지 사제지간으로 지내고 있다. 독주자로, 협연자로, 열정적인 실내악 연주자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가져온 킷 암스트롱은 모턴굴드 젊은 작곡가상을 수상, 작곡가로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프로그램|

바흐/파르티타 제1번 내림나장조 BWV 825
모차르트/론도 제3번 가단조 K.511
베토벤/소나타 제28번 가장조 작품 101 등 수곡
•예술감독/김원명

Program Guide >>

바리톤 오세민 귀국 독창회

일 시 |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오세민 010-2330-0994

...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공연예술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이태리 밀라노 시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성악, 합창지휘 최고연주자 Diploma), 밀라노 G. Donizetti 시립음악원(오페라, 뮤지컬 음악 연구

Diploma)과 루마니아 Accademia Teatro di Timisoara(오페라 연주자과정 Diploma)를 졸업한 바리톤 오세민의 귀국 독창회.

오세민은 이태리 밀라노 현대음악 국제콩쿠르, 프랑스 마스네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 오세민은 영미가곡, 이탈리아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정난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유정, 배우 양지웅

두실수피아관현악단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황남용 010-8007-8087

...



두실초등학교 재학생들로 결성된 두실수피아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두실수피아관현악단은 지난 2011년 창단 후 두실솔바람 음악회, 부산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축제, 부산시 초등학교 꿈나무 음악회, 두실문화예술축제, 찾아가는 마을 음악회, 부산 학생오케스트라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모차르트/장난감 교향곡
- 드보르작/유모레스크
- 피아졸라/리베르탱고
- 브람스/헝가리 무곡
- 베토벤/교향곡 제5번 '운명' 등 수곡
- 협연/두실소리합창단
- 특별출연/두실어머니합창단

권혜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권혜진 010-4864-5263

...



신라대학교 음악학과와 부산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유학, France École Nationale de Musique de Gennevilliers, É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권혜진 독주회.

2011년 귀국 후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권혜진은 귀국독주회를 비롯해 인플루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부산음악협회 '그랜드 페스티벌', 금정수요음악회, 부산듀오협회, 부산연주가클럽 정기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권혜진은 현재 동부산대학교와 브니엘 국제예술중학교에 출강 중이다.

프로그램

- 슈베르트/즉흥곡 작품 90 D.899
- 슈만/카니발 작품 9

부산성악아카데미 정기연주회 오페라 아리아와 중창의 밤

일 시 |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성악아카데미 010-7767-4390

...

다양한 연주와 교육, 학술활동을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해온 부산성악아카데미의 2014년 정기연주회. 1987년 미국, 유럽에서 음악수업을 마치고 귀국한 성악인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부산성악아카데미는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가곡과 아리아의 밤, 영·호남 교류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열어왔다. 우리 귀에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소프라노/박현진, 백현영, 정혜리, 김유진, 박지인, 노미숙, 박현정
- 테너/김성배, 양승엽, 이흥득
- 바리톤/김기환, 안상철, 김길수
- 베이스/김정대, 이상철, 박기범



허유진 대금 독주회 확장하는 시선

일 시 |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허유진 010-3701-9232

...



현재 국립부산국악원 연주단 단원, 대금연구회 회원,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 중요제례악 이수자로 활동하면서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바탕으로 대금의 현대화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대금주자 허유진 독주회.

추계예술대학교 국악과와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허유진은 제22회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대금부문 금상, 제2회 대한민국 여성 전통음악콩쿠르 일반부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확장하는 시선'이라는 부제가 달린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시선으로의 확장을 통해 대금의 음악어법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고, 나아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다양한 정체성을 기반하는 음악을 들려준다.

- 거문고/박혜신
- 클라리넷/김규현
- 첼로/이가은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제10회 정기연주회 꿈과 사랑이 있는 우리가락 음악회

일 시 |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0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010-3619-6448

...

우리음악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1993년 창단 후 전통음악의 기반 위에서 우리 음악의 나아갈 바를 연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음악관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교사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정기연주회를 비롯 제1회 민음과 함께하는 우리 음악 느끼기, 여름방학 교과서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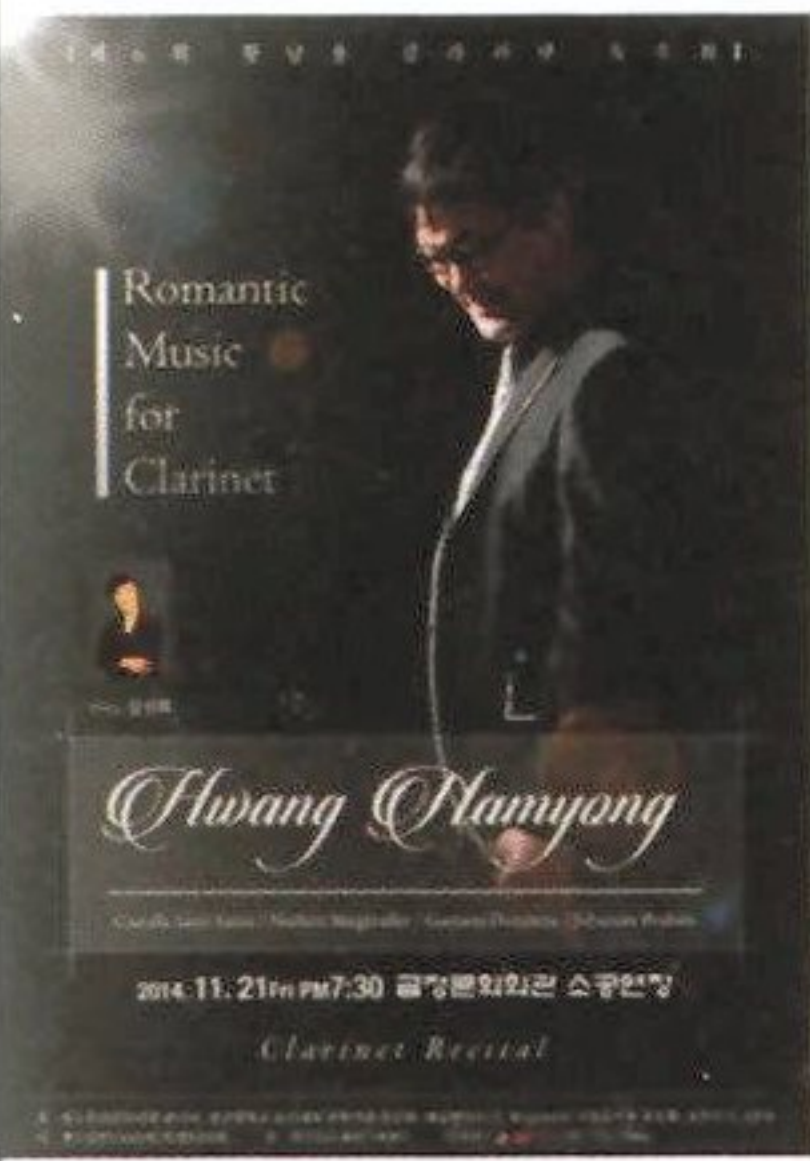
- 지휘/조익래
- 객원연주/조위현(해금), 이초희(가야금), 신아진(거문고), 박재현(장구)
- 협연/김현정(가야금병창), 남문합창단(지도/배수정)



프로그램
가이드

제6회 황남용 클라리넷 독주회 Romantic music for Clarinet

일 시 |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황남용 010-8007-8087



영남대학교와 독일 Wuppertal Musik Hochschule를 졸업하고 현재 부산클라리넷콰이어 악장,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아르고 윈드오케스트라 악장, 플레이어즈 벅(Players Becs) 멤버, 예술법인 T.I.F 이사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황남용 독주회.

독일 유학시절 음악적 역량을 넓히기 위해 Karl Leister, Nobeit Kaiser 등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마스터 클래스에도 참가했던 황남용은 2004년 귀국 후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 생상/소나타 작품 167
- 부르그뮐러/듀오 작품 15
- 브람스/소나타 작품 120 제2번 등

제3회 수아트홀 한국가곡전

일 시 | 11월 21일 금요일 오후 7:30
수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수아트홀 744-1415



2012년 5월 개관 후 연주자와 청중이 가까워서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가져온 해운대 수아트홀이 마련한 '한국가곡전' 세번째 무대. 일제강점기 일본의 이식된 서양음악을 수용하면서 탄생된 한국가곡의 어제를 되돌아보고 시대별 특징과 그 시대 명곡을 통해 한국가곡

사를 되짚어보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시하, 조희정, 테너 김기형, 바리톤 시영민, 안세범 등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악가들이 출연, 다양한 한국가곡을 들려준다.

- 반주/수양상블(피아노 고영주, 바이올린 금성빈, 첼로 이지수)

이효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이효연 010-4800-6224



감각적인 음악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이효연 귀국 독주회.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독일 프란츠 리스트 바이마르 국립음대에서 학사, 석사과정과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한 이효연은 독일 유학 당시 이탈리아 필라델피아 국제콩쿠르 피아노부문 2위, 비에트리 솔마레 피아노 국제콩쿠르 입상, 코라토 피아노국제콩쿠르 3위, 이탈리아 바리 'EurOrchestra Nuovi Interpreti premio EurOrchestra AIOS' 피아노부문 1위와 전체 대상을 수상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모차르트/클라이비어 소나타 제10번 다장조 KV.330
히나스테라/크리올라족의 춤 모음곡
슈만/빈 사육제의 어릿광대 작품 26

소프라노 윤선기 독창회

일 시 | 11월 24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윤선기 010-7513-5121



부산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트로센엔 국립음대 성악과 전문연주자과정을 최고 연주자과정을 만장일치로 졸업하고 현재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소프라노 윤선기 독창회.

독일 켐니츠 시립오페라극장 단원, 독일 국영 에이전시 ZAV 소속가수로 오페라 뿐만 아니라 독일 Tuttligen 시립미술관 개관 기념 초청 독창회, 독일 Villingen, Trossingen시 주최 '브로드웨이의 불빛' 뮤지컬 갈라 음악회, 휴고 볼프 서거 100주년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윤선기는 독일 Paula und Albert Salomon Stiftung 현대음악 가곡 부문 장학생 선발, Justus-Hermann-Wetzel Stiftung 성악-피아노 듀오 부문 콩쿠르 우승아고, 독일 현대모노오페라 '에곤 과 에밀리' 주역으로 출연하는 등 현대음악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왔다.

- 피아노/Clemens Müller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뉴프라임 후 브라스 콰이어

일 시 |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수험생 및 가족들 무료, 수험표 지참)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지난 2011년 창단 후 다양한 무대에 서온 '후' 브라스 콰이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수험생들을 위해 마련하는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 바람을 부르면 소리가 난다는 의미에서 바람소리 '후'를 팀 이름으로 한 '후' 브라스 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행진곡의 왕'이라 불리는 수자의 행진곡 '티 Capitan' 등 화려한 금관 앙상블을 들려준다.

- 협연/조용운(마림바), 홍은지(바이올린)
- 연주/김동현, 전상운, 최수용, 박승훈, 김용건(트럼펫), 김영민, 박용인(호른), 이용우, 최민재, 김성재(트럼본), 신광호(베이스 트럼본), 김기울(튜바), 조용운, 양진일(퍼쿠션)



오페라 갈라 콘서트

일 시 | 11월 26일 수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오페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행복한 선물, 국립 오페라단 '오페라 갈라 콘서트'. 슈트라우스 오페레타 '박쥐' 서곡을 시작으로 셰익스피어의 탄생 450주년을 맞아 구노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비롯해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페라 '돈조반니'와 2012~13년, 2년 연속 전석 매진의 신화를 기록한 화제의 작품 '카르멘' 등 유명 오페라의 주요 아리아가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 출연/소프라노 한경미,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전병호, 바리톤 김진주
- 해설/윤정인
- 연주/프리미에오케스트라앙상블



Program Guide >>

여주현 바이올린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



연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비르투오조앙상블 단원, 브니엘국제중고등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여주현 독주회. 서울과 대전에서의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대전 시립미술관 토요일음악회, 부암아트홀 초청 토요일음악회,

포항공대 목요 문화 프로그램 초청음악회, 부산신포니에타, 부산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협연무대 등 다양한 무대에 서온 여주현은 그동안 가톨릭 음악콩쿠르 2위, 음악협회 콩쿠르 대전지부 1위, 목원대학교 콩쿠르 현악부분 1위에 입상했다.

여주현은 부산필하모니아오케스트라 객원악장, 연세신포니에타 단원, Chamber Players 21 리더 및 수석, 상록실내악단 객원악장을 역임한 바 있다.

• 피아노/이진성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Adios AVIO

일 시 | 11월 27일 목요일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

젊은 국악연주자들로 구성된 국악밴드 아비오가 펼쳐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신명나는 무대 동래문화회관 목요국악 힐링콘서트.

2007년 결성된 국악밴드 아비오(我飛娛)는 '음악을 자유로이 즐기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기존 국악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스스로 찾아보고자 하는 젊은 국악인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퓨전국악그룹이다.

프로그램

서랍 속 장난감 나라, 이슬 바람, 퍼즐, Adios, AVIO, Track:길, 재, 날아라 풍뎅이



여성창극

방자와 월매의 해학극

일 시 |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3만원, 학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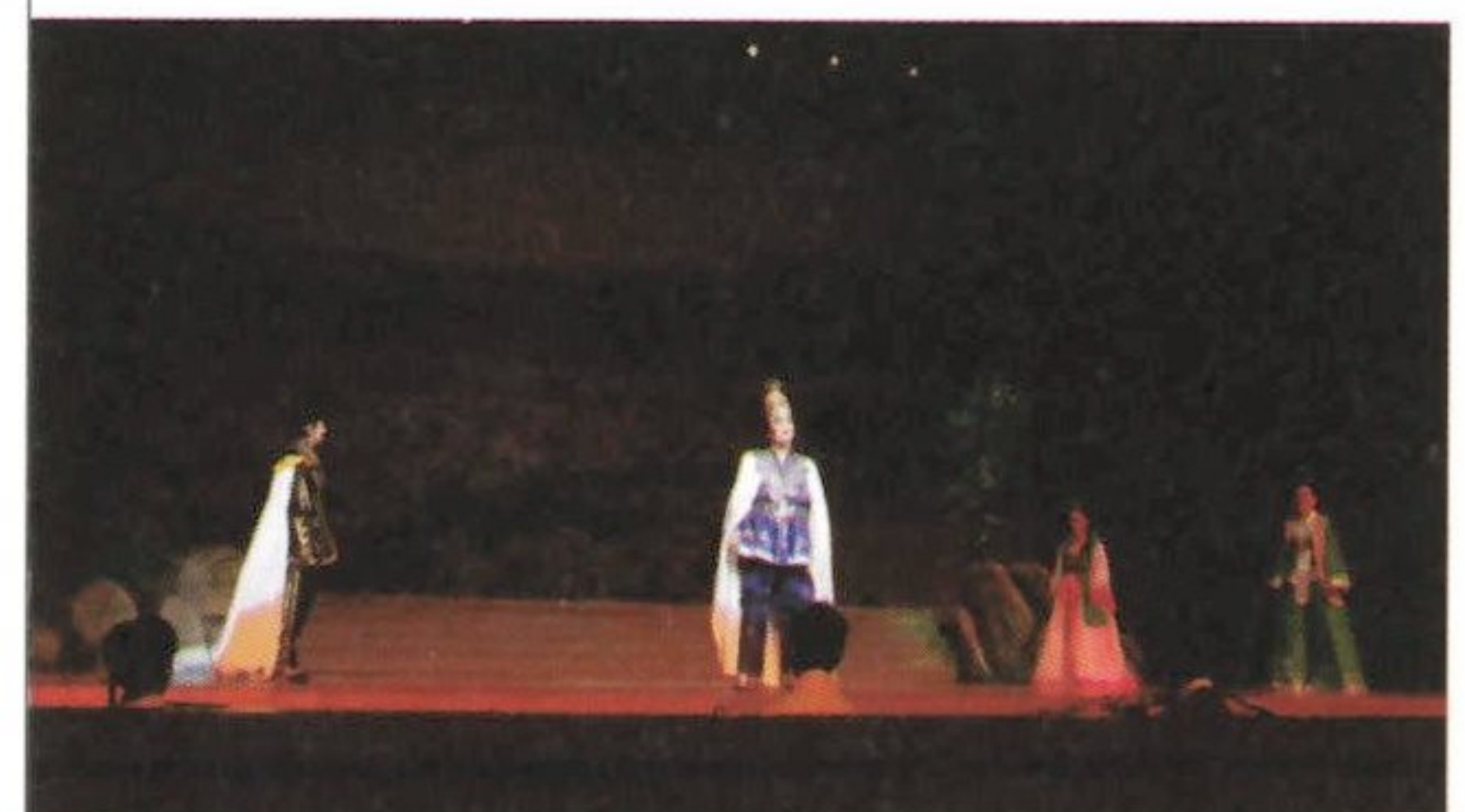
(예매시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부산국악협회 644-5211

...

고전 '춘향전'을 이도령과 춘향이 아닌 방자와 월매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여성 창극 '방자와 월매의 해학극'.

국악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는 창극은 전통종합예술로 뮤지컬, 오페라 같은 타 장르 못지않게 경쟁력이 있는 장르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을 지켜온 원로들과 부산국악협회 회원들이 50년 창극공연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자들의 연주 실력에 더해 화려한 의상과 군무 등이 극의 재미를 더해준다.



글로벌 신인음악회

일 시 | 11월 29일 토요일 오전 11: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차세대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기획한 글로벌 신인음악회.

글로벌 신인음악회는 신인 음악인들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연주실력을 향상시키고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리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부산예술가곡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프라노 조신미, 테너 조성빈을 주축으로, 창작가곡 활성화에 주력하고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창단한 부산예술가곡회의 정기연주회.

부산예술가곡회는 지난 5월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글로벌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

를 통해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로 부산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 사회/조성빈
- 피아노/조신미, 안준희

글로벌 행복음악회

일 시 |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 글로벌 행복음악회.

글로벌아트홀은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장윤정 귀국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장윤정 010-7336-7560

...



따뜻한 음색과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피아니스트 장윤정 귀국 독주회.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를 실기수석으로 졸업하고 도독,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Hochschule für Musik Nürnberg 전문연주자과정과 만하임 국립음대 Hochschule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Mannheim 실내악연주자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장윤정은 그동안 부산음고콩쿠르 2위, 이탈리아 Sul di mare 국제콩쿠르 1위, Musica Insieme 3위, L'estro armonico 1위, Don vincenzo vitti 실내악부분 2위에 입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프로그램

모차르트/소나타 K.311

L. 리버만/Gargoyles 작품 29

슈만/환상소곡 작품 12

드뷔시/기쁨의 섬

프로그램
가이드

최미란 가야금 독주회 '絃上養心'

일 시 | 12월 2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의 | 신정현 010-3173-8184



부산대학교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23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대통령상), 제8회, 제22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제31회 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가야금 주자 최미란 독주회.

2004년과 2012년 두차례 독주회를 가진 바 있는 최미란은 울산시립무용단 국악연주단 단원, 울산가야금연주단 동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부산가야금연주단 기획, 한국가야금연주가협회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김병효류 가야금 산조, 흥(興)(성금연 작곡), 대풍류(경기대풍류), 경기민요 연곡

연극

코미디극 러브 인 매직

일 시 | 4월 30일-Open run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5:00
경성대 신나는 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 경성대 신나는 극장 1588-5567

올해 4월 모교인 경성대학교 인근에 전용소극장인 '신나는 극장'의 문을 연 '허동9단' 개그맨 허동환이 선보이는 코미디극 '러브 앤 매직'. 허동환이 직접 연출, 출연하는 '러브 인 매직'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옴니버스 형태의 빠른 진행으로 관객들과 함께 연기하는 쌍방향 공연이 특징이다. 이번 무대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두근거리는 사랑을 소재로, 포복절도 개그와 함께 환상적인 마술쇼가 펼쳐진다.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일 시 | 2014년 9월 18일(목)-2015년 1월 4일(일)
평일,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월요일 휴관)
BS부산은행 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조은극장 1588-2757

웃음과 반전이 있는 무대로 대학로에 스릴러 연극 붐을 일으킨 코믹 서스펜스 수사극 '그놈을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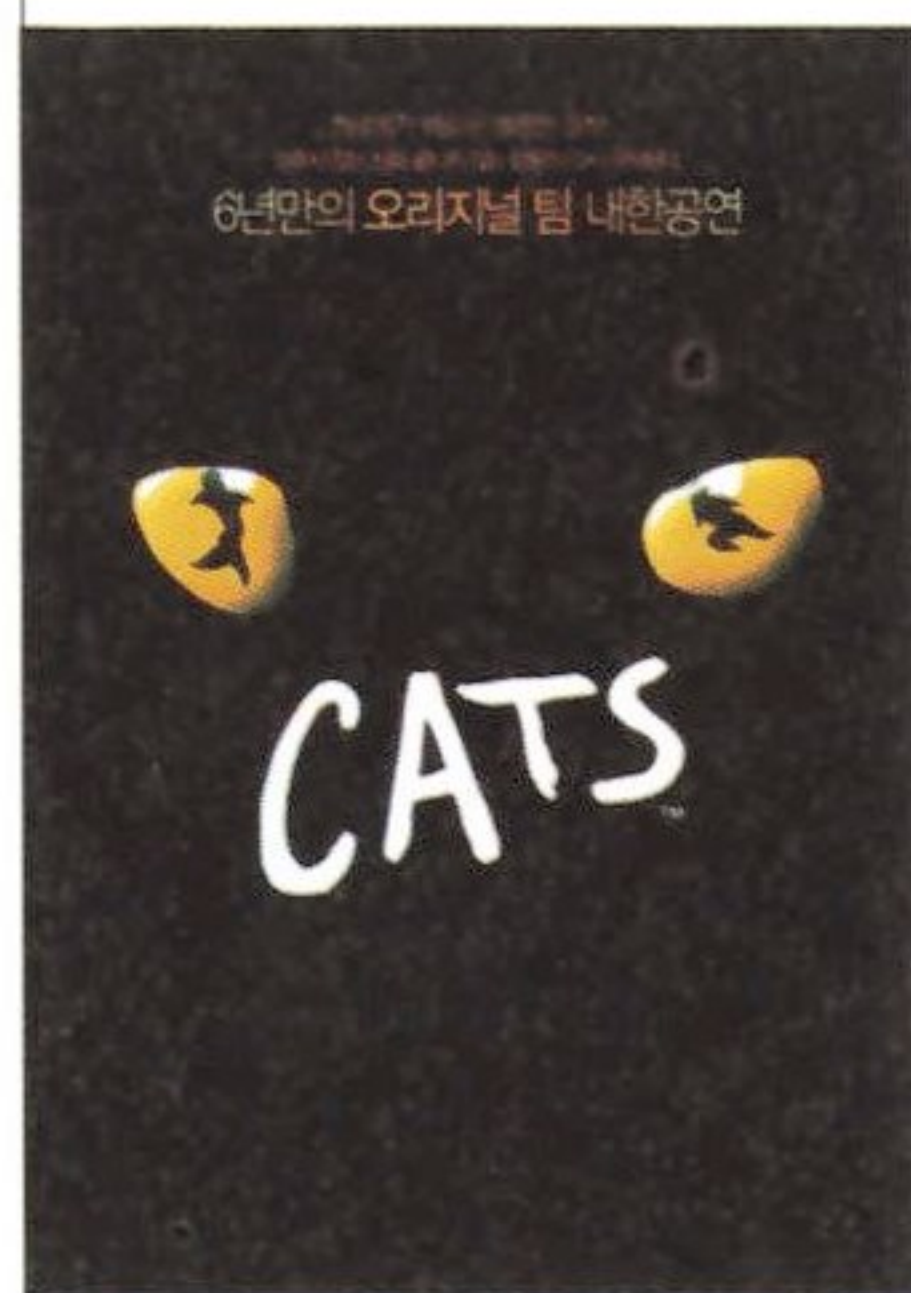
로맨틱VS코미디

일 시 | 9월 23일(화)-11월 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휴관)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로맨틱만 쓰는 여자 작가와 코미디만 연출하는 남자 감독, 한달만에 로맨틱 코미디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두사람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둘은 로맨틱 코미디를 뽑아내고 어색한 동거를 끝낼 수 있을까?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의 달콤살벌한 동거를 그려낸 연극 '로맨틱VS코미디'.

뮤지컬 '캣츠' 부산공연

일 시 | 10월 31일(금)-11월 16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2:00, 7: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젤리클릭,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문의 | (주)WSM 1566-5490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뮤지컬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뮤지컬의 역사를 바꾼 '캣츠' 오리지널팀이 6년만에 갖는 오리지널 무대 '캣츠'. 1981년 런던 뉴런던 시어터에서 초연된 이후 전 세계 30여개국, 300여개가 넘는 도시에서 14개국 언어로 상연된 '캣츠'는 환상적인 무대, 고양이와 흡사한 분장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춤과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로 전세계 7,300만명 이상을 감동시켜왔다. '캣츠'는 이번 무대에서 30여년 동안 '캣츠'를 끌고 온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선정한 최고의 배우들이 완벽한 호흡으로 화려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한다.

연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일 시 | 11월 1일(토)-30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월요일 공연 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철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묶여진 관계, 엄마와 딸의 이야기를 그린 창작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오직 자식을 바라보며 세상을 베풀어 온 엄마. 엄마는 잘 맞춰진 퍼즐처럼 딸이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딸에게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구질구질한 노년의 집착으로만 다가온다. 그런 엄마에게서 딸은 독립을 선언하지만 녹록치 못한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엄마를 닮아가고 힘겨운 삶의 태풍이 거세질수록 딸은 점점 더 엄마를 그리워하게 되는데...

•작·연출/전상배 •출연/허승연, 허수정



마술사 오은영의 판타지 오브 매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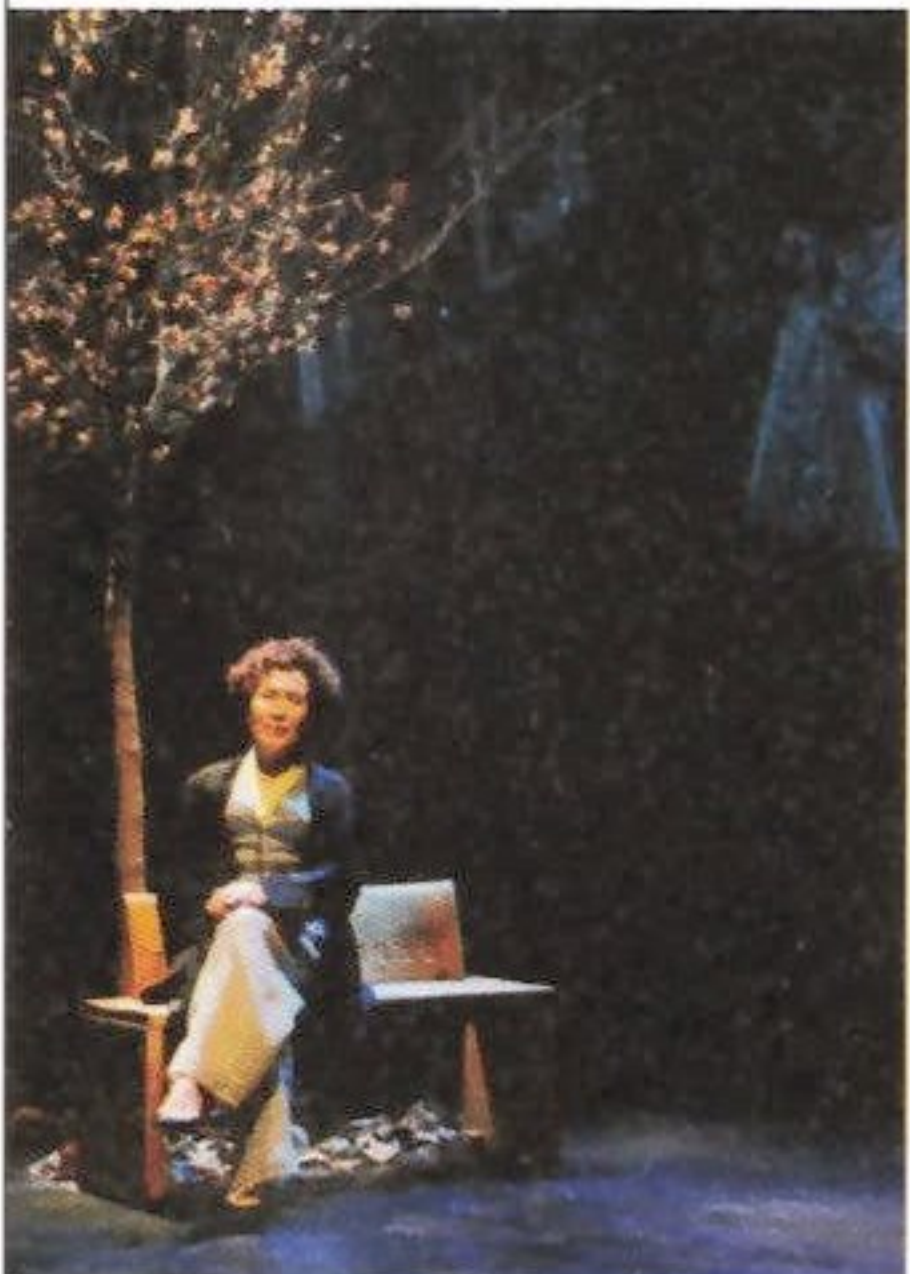
일 시 | 11월 5일(수)-23일(일) 평일 오전 10:00, 11:30(단체관람), 토요일 오후 3:00, 5:00, 일요일 오후 2:00, 4: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평일 유치원 단체관람 9천원)
문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국내 처음 선보이는 버라이어티 패밀리 매직쇼 '마술사 오은영의 판타지 오브 매직'. 세계마술협회 ibm 정회원이자 2002 한일 월드컵 홍보 지정 마술사, 2003 홍콩 국제매직콘테스트 e.i.m.c. 에서 수상한 매지션 오은영은 이번 무대에서 순식간에 옷이 바뀌고, 선물상자가 날아다니며, 관객을 허공에 띄우기도 하는 흥미진진한 매직쇼를 펼친다. 현재 동아인재대학교 마술학과 교수로 있는 오은영은 KBS TV 유치원 마리 언니, MBC 뽀뽀뽀 워니 언니, tvn 코미디빅리그 '옹달샘 마술단의 섹시미녀 마술사'로 잘 알려져 있다.

박정자의 낭독연극시리즈 3 11월의 왈츠

일 시 | 11월 11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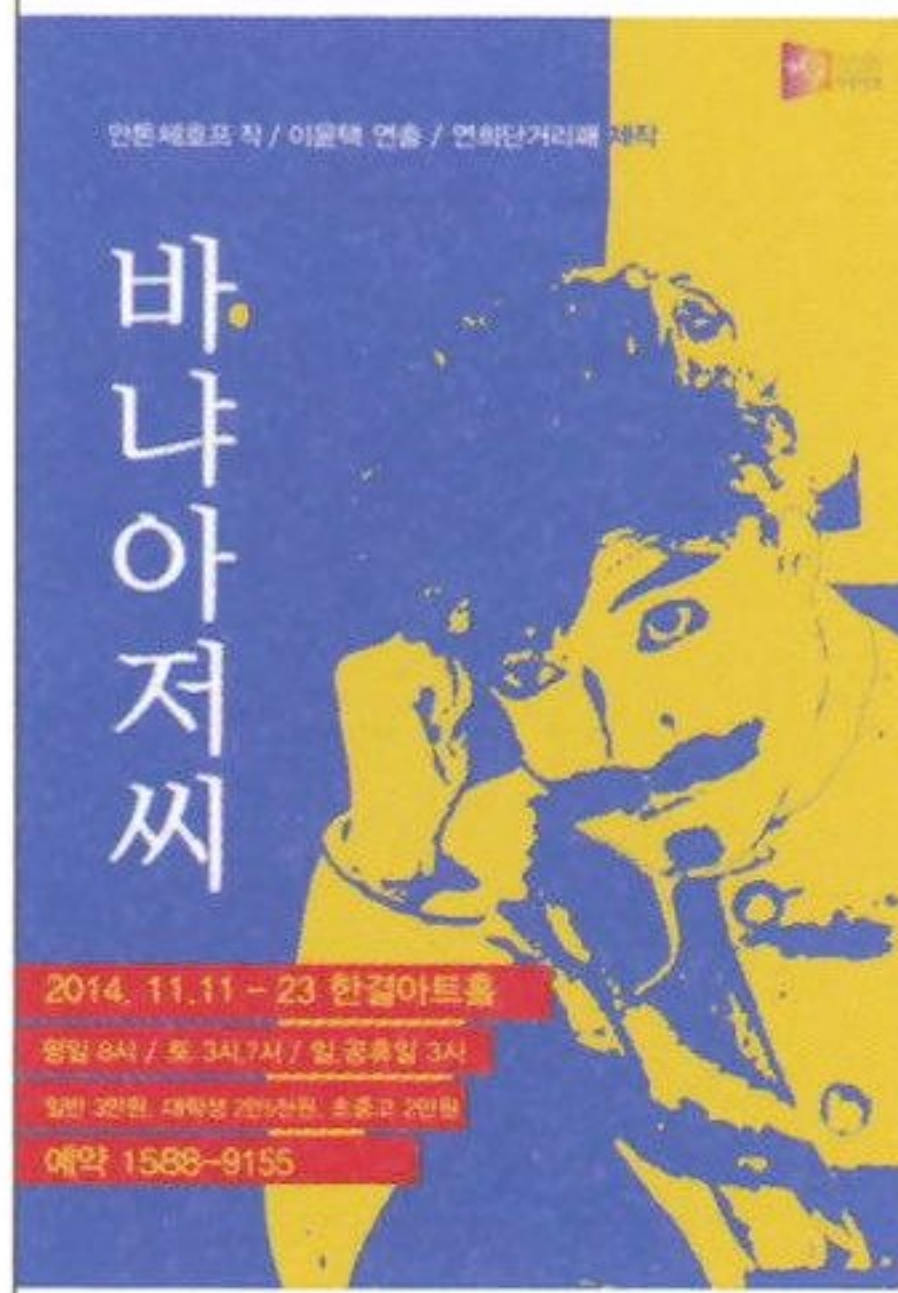


배우 박정자의 존재감 넘치는 에너지와 연륜, 노련함이 빛나는 새로운 형태의 뮤직 모놀로그 '11월의 왈츠'. 1963년 '악령'으로 데뷔한 이래 130여 편의 연극을 통해 강렬함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관객과 만나온 박정자는 이번 무대에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가슴 설레는 사랑을 낭독과 영상, 연주자들의 생생한 라이브 선율로 관객들에게 전해 준다.

- 작/이충걸
- 연출/이원종
- 출연/배우 박정자, 무용 황찬용, 피아노 김지현, 아코디언 이미화, 기타 고익석

바나 아저씨

일 시 | 11월 11일(화)-23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천원, 초중고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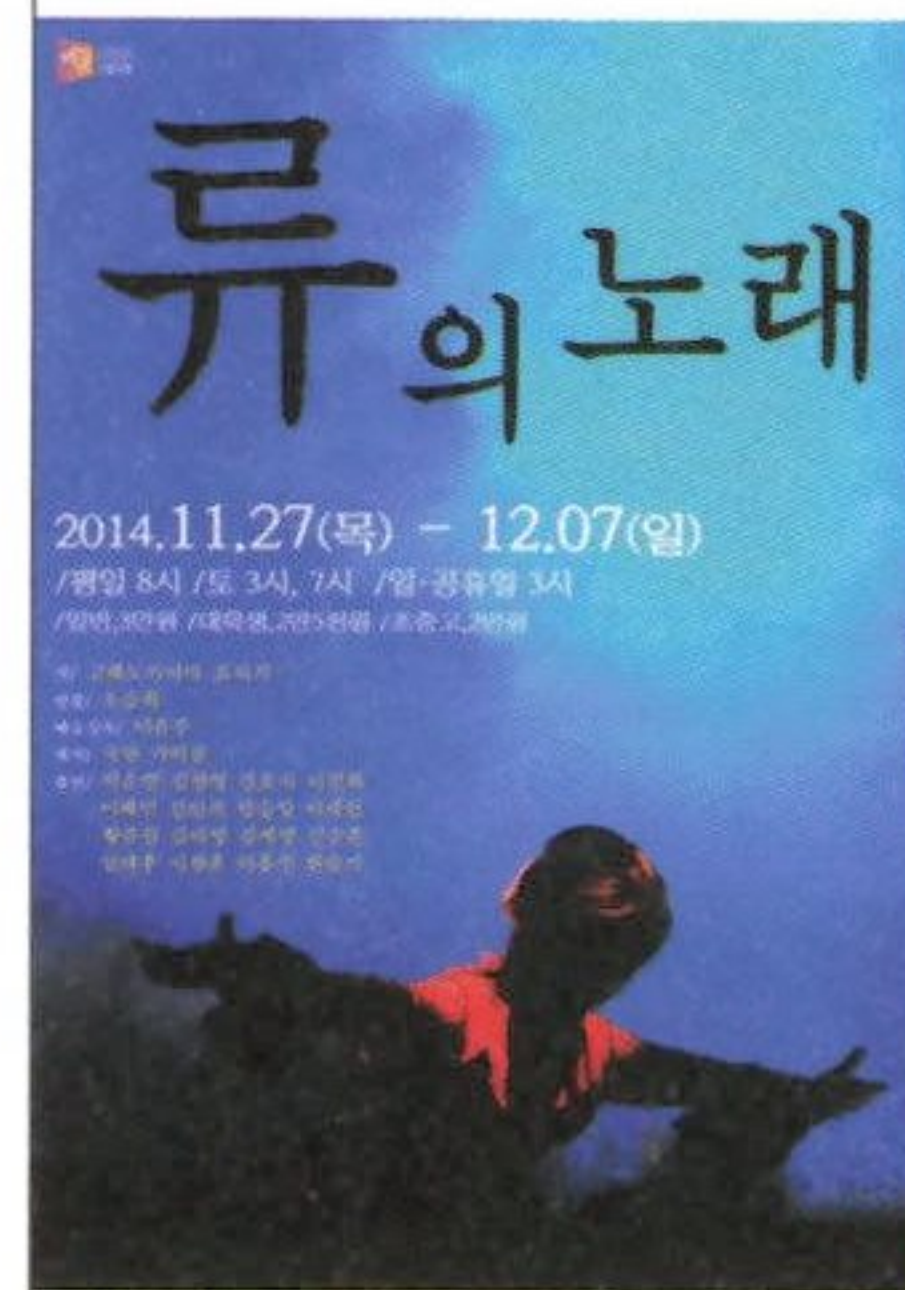


러시아 리얼리즘의 대표작인 체홉의 '바나 아저씨' 초연무대. 모스크바에서 시골 고향에 돌아온 교수는 고향 저택과 땅을 건축업자에게 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시골을 지키며 살아온 바나는 땅을 팔려는 교수의 의도에 충을 쏘아대는 난동을 부리며 저항한다. 바나는 교수의 젊은 아내 열레나를 남몰래 사랑하지만, 그마저 시골에서는 지식인으로 행세하는 의사(이승헌)에게 사랑을 빼앗긴다. 모든 것을 잃은 바나가 자살 소동을 벌이지만, 바나와 함께 계속 농사를 지으며 시골에서 살아갈 결심을 하는 쓰냐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을 시작한다.

- 작/안톤 체홉
- 연출/이윤택
- 출연/홍민수, 이승헌, 김하영, 노심동, 김아라나

류의 노래

일 시 | 11월 27일(목)-12월 7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공휴일 오후 3:00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5천원, 초중고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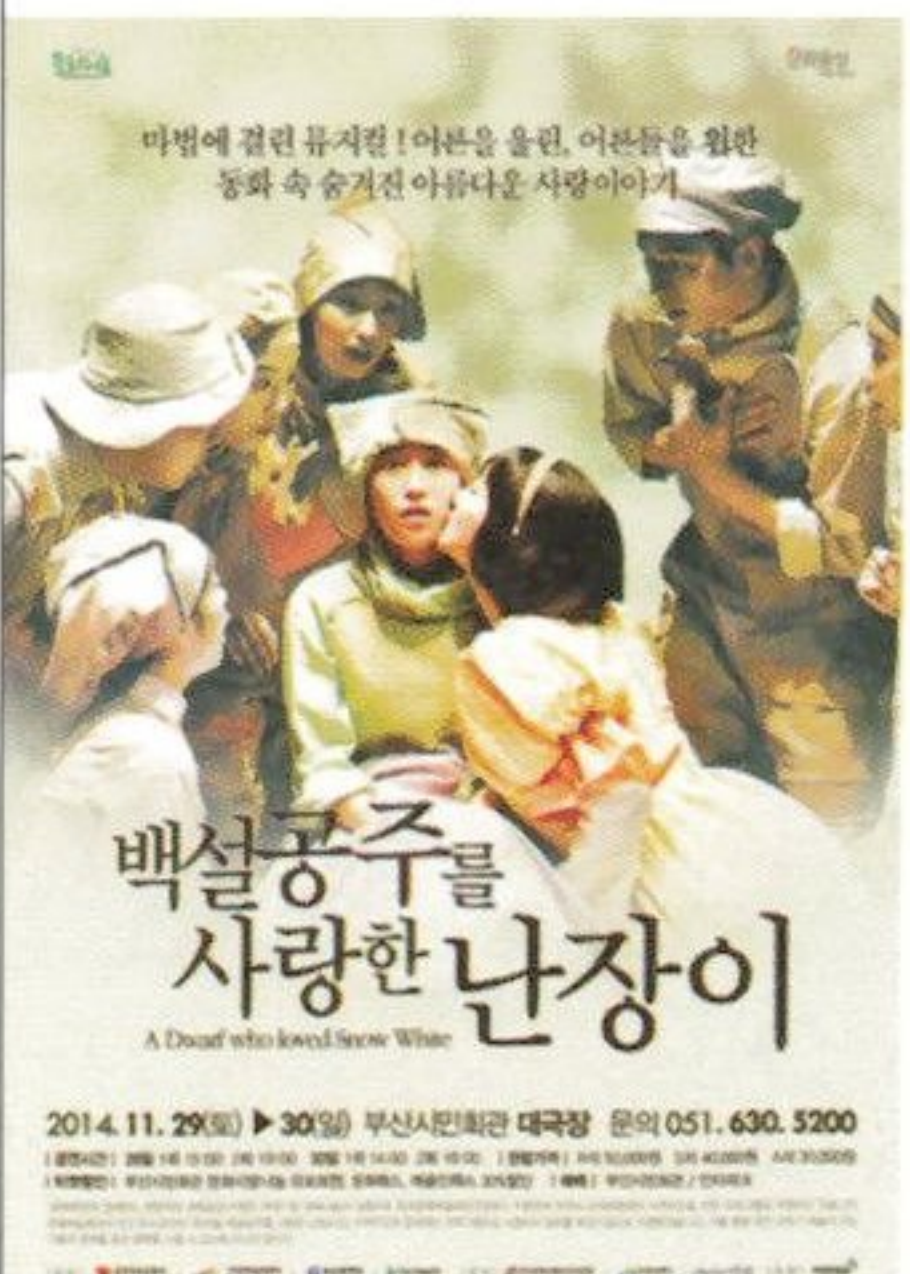


미래 도시 거대 문명사회 속에서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살아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그린 '류의 노래'. 비록 삶의 밑바닥 인생들이지만 이웃이란 공동체의식으로 묶여 있고, 사랑을 꿈꾸고,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조직과 제도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류의 노래'는 가난을 풍요로운 웃음으로, 슬픔을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는 도시 빈민들의 휴먼 스토리로 관객에게 웃음과 눈물을 전해 준다.

- 작/고해노키야마 요히치
- 연출/조승희
- 출연/박소연, 김철영, 강호석, 이건희, 이해민, 김민지, 양승일, 이세인, 황유진, 김아영, 김세영, 신승훈, 안태후, 이광훈, 이홍주, 현슬기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일 시 |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3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어른을 울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 속 숨겨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 뮤지컬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그림형제의 동화를 새롭게 각색한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는 백설공주를 사랑했던 일곱 번째 난장이 '반달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 2001년 초연무대를 가진 후 2,900회 이상 공연을 통해 85만명 관객을 동원한 화제작이다.

- 작, 연출/박틀
- 작곡, 음악감독/조선형
- 안무/조성주
- 출연/이동준, 송민정, 윤희규, 강하나, 김채원, 김현미, 송은주, 박혜원, 이다연

무용

제1회 아현무용단 정기발표회 아름다운 동행

일 시 |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현무용 단장 송정숙 010-2582-3898

송정숙 단장을 중심으로 그동안 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온 아현무용단의 첫 번째 정기발표회.

- [프로그램]**
 한량무, 민요춤, 부채춤, 경기민요, 입춤, 태평무, 지전춤, 북가락

국립발레단 초청 해설이 있는 전막 발레 돈키호테

일 시 | 11월 23일 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1962년에 창단된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국내 최고의 무용수들과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를 보유



하고 있는 국립발레단 초청 해설이 있는 전막 발레 '돈키호테'.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수석무용수로 활동해온 강수진이 예술감독을 맡아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국립발레단은 각 지역을 돌며 문화소외지역의 관객들에게 수준있는 발레 공연을 보

여주면서 지역 문화 활성화에도 앞장서오고 있다. 스페인의 정취가 살아있는 희극발레의 대명사 '돈키호테'는 동명의 소설을 소재로 했으나 이발사 바질과 선술집 딸 키트리와 사랑 이야기가 주요 장면을 차지한다. 작품 속 대부분의 그랑 파드되 중 특히 돈키호테의 결혼식 2인무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여 수많은 갈라 공연과 콩쿠르에서 무용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퍼토리이다. 부채를 살랑거리는 키트리의 여성적 매력과 더불어 발레리나 최고의 테크닉인 32회전 푸에떼가 구사되고, 남성무용수가 여성무용수를 한 손으로 머리위로 들어 올리는 한 손 리프트, 남성 무용수의 공중회전 등 고난도의 발레 기교가 넘쳐난다.

- 예술감독/강수진

프로그램
가이드

농(弄)

일 시 | 11월 28일 금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의 | 최원희 010-8866-9561

...



그동안 23차례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를 통해 걸출한 명창과 명인, 명무를 배출해온 (사)한국전통예술진흥회가 서울전통공연예술경연대회에서 종합대상(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은 춤꾼 박경량과 가야금병창 김민정을 초청해 마련한 특별한 무대.

1997년 제5회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박경량은 경상남도 무형문화제 제21호 진주교방굿거리춤 이수자이자 현재 박경량류 영남교방청춤 보존회 대표로 있으며, 2004년 제12회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김민정은 중요무형문화제 제23호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무 박경량의 영남교방청춤, 산조춤, 영남살풀이춤 김민정의 가야금 산조와 병창

장선희무용단 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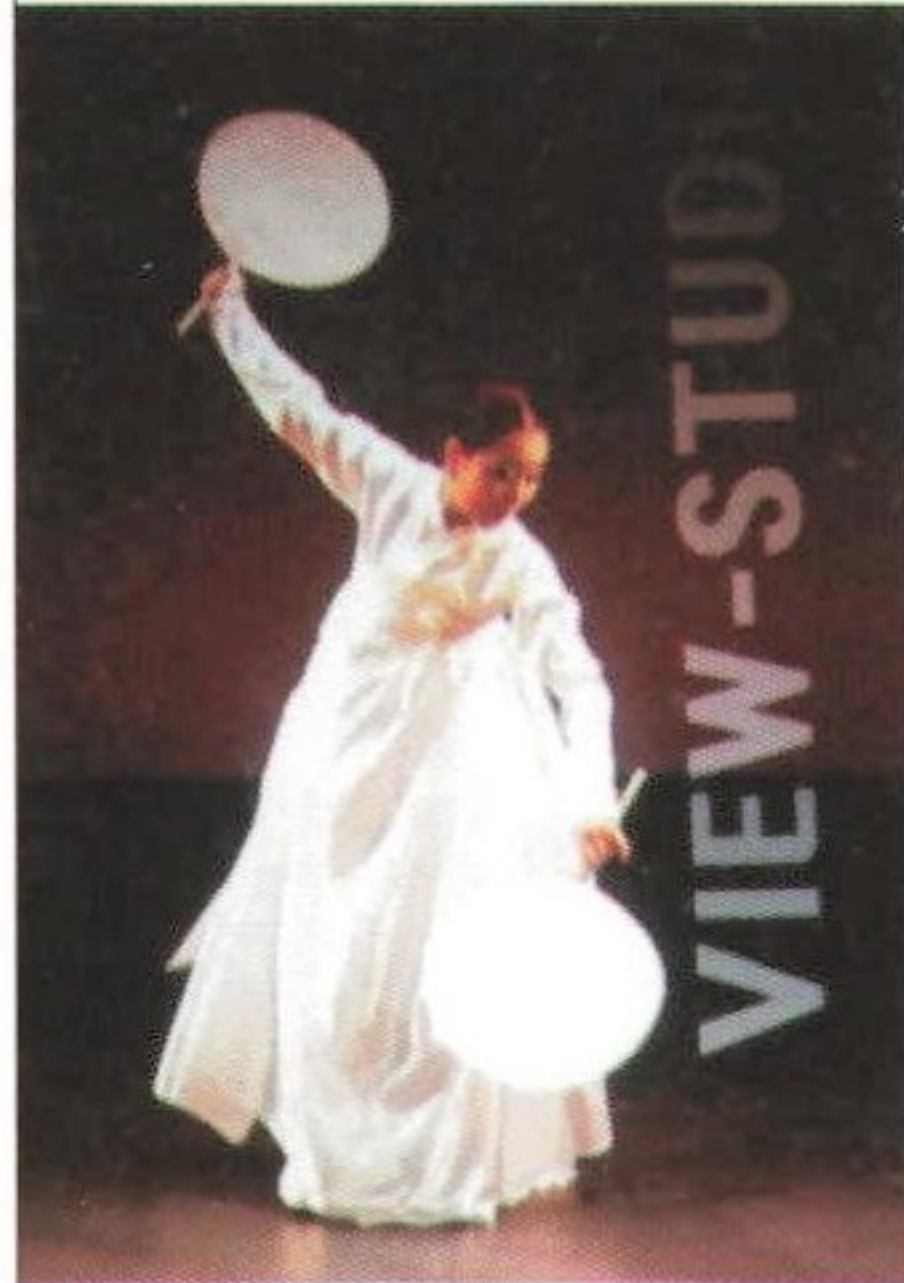
-海月下- 그림니다

일 시 |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7: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의 | 장선희 010-9033-2959

...



경성대학교 무용과 및 동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장선희무용단 '춤터' 대표 및 예술감독,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6호 박대성류 아쟁산조 이사로 있는 춤꾼 장선희가 이끄는 장선희무용단 '춤터'가 펼치는 전통춤 한마당.

2003년 장선희무용단 '춤터'를 설립한 후 정기공연을 비롯 다양한 무대에 서온 장선희는 이번 무대에서 우리 전통춤의 맛과 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춤사위를 펼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스승 김진홍 선생을 비롯해 엄옥자, 박대성, 김현주 등 명인, 명무들이 출연해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가야금병창, 살풀이, 영남입춤, 검무, 승무, 원향지무, 아쟁산조, 오고무

행사

**저녁에 만나는 아름다운 시 제136회 서울림 시낭송회
詩, 무의식의 심연에 드리운 낚시줄**

일 시 | 11월 5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천향미 010-7167-0567

무지크바움 '클래식과 재즈의 만남'

일 시 | 11월 8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시마당 제147회 시낭송회

일 시 |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의 | 회장 안태봉 017-552-0626

전시

랄프 김슨 Ralph Gibson

일 시 | 8월 12일(화)-11월 19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www.goeunmuseum.kr

...



장필교 작품전 '8.5 inch'

일 시 | 10월 7일(화)-11월 7일(금)

갤러리 아인

문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나약함 등을 다양한 상황에 놓인 목각인형을 통해 유쾌하게 풀어낸 장필교 작품전.

갤러리 예가 기획 초대전 물고기의 꿈

일 시 | 10월 14일(화)-11월 9일(일) 갤러리 예가

문의 | 갤러리 예가 624-0933

...



• 참여작가/강이수, 김재호, 김종선, 신원준, 진영섭

**2014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On Going전**

일 시 | 10월 20일(토)-11월 10일(월)

오픈스페이스 배

문의 | 오픈스페이스 배 724-5201

이형우 개인전

일 시 | 10월 22(수)-11월 15일(토)

예술지구_p ADP2관

문의 | 사진미디어공간 포톤 070-4322-3113

진저 디자인전 '숲속의 무도회'展

일 시 | 11월 3일(월)-12월 7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윤필남展 '일상의 실루엣'

일 시 | 11월 13일(목)-11월 22일(토)

스페이스 움 특별전시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안두진 개인전 '어떤 돌'

일 시 | 11월 14일(금)-12월 14일(일)

조현화랑 부산

문의 | 조현화랑 부산 747-8853

김종권展 <sculpture>

일 시 | 11월 17일(월)-11월 22일(토)

스페이스 움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홍준경 1st 개인전

일 시 | 11월 24일(월)-11월 29일(토)

스페이스 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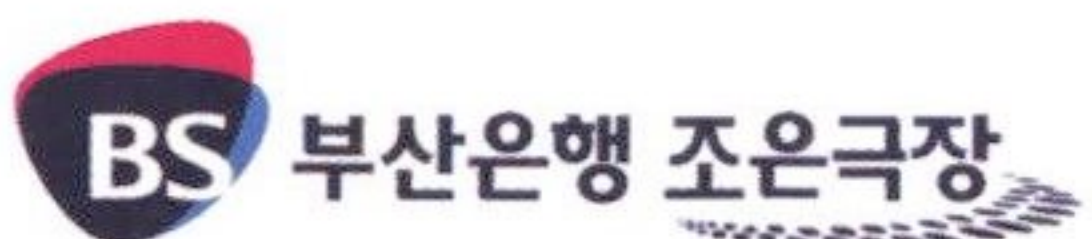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퍼즐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여행자
후칭팡 지음

지난호 정답

피 가 로 의 결 혼 루 아
아 땡 초 로 시 난 테
즐 업 라 보 엠 네
라 군 은 활
중 혹 부 리 영 감
통 낙 안 음 성 우 천
소 새 원 탈 무 드 문
빙 팔 불 출 화
복 선 공 히 로 시 마
싱 풍 산 개 잡 을

10월호
퍼즐 당첨자

가로열쇠

- 11월 7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웰빙콘서트 네 번째 무대로 선보이는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 '라보엠'과 더불어 푸치니의 3대 오페라로, 사랑과 질투, 음모와 암투, 폭행과 살인 등 드라마틱한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오페라 초보들도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이브, 윌리엄 텔, 뉴턴, 세잔, 스티븐 잡스와 관련된 과일.
- 일반적인 의학용어로는 '외상(外傷)'을 뜻하나, 심리학에서는 '정신적 외상', '영구적인 정신 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한다.
- 중국 삼국시대 촉(蜀)나라의 무장. 유비, 관우와 함께 의형제를 맺었고 후한 말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쳤다.
- 흡혈귀 소설의 원조가 된 영국 소설가 B.스토커의 소설 주인공.
- 터키 서쪽에 있는 고대도시의 유적. 고대 그리스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으며, 호메로스 서사시의 근간을 이루는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서는 '일리오스'라고 불렀다.
- 영화 '사탄의 인형' 시리즈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 찰스 레이의 영혼이 깃든 장난감 인형.
- 모레의 다음날.
- 시를 짓는 사람. 일반적으로 시를 써서 문단의 공인을 받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 모로코 왕국의 대서양 연안에 있는 항만 도시. 험프리 보가트, 잉그리드 버그먼 주연의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의 이 곳을 배경으로 해 유명해졌으나 정작 촬영 당시에는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져 실제로 촬영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한바탕 크게 웃음.
- 프랑스 후기인상파 화가. 문명세계에 대한 혐오감으로 남태평양의 타히티섬으로 떠났고 원주민의 건강한 인간성과 열대의 밝고 강렬한 색채가 그의 예술을 완성시켰다.
- 이탈리아의 오페라 작곡가(1813~1901). 이탈리아 가극의 성악적 장점을 활용하고, 화려한 선율과 관현악의 극적인 진행 등 이탈리아 가극 최대의 작곡가가 되었다. 대표작으로 '리골레토',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등이 있다.
-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가 지은 풍자 소설. 주인공이 향해 도중 폭풍우를 만나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진기한 경험을 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영국 사회의 타락상과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세로열쇠

- 제정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1882~1971). 현대음악의 새로운 장을 연 신고전주의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곡으로 '볼셰',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등이 있다.
- 독일 작가 괴테가 지은 희곡. 독일 전설을 바탕으로 학문과 지식에 절망한 주인공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꾀에 빠져 현세적 욕망과 쾌락에 사로잡히지만 마침내 잘못을 깨달아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 탈놀이(가면극)에서, 현대극의 막이나 판소리의 마당에 해당하는 말.
- 강철봉을 정삼각형으로 구부려 한쪽 끝을 실로 매달고 같은 재료의 막대로 두드리는 타악기. 소리가 매우 맑고 높다.
- 누적관객 338만 8천명을 넘겨 영화 '워낭소리'가 보유한 다양성 영화 역대 흥행 기록을 갈아치운 존 카니 감독, 키이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명성을 잃은 음반프로듀서 대과 스타 남친을 잃은 싱어송라이터 그레타가 뉴욕에서 만나 함께 노래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그린 음악영화이다.
- 한국음악의 연주기법과 서양악기의 결합을 시도, 서양 현대 음악기법을 통한 동아시아적 이미지의 표현에 주력을 하였으며, '동서양을 잇는 중계자 역할을 한 음악가'라는 평가를 받은 작곡가. 대표작으로 1972년 뮌헨올림픽 개막축하 오페라에서 연주한 '심청', '나비의 꿈', '광주여 영원하라' 등이 있다.
- 영국의 정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동당과의 연립내각을 이끌고 루스벨트, 스탈린과 더불어 전쟁의 최고 정책을 지도했다. 이후 반소 진영의 선두에 섰으며 1946년 '철의 장막'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 스페인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한 입체파 화가. 초기 청색시대를 거쳐 입체주의 미술양식을 창조하였고 20세기 최고의 거장이 되었다. 대표작으로 '게르니카', '아비뇰의 처녀들' 등이 있다.
- 물과 기름의 반발력을 이용, 우연의 효과를 실려서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기법.
- 마천루의 도시, 바람 많은 '윈디 시티'. 재즈의 도시, 마이클 조던의 도시 등 수많은 수식어가 붙는 미국 일리노이주(卍) 북동부에 있는 도시.
- 중국의 고대 유적지. 전한(前漢), 수(隋), 당(唐)의 수도였고, 지금의 시안(西安) 부근에 있다.
- 프랑스의 곤충학자. J. M. 레옹 뒤푸르의 사냥벌에 관한 논문을 읽고 감동하여 본격적으로 곤충을 연구하기 시작, 1879년부터 1910년에 걸쳐 불후의 명저 <곤충기> 전 10권을 잇달아 출판했다.
- 저 또는 젓대라고도 하며 한자로 적(笛)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악기를 가로로 비껴들고 한쪽 끝부분에 있는 취구(吹口)에 입술을 대고 입감을 불어넣어 소리를 내는, 가로로 부는 대표적인 국악기이다.
- 인체가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대개 마흔 살에서 쉰 살 사이에 신체 작용에 여러가지 장애가 나타난다.
- 중국 5세대 감독들의 대표적인 얼굴이자, 중국 본토 여배우 가운데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여배우. 대표작으로 붉은 수수밭, 흥등, 귀주 이야기, 인생, 2046, 게이사의 추억 등이 있다.
- 백제 성왕 때부터 의자왕 때까지의 도읍지.

공간소극장 김평애(남구 동명로)
초대권 박장환(동래구 충렬대로)
이상호(부산진구 서면로)
전미애(부산진구 백양대로)
한미화(금정구 금강로)

도서 강태균(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여행자 김민정(남구 용호로)
장일주(수영구 수영로)
최진영(서구 망양로)
허민정(남구 용소로)

큰집 김혜진(북구 만덕대로)
식사권 노은경(금정구 식물원로)
박경성(영도구 함지로)
신흥복(북구 화명신도시로)
조윤자(서구 대티로)

조은극장 김정연(동래구 복천로)
남하윤(서구 망양로)
박정애(금정구 개좌로)
서경수(강서구 공항로)
조용호(기장군 정관3로)
최형철(사하구 제석로)



New Album... GM뮤직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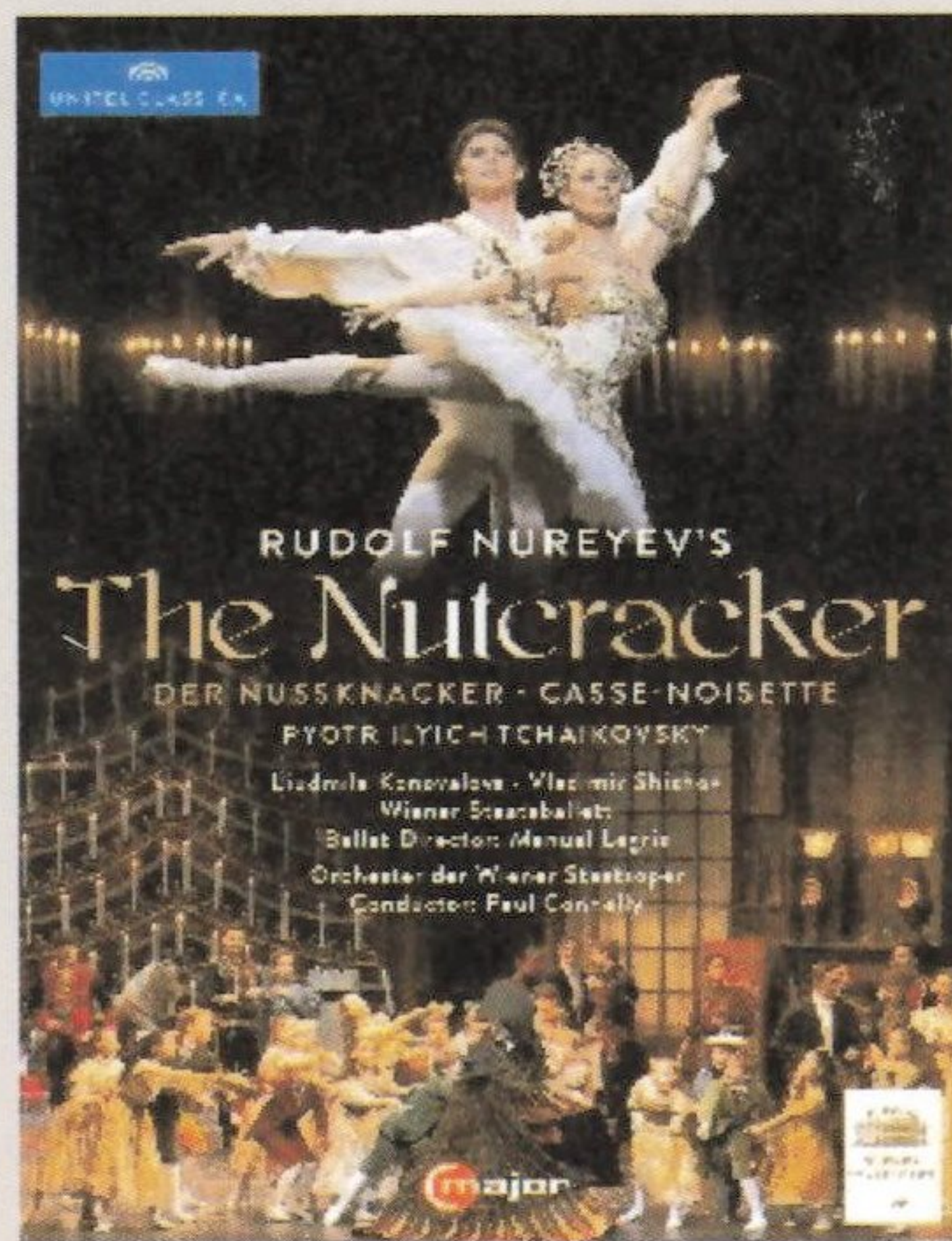


C Major 718408(DVD)

❖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과 칸토르 이작 메이어 헬프갓의 조인트 콘서트

▶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이 들려주는 유대 전통음악의 독특한 매력

지금은 지휘자로도 캐리어를 쌓아나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은 소아마비라는 선천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의 한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의 혈통적 근원인 유대 전통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늘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 유대계의 상징적인 건물인 뉴욕 엘더리지 시나고그에서 저명한 유대 칸토르인(독창자) 이작 메이어 헬프갓과 함께 했던 특별한 조인트 콘서트 실황을 담은 본 영상물은 자신의 뿌리에 대한 펄만의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칸토르 헬프갓의 독특한 창법으로 노래되는 유대교 전례음악들과 펄만의 유려한 바이올린 선율을 타고 흐르는 이국적인 분위기의 유대 민속음악, 그리고 클레츠머 밴드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미는 클래식 애호가들은 물론, 월드뮤직 애호가들에게도 크게 환영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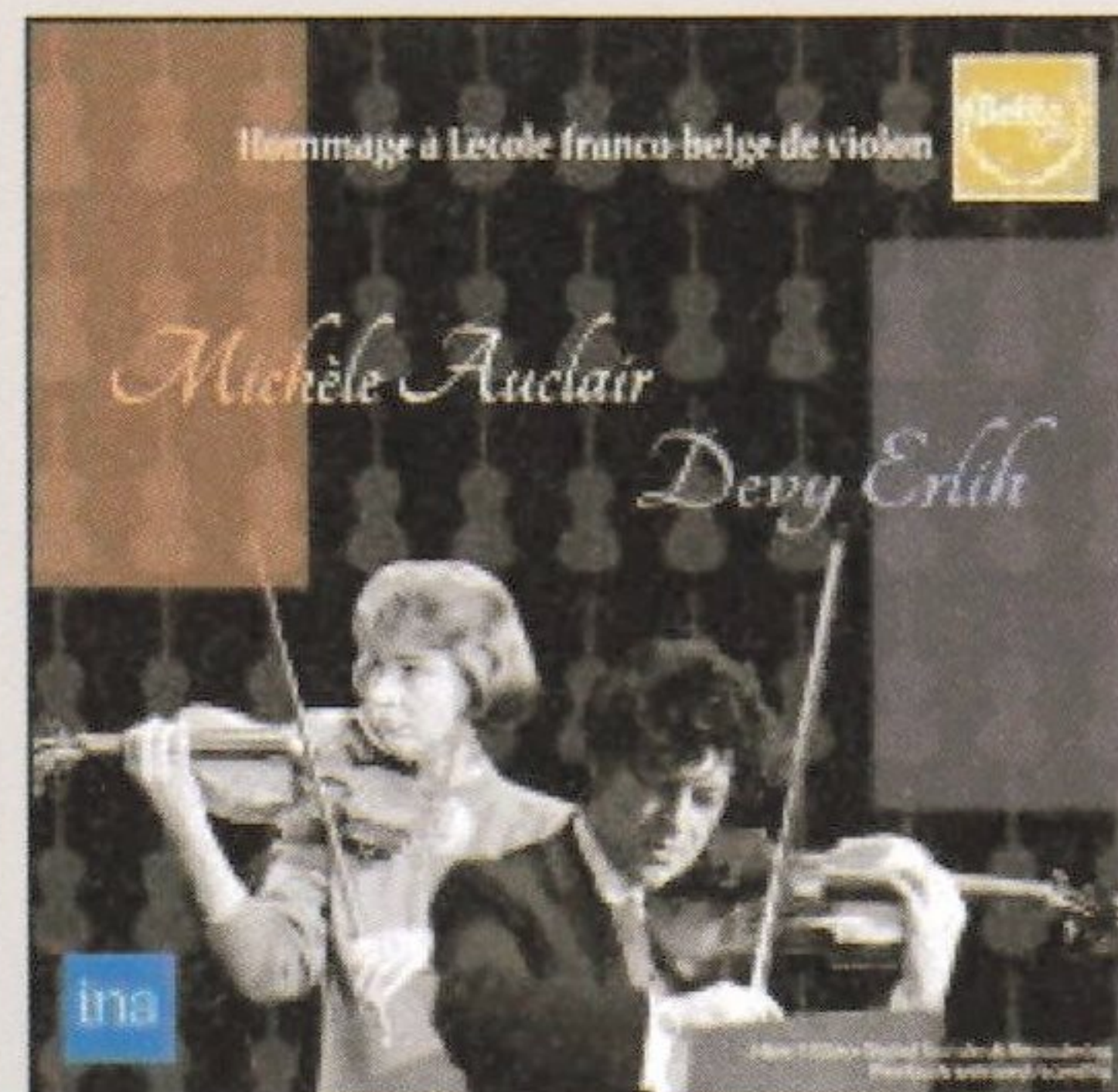
C Major 718208 (DVD)

❖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루드밀라 코노발로바(클라라)/ 블라디미르 쉬쇼프(드로셀마이어, 왕자) 외/ 빈 국립발레단/ 폴 코넬리/ 빈 슈타츠오페라 오케스트라

▶ 전설적인 무용수 루돌프 누레예프가 재해석한 차이코프스키의 걸작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3대 로맨틱 발레 중 마지막 작품인 <호두까기인형>은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동화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대표하는 가족공연으로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작이다. 원래 E.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인형과 생쥐 왕'의 내용을 발레로 옮긴 것이지만, 초연 이후 지금까지 여러 안무가들의 손길에 따라서 조금씩 그 내용이 바뀌어 왔다. 이번 영상물은 2012년 10월 빈 슈타츠오페라에서 펼쳐졌던 빈 국립발레단의 공연을 담은 것으로, 1967년에 처음 공개되었던 전설적인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의 프로덕션을 리바이벌한 것이다. 누레예프의 프로덕션은 자국의 선배 안무가들인 고르스키와 바이노넨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성인 무용수가 연기하는 클라라가 별사탕요정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호두까기인형이 아닌 드루셀마이어가 왕자로 변신하여 클라라와 호흡을 맞춘다는 점이 가장 선배 안무가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러시아 국립발레단, 베를린 국립발레단을 거쳐 현재 빈 국립발레단의 프리마돈나로 활약 중인 루드밀라 코노발로바가 클라라를 열연하였다.



CDSMBA008 (2CD/ STEREO/MONO)

❖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드비 에를리히, 미셸 오클레르

Michele Auclair(violin)/Janine Bonneau (Piano)/Jean-Claude Ambrosini (Piano)/Manuel Rosenthal(cond)/Devy Erlih(violin)/Brigitte Engerer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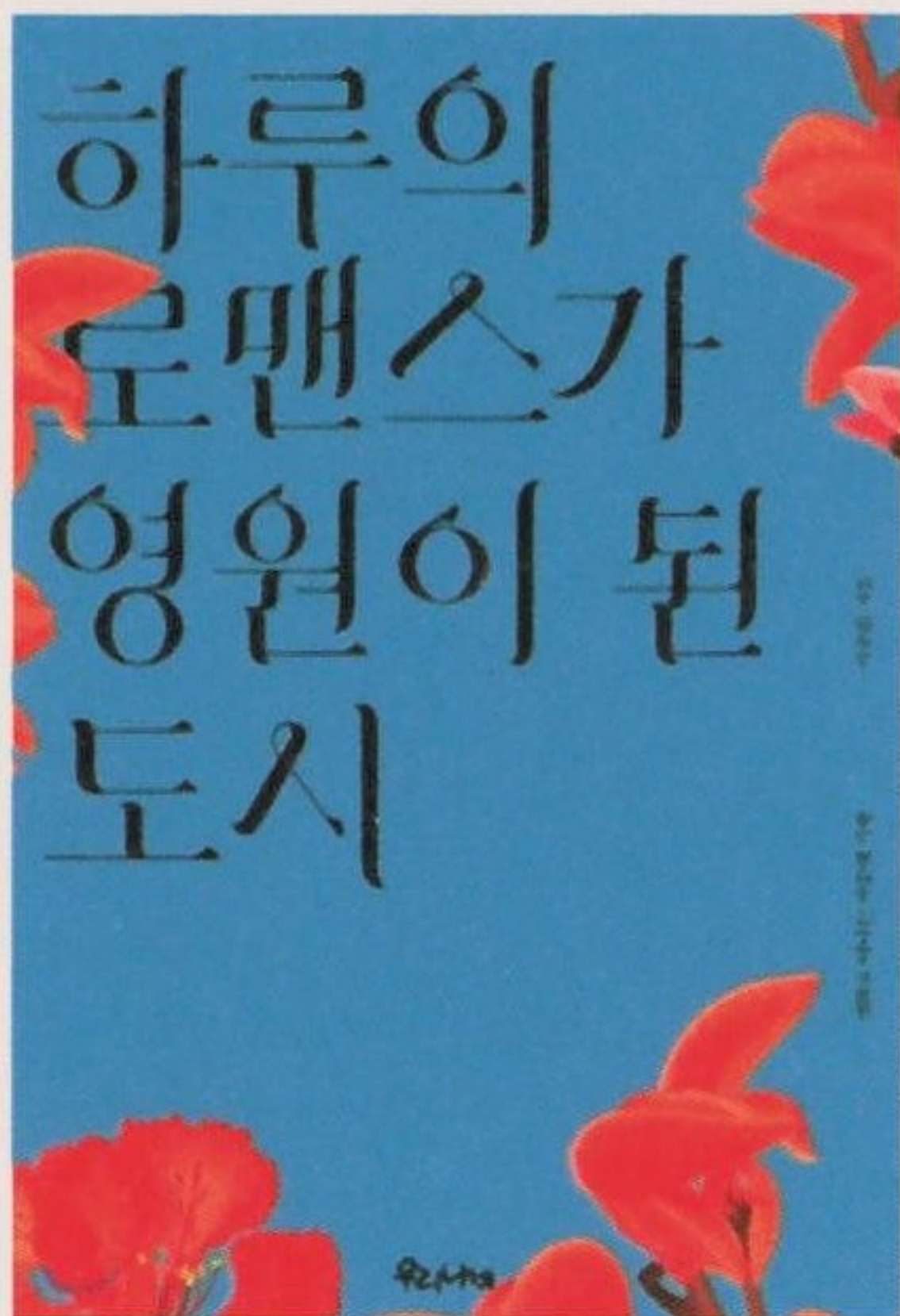
▶ 세계 최초로 발매되는 프랑코-벨기에 악파 출신의 명바이올리니스트 앨범!

1955년 롱-티보 콩쿠르 우승을 시작으로, 파리음악원 교수로 활동하였고, 아날로그 LP시절에는 컬렉터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드비 에를리히의 1980년 파리 리사이틀 전곡 수록음반. 그리고 설명이 필요 없는, 프랑코-벨기에 악파의 꽃, 미셸 오클레르의 미발표 실황녹음과 방송 녹음이 50여년 만에 최초로 정식발매되었다.

음반 제작을 위해, 라디오 프랑스와 시청각연구소(INA)에 보관되어 있던 오리지널 마스터 테이프를 2014년 7월, 새롭게 디지털로 복원(24bit/192kHz Digital restoration)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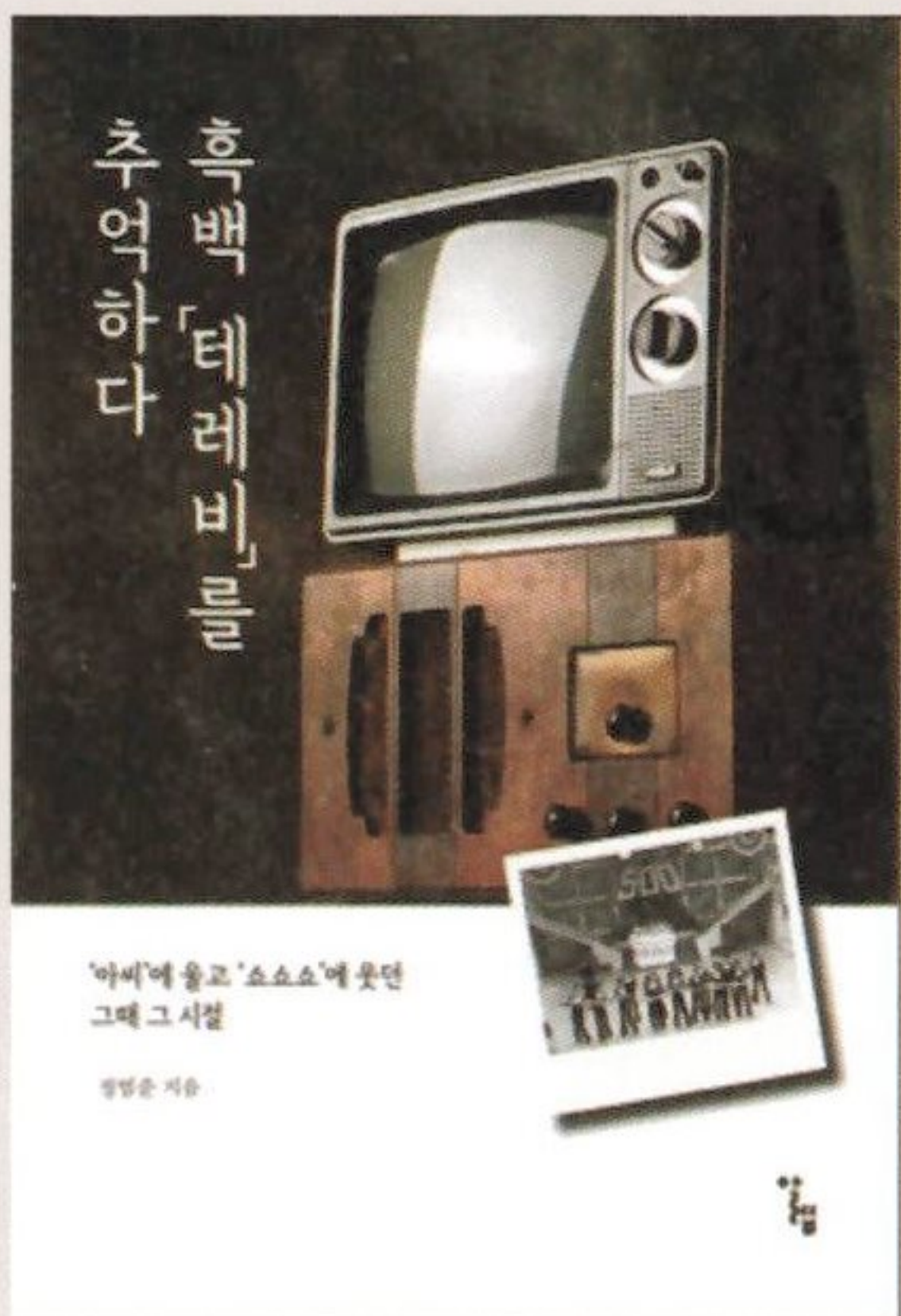
❖ 하루의 로맨스가 영원이 된 도시



이수원 지음 / 우리나비 / 275p / 1만 6천 원

단 하루의 로맨스가 영원한 사랑으로 기억되는 도시는 어디일까.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로마의 휴일'(1953년)은 1950년대 이탈리아 로마를 더없이 아름다운 화면으로 보여준 영화이다. 그레고리 펙과 오드리 헵번은 그 짧은 만남 동안 멋진 장소들만 찾아다녔다. 스크린에 비친 그들의 모습과 로마의 풍경은 전 세계 연인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하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말이다. 미학적 평가에 집중하는 '평론가의 영화서'가 아니라, 보다 현장감 있고 역동적인 '영화제 프로그래머의 영화서'가 발간됐다. 영화에 관한 책인가 하면, 품격 있는 여행 이야기 같기도 하고, 한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책이기도 하다. 저자는 다년간 부산국제영화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이수원 씨. 그의 첫 저서인 이 책은 월드영화 프로그래머로서 세계 각지를 여행하고 각종 국제영화제에 참석하여 영화계 거장들을 만난 경험을 녹여내고 있다. '그리스인 조르바'와 그리스 크레타, '태양은 가득히'와 이탈리아 이스키아, '카르멘의 사랑'과 스페인 세비야 등 영화와 그 배경을 함께 이야기한다. 고전영화 감상의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영화의 배경과 맥락을 같이하는 역사 문화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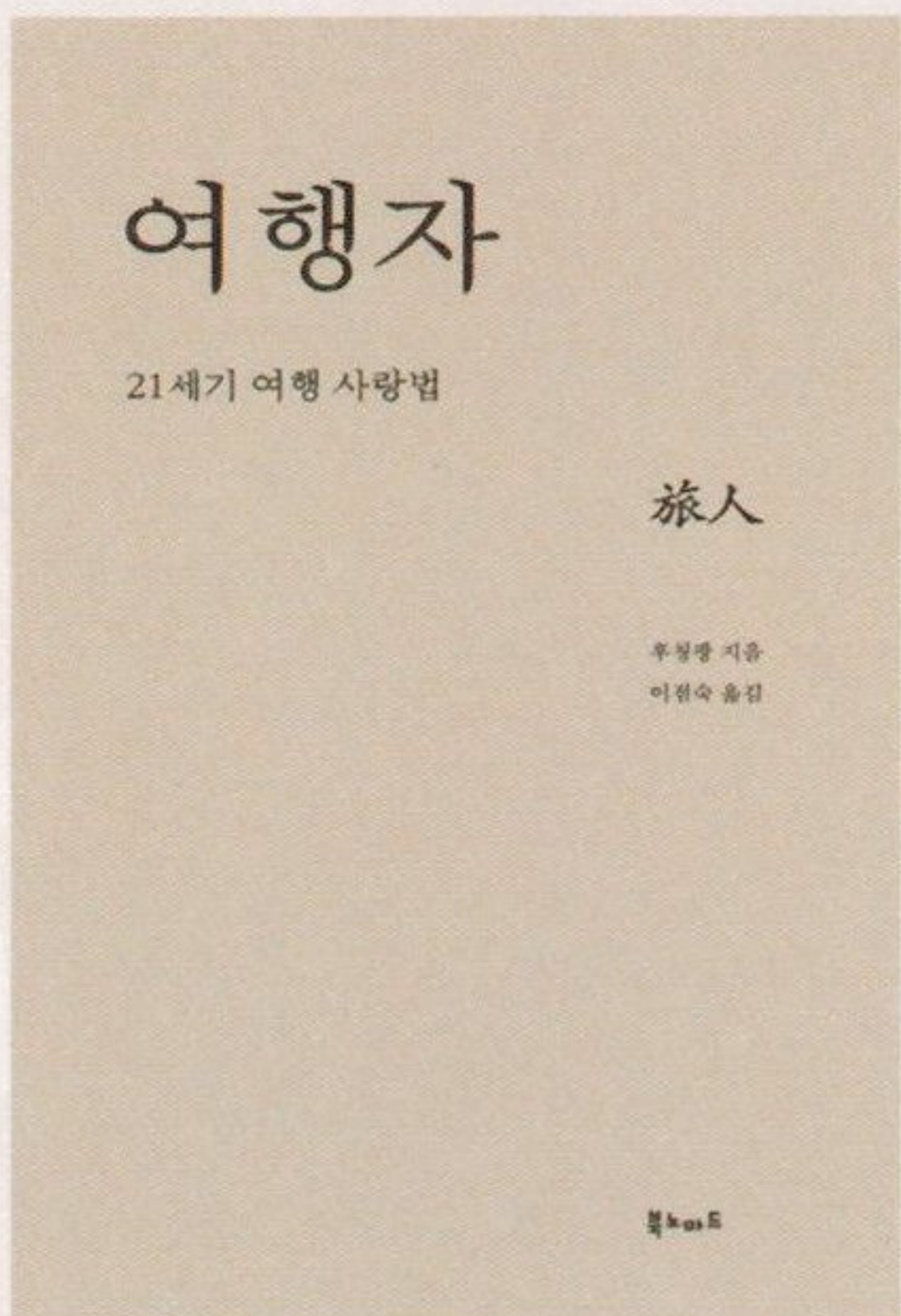
❖ 흑백 테레비를 추억하다



정범준 지음 / 알렘 / 232p / 1만 4천 원

'흑백 테레비'. 텔레비전이 아니라 테레비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이 흑백 테레비 앞에서 울고 웃었다. 테레비가 쏙 들어가는 상자에는 열쇠까지 달려 있었다. 테레비가 없는 집의 아이들은 만화영화 하나 보려고 테레비가 있는 친구들에게 잘 보여야 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안방에서 마루까지 빼곡히 앉아 프로레슬러 김일의 박치기 장면에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흑백 테레비의 등장은 오늘날의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충격적으로 다가온 문명의 은총이었다.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 KORCAD는 1956년 5월 12일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당시의 텔레비전이 얼마나 큰 문화적 충격이었는지 말해주는 일화가 있다. 작가 이병주(1921~1992)는 어느 칼럼에서 'TV도 못 보고 죽은 친구를 한탄'하는 글을 썼다고 한다. 1956년 5월 13일자 한국일보는 텔레비전을 '라디오와 활동사진을 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흑백 테레비 시대는 1980년 11월 30일로 종막을 고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컬러 텔레비전의 시대가 열렸다. 흑백 테레비 시절 한국 방송의 변화 과정과 KORCAD, DBC, TBC 등 사라진 방송사들에 관한 기록과 추억을 한데 엮은 책이다.

❖ 여행자



후칭팡 지음, 이점숙 옮김 / 북노마드 / 320p / 1만 3천 원

여행은 흔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여행담을 풀어놓는 시대다. 서점에는 여행서적들이 넘쳐난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될 정도이다. 개인 블로그나 카카오톡에도 여행이 안겨 준 행복과 즐거움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정작 여행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대만 작가인 후칭팡의 <여행자>는 '여행'이라는 이름의 건강한 고독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색하는 책이다. 이를테면 동양식 '여행의 기술'인 셈이다. 그녀는 여행이라는 '행위'를 통해 그 안에 담긴 계급과 편견, 관점과 감정, 습관 같은 것들을 읽어낸다. 여행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후칭팡은 단 한 번이라도 여행을 해봤다면 누구나 느껴보았을 법한 여행자의 감정들을 콕 집어 잡아낸다. 그것들은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감정이라 대부분의 여행자가 쉽게 흘려보내는 것들이다. 하지만 후칭팡은 그러한 찰나의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글로 풀어낸다. 그러한 그녀의 관점과 성찰은 독자의 사고를 자극시켜, 여행에 대한 상상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여행이라는 행위를 행하고 있던 순간의 모습이 떠오르는 순간, 신기하게도 모든 여행자는 다시 여행을 갈망하게 된다.

NEWS

❖ 11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평소 공연장을 찾을 수 없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부산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11월 공연이 부산전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은 내사랑 부산공연,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등 네 분야로 나뉘어 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11월에는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리는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를 시작으로 8회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일정

-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11월 5일(수) 12:30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 **부산맹학교 3층 체육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11월 6일(목) 14:30
'찾아가는 소년소녀합창단'(출연/소년소녀합창단)
- **화명생태공원 내사랑 부산공연** 11월 8일(토) 15:00
'허왕후신행길축제'(출연/국악관현악단)

- **고등법원 로비 근로자를 위한 활력 공연** 11월 10일(월) 12:30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 **부산시청 로비 내사랑 부산공연** 11월 12일(수) 12:30
'시민과 함께하는 로비콘서트'(출연/합창단)
- **금양중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11월 14일(금) 11:45
'예술체험을 통한 나의 진로 찾기'(출연/교향악단)
- **대천초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11월 17일(월) 13:00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 **용당초등학교 꿈나무 소망심기 공연** 11월 25일(화) 09:50
'해설이 있는 오페라 음악회'(출연/합창단)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6)

❖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단체 가입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원장/나용승)에서 병원 가족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단체 가입했다.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용승 원장은 병원 직원과 환자, 가족들을 위해 그랜드 자연 정기음악회를 열어 왔다. 지난해는 음악을 듣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병원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직원 난타팀인 '그랜더'를 결

성, 직원, 환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해왔다. 특히 지난 8월에는 '그랜더'가 입원 중인 치매노인 8명과 호흡을 맞춰 신명나는 공연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병원 가족들에게 공연정보를 제공하며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예술단 공연 등을 비롯한 부산지역 공연관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자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가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필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서스펜스 수사관 '그놈을 잡아라'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러브액츄얼리'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60% Discount
코믹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 쿠폰소지 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 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요구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우호기간

2014. 11~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86호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1(대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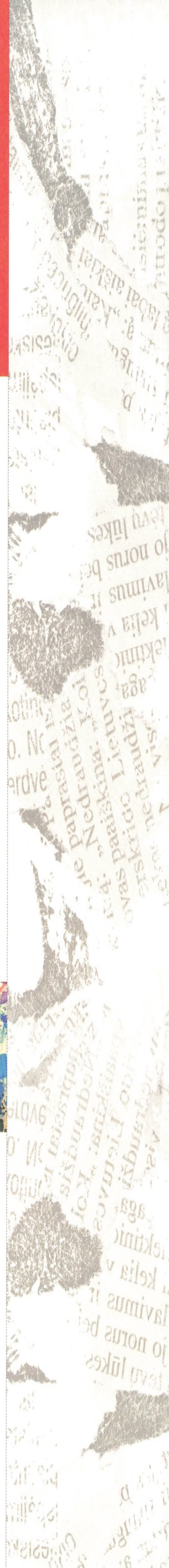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CULTURAL SCHEDULE

2014 November 11

1	18:00 부산평화방송 기틀리상가제 대극장 무료/부산평화방송(600-8811~3) 16:00 극단 새벽 창단 30주년 발림(몸짓)극 '새야 새야' 중극장 균일 2만원/극단 새벽(245-5919) 16:00 토요일연극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5	15:00 뮤지컬 '사카고' 대극장 12만원·10만원·8만원·6만원 19:30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16:00 2014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중극장 19:30 균일 1만원/공푸는 아이(010-7503-6564) 16:00 토요일연극무대-부산시립합창단 소극장
2	18:00 2014 막심 므리바차 내한공연 대극장 지니컨텐츠(02-568-8831) 17:00 전장수 클래식 기타 독주회 중극장 균일 2만원/WE MUSIC(031-321-8958)	16	15:00 뮤지컬 '사카고' 대극장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17:00 청소년합주곡의 밤 중극장 밀그램오케스트라(010-7309-8069) 18:30 12학년 '가을이야기' 소극장 부산자유발드르프학교(010-4065-2562)
4	19:30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소리' 대극장 부산가야금연주단(010-6578-7968) 19:30 허메스테피아노 독주회 중극장 예술기획(010-4909-7444) 19:30 제8회 새물결춤작가연 소극장 부산무용협회(632-5116)	17	20:00 모스크바 방송교향악단 부산공연 대극장 (주교리아나메니지먼트(02-3487-0678)) 19:30 부산 사랑의 부부합창단 정기연주회 중극장 사랑의 부부합창단(010-6428-7019)
5	19:30 테너 오동주의 스토리 콘서트 대극장 균일 2만원/오동주(010-4556-5058) 19:30 남구 오륙도여성합창단 2014년 정기연주회 중극장 초대/부산광역시 남구청(607-4064) 19:30 제8회 새물결춤작가연 소극장 부산무용협회(632-5116)	19-21	11:00 부산시립극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소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극단(607-3151)
6	19:30 부산광역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 제12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부산시 여성연합합창단협의회(011-833-0621) 19:30 송대솔 거문고 독주회 소극장 송대솔(010-4187-7266)	20	19:30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대극장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175회 정기연주회 중극장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7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웰빙콘서트 IV '토스카'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9:00 한얼장터연구소 제19회 정기연주회 '천년의 문화 시조, 어제와 오늘' 소극장 정인영(010-3870-8597)	21	19:30 부산시립무용단 제71회 정기공연 '춤추는 영혼' 대극장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무용단(607-3131~2) 19:00 제4회 한국청소년합창축제 중극장 (사승인문화재단(010-4183-2293))
8	19:00 2014 이루마 전곡투어 콘서트 대극장 8만 8천원·7만 7천원/화랑엔터테인먼트(1644-5564, 1544-3901) 17:00 선우안영, 김현정 피아노 듀오 연주회 중극장 균일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6:00 토요일연극무대-부산시립교향악단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22	17:00 해운대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극장 해운대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010-4259-6541) 17:00 벨라보체 합창단 창단연주회 중극장 무료/벨라보체 합창단(010-2282-0441) 16:00 토요일연극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소극장
9	19:0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중극장 초대/아트커뮤니티센터-라운(506-9887) 17:00 부산국제연극제 '벚꽃동산-진실너머'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3	19:30 제46회 인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대극장 인코리안심포니 오케스트라(626-8081) 17:00 제22회 부산 플루트 앙상블 정기연주회 중극장 아트뱅크코리아(442-1941) 19:30 듀오리시틀 소극장 이해진(010-4842-4844)
10	19:30 금신새와 떠나는 오페라 여행! 라 보엠 대극장 2만원·1만5천원·1만원/부산문화회관(607-6058) 19:00 김희은의 춤 '톡' 중극장 김희은(010-7770-5395) 19:30 부산국제연극제 '벚꽃동산-진실너머' 소극장	24	19:30 제6회 부산월드필하모니 오케스트라 The Classic- 아시아의 창 부산 대극장 (주KNN(850-9344)) 19:30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합창 정기연주회 '메시야' 중극장 고신대학교 교회음악과(010-8455-2383)
11	19:30 프랑스 클래식 기타리스트 띠보 고평 초청콘서트 중극장 3만원·2만원/부산문화(1600-1803) 19:30 부산국제연극제 '러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프로젝트'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5	19:30 부산대학교 효원음악회 대극장 부산대학교(510-1266) 19:00 경성대 평생교육원 가곡교실 정기연주회 소극장 무료/경성대 평생교육원(010-9287-6350)
12	19:30 피아니스트 김경미의 음악이야기 중극장 균일 1만원/김경미(010-6450-7591) 19:30 부산국제연극제 '러닝머신 타는 남자의 연애갱생프로젝트'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6	19:30 2014 서울림문화 예술축제 대극장 한빛예술단(02-989-3148) 11: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 중극장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13	19:30 장인숙 전통춤공연 중극장 장인숙무용단(010-8508-4602) 19:30 부산국제연극제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소극장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802-8003)	27	19:30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시와 합창의 만남' 대극장 1만원·7천원·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4) 19:30 어린이앙상블 창단 콘서트 소극장 A-ri(010-6803-3886)
14	19:30 뮤지컬 '사카고' 대극장 (주예술기획성우(1599-1980)) 19:30 2014 뮤지컬 페스티벌 갈라콘서트 중극장 균일 1만원/공푸는 아이(010-7503-6564) 19:30 부산국제연극제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소극장	28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05회 정기연주회 대극장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8-31	제10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소극장, 전시장 새부산문화진흥원(809-1551)
		30	17:00 제1회 동우리민요연구회 정기공연 소극장 동우리민요연구회(010-6314-9680)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월일 정산 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월까지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051)622-1456

하나원키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정산특선 제외)
 센텀SH빌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051)626-2592

서스펜스 수시극 '그들을 잡아라'
 2014.9.18(목)~2015.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5:00, 8: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초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초은극장 1588-2757

연극 '리브액츄얼리'
 2014.10.30(목)~2015.1.4(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요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 초은극장 스티플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초은극장 1588-2757

코믹연극 '죽여주는 이야기'
 2014.10.23(목)~2015.1.4(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 · 공휴일 오후 2:00, 5: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초록우산 가운아트홀 1관
 문의 및 예매 : SM71회 1600-1602

연극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
 2014.11.1(토)~11.30(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 없음)
 입장권 : 권일 3만원
 장 소 : 공간스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스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2014 November 11

1	18:00 Busan PBC Choral Festival Grand Theater Free/Busan PBC(600-8811~3)	15	15:00 Musical 'Chicago' Grand Theater 120,000/100,000/80,000/60,000/Sungwool(1599-1980)
	16:00 Theater Saebuyuk 30th Anniversary of Founding Performance Medium Theater 20,000/Theater Saebuyuk(245-5919)		19:30 2014 Musical Festival Medium Theater Dreaming Kid(010-7503-6564)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Free(On a first come first serve basis)/B.C.C(607-6056)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2	18:00 2014 Maksim Mrvica Tour Concert Grand Theater Genicontents(02-568-8831)	16	15:00 Musical 'Chicago' Grand Theater Sungwool(1599-1980)
	17:00 2014 Jun Jangsu Classical Guitar Recital Medium Theater WE MUSIC(031-321-8958)		17:00 Pilgrim Orchestra 'Night of Youth Concert' Medium Theater Pilgrim Orchestra(010-7309-8069)
4	19:30 The 10th Regular Concert of Busan Gayageum Orchestra Grand Theater Busan Gayageum Orchestra(010-6578-7968)		18:30 Busan Waldorf Kindergarten Grade 12 'Fall Story' Small Theater Shin Yeongju(010-4065-2562)
	19:30 Hur Esther Piano Recital Medium Theater Yeosol(0505-700-9798, 010-4909-7444)	17	20:00 Tchaikovsky Symphony Orchestra of Moscow Radio Busan Concert Grand Theater Koreana Management(02-3487-0678)
	19:30 The 18th New Wave Dance Performance Small Theater Dance Association of Korea(Busan)(632-5116)		19:30 The Regular Concert of Busan Loving Couple Choir Medium Theater Kim Myeongil(623-3331)
5	19:30 Tenor Oh Dongju Story Concert Grand Theater 20,000/Oh Dongju(607-3142, 010-4556-5058)	19	19:30 The Invitation Concert of Chamber Ensemble 'Bright Bows' Medium Theater Space Um (557-3369)
	19:30 The 8th Regular Concert of Nam-gu Oryukdo Women's Choir Medium Theater Nam-gu Oryukdo Women's Choir(607-4064)	19-20	11:00 The Special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Theatre Company Small Theater B.M.T.C(607-3151)
	19:30 The 18th New Wave Dance Performance Small Theater Dance Association of Korea(Busan)(632-5116)	20	19:30 The 71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Grand Theater B.M.D.C(607-3131~2)
6	19:30 The 12th Regular Concert of Busan Union Women's Choir Grand Theater Busan Union Women's Choir(011-833-0621)		19:30 The 175th Regular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Medium Theater B.M.T.C(607-3123)
	19:30 Soung Dasol Keomungo Recital Small Theater Soung Dasol(010-4187-7266)	21	19:30 The 71th Regular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Grand Theater B.M.D.C(607-3131~2)
7	11:00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2014 Wellbeing Concert IV 'La Tosca' Medium Theater B.P.C(607-3111~3)		19:00 The 4th Korea Youth Choir Festival Medium Theater Soogjin Cultural Foundation(010-4183-2233)
	19:00 The 19th Regular Concert of Haneol Jeongak Institute Small Theater Jeong Inkyeong(010-3870-8597)	22	17:00 The Regular Concert of Haeundae Youth Symphony Orchestra Grand Theater Haeundae Youth Symphony Orchestra(010-4259-6541)
8	19:00 2014 Yiruma Concert Grand Theater Hwarang(1644-5564)		17:00 Bellavoce Chorus Founded Concert Medium Theater Bellavoce Chorus(010-2282-0441)
	17:00 Piano Duo Concert Medium Theater Artbank Korea(442-1941)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16:00 Saturday Regular Stage Small Theater	23	19:30 The 46th Regular Concert of Incorean Symphony Orchestra Grand Theater Kim Soyeon(626-8081)
9	19:00 Art Community Center Raon Performance Medium Theater Art Community Center Raon(506-9887)		17:00 The 22th Regular Concert of Busan Flute Ensemble Medium Theater 20,000/Artbank Korea(442-1941)
	17:0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19:30 Duo Recital Small Theater Lee Hyejin(010-4842-4844)
10	19:30 Opera Travel with Gum Nnase II 'La Boheme' Grand Theater B.C.C(607-6058)	24	19:30 2014 6th Busan World Philharmonic Orchestra 'The Classic-Asia port Serise' Grand Theater KNN(850-8000)
	19:00 Dance of Kim Huijeun Medium Theater Kim Huijeun(010-7770-5395)		19:30 Department of Church music of Kosin University 'Messiah' Medium Theater Kosin University(010-8455-2383)
	19:3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25	19:30 Pusan National University 'Hyowon Concert' Grand Theater Pusan National University(510-1209)
11	19:30 French Classical Guitarist Thibault Cauvin Recital Medium Theater Busan Cultural(1600-1803)		19:00 Continuing Education Center of Kyungsoo University 'The Regular Concert of Classroom songs' Small Theater Free/Kang Hakyoon(607-3151)
	19:3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26	19:30 Blind Performing Arts Company Hanbit Culture and Art Festival Grand Theater Hanbit Performing Arts Company(02-989-3148)
12	19:30 Pianist Kim Gyeongmi Recital Medium Theater 10,000/Kim Gyeongmi(010-6450-7591)		11:00 Busan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 'Special Performances for Youth' Medium Theater B.M.T.C(607-3123)
	19:3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27	19:30 The Special Concert of Busan Metropolitan Chorus Grand Theater 10,000/7,000/5,000/B.M.C(607-3141~4)
13	19:30 Jang Insuk Traditional Dance Performance Medium Theater Jang Insuk(010-8508-4602)		19:30 A-ri Ensemble Concert Small Theater A-ri(010-6803-3886)
	19:3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28	19:30 The 505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Grand Theater B.P.C(607-3111~3)
14	19:30 Musical 'Chicago' Grand Theater Sungwool(1599-1980)	28-30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Tea Culture Festival Medium Theater Busan Tea Culture Institute(809-1551)
	19:30 Musical Festival Medium Theater Dreaming Kid(010-7503-6564)	30	17:00 The 1st Concert of Dongeui Korea Folk Song Institute Small Theater Dongeui Korea Folk Song Institute(010-8314-9880)
	19:30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Go World Festival TOP 3 Parade' Small Theater BIPAF(802-8003)		

12월 테마여행 신청

테마여행지 추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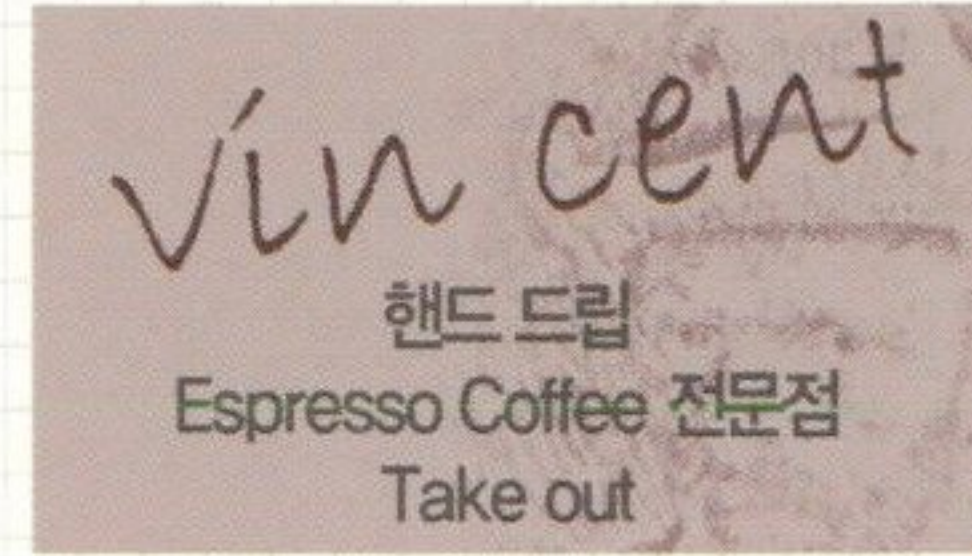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1층 Tel. 051)622-1456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빌딩 2층 Tel. 051)626-2592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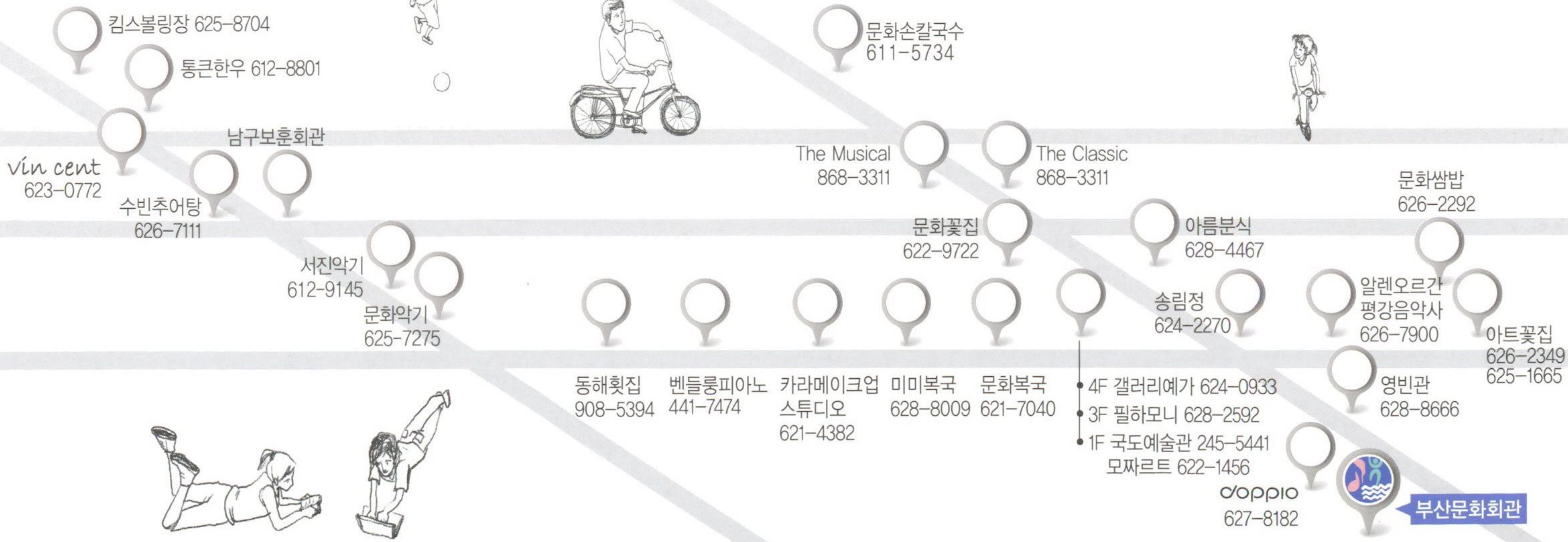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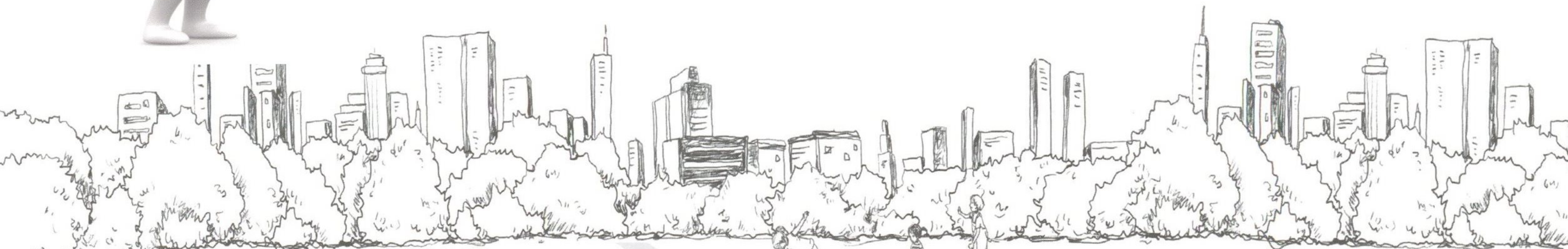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카드제시시
평일 3천원, 주말·공휴일 4천원 할인
(회당 2매/조조, 심야, 3D 제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신적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로마 오페라극장 솔오페라단 공동제작 오페라

TOSCA

by G. Puccini

토스카

격정적인 사랑과 정치적 혼돈속의 로마가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2014. 12.5 FRI ~ 6 SAT PM 7:30 / 7 SUN PM 5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솔오페라단  로마오페라극장  KBS 부산

주관  부산문화회관 SOL & MUSIC COMPANY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협찬  JOTUN 조광요틴  해피랜드 F&C  M-U SPORTS  SE WON CORPORATION  서도상선주식회사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솔오페라단 1544-9373

티켓 R 200,000원 S 180,000원 A 130,000원 B 80,000원 C 50,000원 D 30,000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할인)